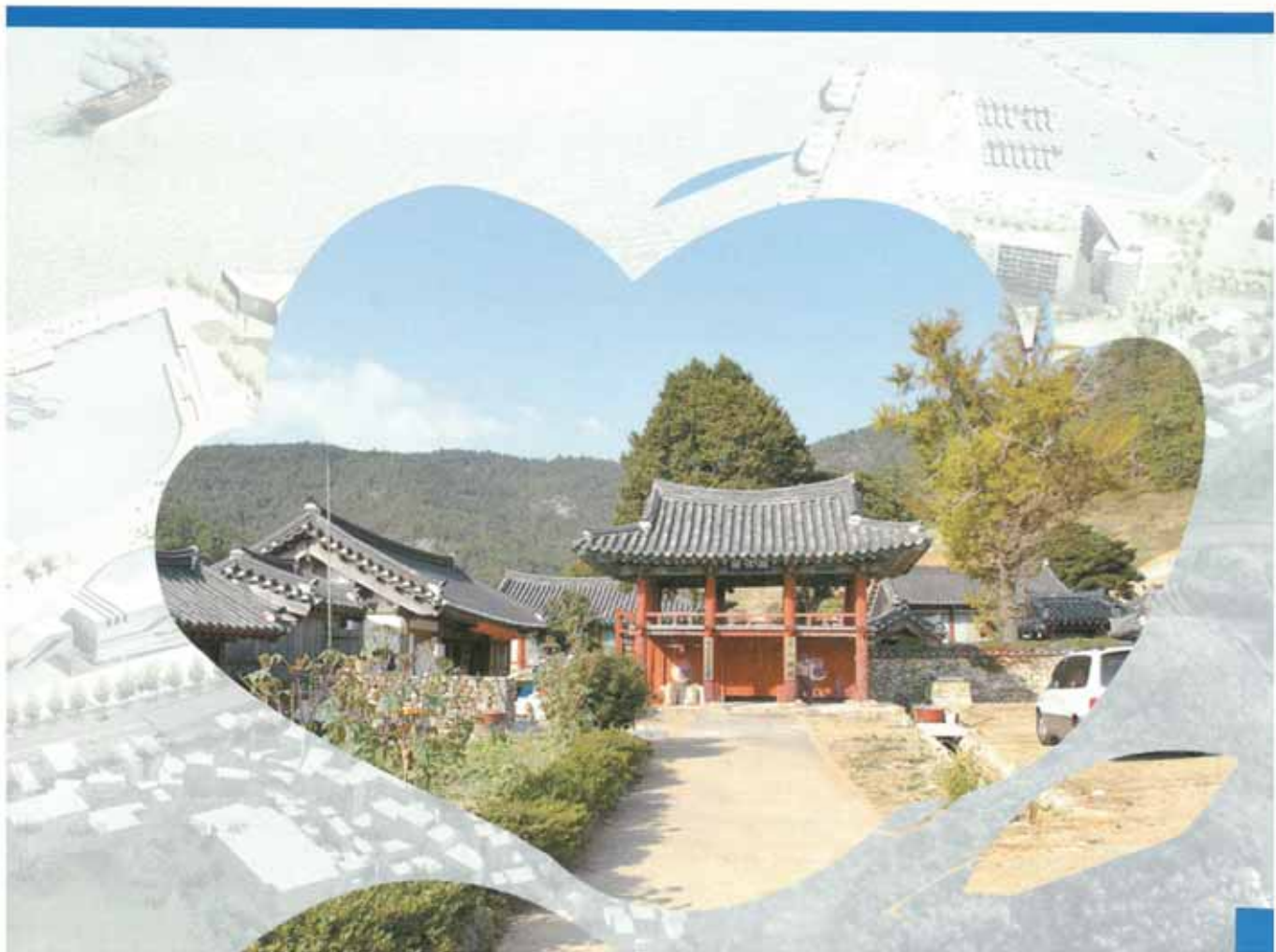


제 1 편

문화재와 문화유적



제 1 장

여수지역의 문화재

정 희 선 (청암대학 교수)



제1절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지정문화재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해저·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인 매장문화재와 50년 이상된 동산문화재,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

지정문화재의 분류

| 유형별 지정권자별 | 유형문화재 | 민속자료 | 기 념 물 | | | | 무형문화재 |
|--------------|---------|--------|-------|----|-----------|------------|---------|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중요민속자료 | 사적 | 명승 | 사적및 명승 | 천 연 기념물 | 중요무형문화재 |
|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 민속자료 | 기 념 물 | | | | 무형문화재 |
| 문화재자료 | 문화재자료 | | | | | | |

제2절 여수지역의 문화재 현황

여수지역의 지정문화재는 2010년 현재 총 52개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개, 보물 12개, 사적 2개, 명승 1개, 중요민속자료 1개, 천연기념물 1개로 총 1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 문화재 5개, 무형문화재 3개, 기념물 5개, 민속자료 2개 등 총 15개이다. 이외에 문화재자료 11개, 등록문화재 8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수지역 문화재 분류

| 총계 | 국 가 지 정 | | | | | | | 도 지 정 | | | | | 문화재 자 료 | 등 록 문화재 |
|----|---------|----|----|----|----|----------------|---------------|-------|----|----|-----|----------|------------|------------|
| | 소개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중요 민속 자료 | 천연 기념 물 | 소개 | 유형 | 무형 | 기념물 | 민속 자료 | | |
| 52 | 18 | 1 | 12 | 2 | 1 | 1 | 1 | 15 | 5 | 3 | 5 | 2 | 11 | 8 |

※ 지정문화재 현황

국가 지정문화재(동산 : 10, 부동산 : 8)

| 연번 | 문 화 재 명 | 지정내용 | 소 재 지 | 지 정 일 |
|----|-------------------|---------|----------------|------------|
| 1 | 여수 진남관 | 국보 304 | 군자동 471 | 2001.4. 17 |
| 2 | 흥국사 대웅전 | 보물 396 | 중흥동 17 | 1963. 9. 2 |
| 3 | 흥국사 흥교 | 보물 563 | 중흥동 17 | 1972. 3. 2 |
| 4 | 좌수영대첩비 | 보물 571 | 고소동 620 | 1973. 5. 4 |
| 5 |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화 | 보물 578 | 중흥동 17 | 1974. 7. 9 |
| 6 | 상고정보자비도량참법(권7~10) | 보물 875 | 월내동 252(주)와이엔텍 | 1986.10.15 |
| 7 | 타루비 | 보물 1288 | 고소동 620 | 1998.11.27 |
| 8 | 흥국사 노사나불괘불탱 | 보물 1331 | 중흥동 17 | 2002. 1. 2 |
| 9 | 흥국사 수월관음도 | 보물 1332 | 중흥동 17 | 2002. 1. 2 |

| | | | | |
|----|------------------------------|-----------|-----------------|------------|
| 10 | 흥국사 십육나한도 | 보물 1333 | 중흥동 17 | 2002. 1. 2 |
| 11 |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 보물 1550 | 중흥동 17 | 2008. 3.12 |
| 12 | 여수 흥국사 동종 | 보물 1556 | 중흥동 17 | 2008. 3.12 |
| 13 |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 보물 1566 | 중흥동 17 | 2008.6.27 |
| 14 | 여수 충민사 | 사적 381 | 덕흥동 1808 | 1993. 6. 1 |
| 15 | 여천 선소유적 | 사적 392 | 시전동 708외 | 1995.4.20 |
| 16 |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 명승 7 | 삼산면 거문리 산 30 | 1979.12.11 |
| 17 | 여수 연등동 벽수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 중요민속자료224 | 여수시 연등동 376 | 1990.10.10 |
| 18 | 화석지 및 퇴적층 | 천연기념물 434 | 화정면 낭도리 산 115-2 | 2003. 2. 4 |

도지정문화재(동산 : 4, 부동산 : 11)

| 연번 | 문화재명 | 지정내용 | 소재지 | 지정일 |
|----|----------------|------------|---------------|-------------|
| 1 | 여수 석인 | 유형문화재33 | 군자동 472 | 1972. 8. 7 |
| 2 | 흥국사 원통전 | 유형문화재45 | 중흥동 17 | 1974. 9. 24 |
| 3 | 돌산군관청 | 유형문화재155 | 돌산읍 군내리 322-2 | 1987. 6. 1 |
| 4 | 여수 흥국사 삼장보살도 | 유형문화재 299 | 중흥동 17 | 2009. 3.20 |
| 5 | 여수흥국사 제석도 | 유형문화재300 | 중흥동 17 | 2009. 3.20 |
| 6 | 거문도 뱃노래 | 무형문화재 1 | 삼산면 서도리 | 1972. 1. 29 |
| 7 | 현천소동패놀이 | 무형문화재 7 | 소라면 현천리 | 1982. 10.15 |
| 8 | 판소리 동편제 홍보가 | 무형문화재 29-1 | 미평동 592-2 | 2006.12.27 |
| 9 | 돌산 평사리 고니도래지 | 지방기념물 43 | 돌산읍 평사리 산 250 | 1979. 8. 3 |
| 10 | 석창성지 | 지방기념물 106 | 여천동 868 | 1987. 1. 15 |
| 11 | 여수 오림동 지석묘군 | 지방기념물 150 | 화장동 945-1 | 1994. 1. 31 |
| 12 | 여천 호명의 방재수림대 | 지방기념물 165 | 호명동 528일대 | 1997. 5. 15 |
| 13 | 여수 산수리 지석묘군 | 지방기념물 230 | 울촌면 산수리 산 24 | 2005. 1. 27 |
| 14 | 여수 영당지 | 민속자료 44 | 남산동 30-4 | 2008.12.26 |
| 15 | 여수 악공청 관련자료 일괄 | 민속자료 45 | 동산동 457 | 2008.12.26 |

문화재 자료

| 연번 | 문화재명 | 지정내용 | 소재지 | 지정일 |
|----|----------------|-----------|----------------|-------------|
| 1 | 흥국사 | 문화재자료38 | 중흥동 17 | 1984. 2. 29 |
| 2 | 은적암 | 문화재자료39 | 돌산읍 군내리 4 | 1984. 2. 29 |
| 3 | 항일암 | 문화재자료40 | 돌산읍 울림리 산 7 | 1984. 2. 29 |
| 4 | 돌산향교 | 문화재자료41 | 돌산읍 군내리 304 | 1984. 2. 29 |
| 5 | 여수향교 | 문화재자료124 | 군자동 165 | 1985. 2. 25 |
| 6 | 여수 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 문화재자료202 | 연등동 376 | 1998. 8. 13 |
| 7 | 여수 절도사 안숙사적비 | 문화재자료203 | 연등동 436-2 | 1998. 8. 13 |
| 8 | 여수 고락산성 | 문화재자료204 | 둔덕동 산 176 | 1998. 8. 13 |
| 9 | 여수 손죽도 이대원사당 | 문화재자료 239 | 삼산면 손죽리 산 1164 | 2003. 5.27 |
| 10 | 여수 이량장군 방왜축제비 | 문화재자료240 | 군자동 509 | 2003. 10.4 |
| 11 | 흥국사 팔상전 | 문화재자료 258 | 중흥동 17 | 2005.12.27 |

등록문화재

| 연번 | 문화재명 | 등록내용 | 소재지 | 등록일 |
|----|-----------------|-----------|----------------|-------------|
| 1 | 여수 (구)청년회관 | 등록문화재 31 | 관문동 303 | 2002. 5. 31 |
| 2 | 여수 애양교회 | 등록문화재 32 | 울촌면 신흥리 1 | 2002. 5. 31 |
| 3 | 여수 애양병원 | 등록문화재 33 | 울촌면 신흥리 18 외 2 | 2002. 5. 31 |
| 4 | 장천교회 | 등록문화재 115 | 울촌면 조화리 139 | 2004.12. 31 |
| 5 | 미래 제2터널 | 등록문화재 116 | 덕충동 산 9 | 2004. 12.31 |
| 6 | 제일은행 여수지점 | 등록문화재 170 | 중앙동 691 | 2005. 4. 15 |
| 7 | 여수 울촌역 | 등록문화재 301 | 울촌면 조화리 58-2 외 | 2006. 12. 4 |
| 8 |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 등록문화재 367 | 화정면 낭도리 180 외 | 2007.11. 30 |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계 소은애하에서 문화재현황 자료 제공

참고문헌

- 여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 『여수시의 문화유적』, 2000.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문화재도록』, 2001.

제 2 장

무형 문화재

이 경 엽 (목포대학교 교수)



제1절 거문도 뱃노래

1. 개요

- 문화재명 : 거문도 뱃노래
-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 지정년도 : 1972년
- 전승지역 : 삼산면 거문도
- 예능보유자 : 정경용(1947~)

거문도 뱃노래는 거문도에서 멸치잡이를 할 때 부르던 노동요다. 거문도는 지리적으로 좋은 어장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다양한 어로활동이 이

루어졌다. 이곳은 난류가 북상할 때 서해와 동해로 분류하는 지점이고 또 가을 추운 연안수가 확장되면 서해 해류와 동해 해류가 합류해서 동중국해로 후퇴하는 합류 지점이다. 따라서 거문도 일대에는 멸치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이 몰려드는 어장이 형성된다. 멸치잡이 노래는 이런 배경에서 성립되었다.

전통적으로 거문도 사람들은 멸치잡이를 하면서 일의 동작을 맞추고 피로를 덜기 위해 작업 과정마다 노래를 불렀다. 출어를 앞두고 부르는 <고사소리>, 어장으로 노를 저어 나가면서 부르는 <눅소리>,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월래소리>, 고기를 배에 퍼 실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 고기를 싣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썰소리>, 그리고 줄을 꼬면서 부르는 <술비소리> 등, 고기잡이의 전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거문도 뱃노래는 이른 시기부터 각별하게 주목을 받았다. 문화재관리국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69년)에 수록되었으며, 1972년에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거문도 뱃노래는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단계 각종 공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매년 진남제, 거문도풍어제 등의 지역축제, 문화행사에서 공연하고 있고, 방송 출연과 타 지역 문화행사 참가를 통해 대외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거문중학교 하계 특별 전수교육과 대학생 체험교육 등의 전수활동도 하고 있다.

거문도 뱃노래의 앞소리를 전승하고 있는 예능보유자는 정경용(1947년생)이다. 정씨는 1972년 당시 보유자였던 김창옥과 함께 멸치잡이를 하면서 어로작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뱃노래를 직접 배웠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뱃노래의 예술성을 잘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 거문도뱃노래

2. 멸치잡이 소리

1) 고사소리

조업에 나서기 전 고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소리로 과거에는 무당을 불러 고사를 지냈다.

서천국 사마세계 해동조선 전라좌도 군은 여천군 면은 삼산면 앓은관은 서도리 정경용, 선왕계 구축발원은 다름이 아니오라 약살 희살 모진 놈의 관재

구설 해당옥설 우환자작 근심수를 일시에 소멸시켜 주옵시고 돛대위에 봉기
꽃고 봉기위에 연화 받게 점지하여 주옵소서.

현원씨 배를 무어 이제 불통 현 연후에
후생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하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씨 구년치수 배를 타고 다스릴 적 오복의 정한 음식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오할 제 노노로 건네주고
해성에 패한 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우선 대지 건네주고
(하략)

2) 낚소리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로 메기고 받는 선후창 형식의 노래이다.

〈긴낚소리〉

앞소리 : 에야 뒤야
어기영차 어서들 가세
가자가자 어서가세
어장터로 어서들 가세
어기여라 뒤여라
뒷소리 : 에야 뒤야(어기야 뒤여)

〈자진낚소리〉

앞소리 : 에야 뒤야
밀물고기 썰물고기
이 그물에 다 들어오소.
뒷소리 : 에야 뒤야

3) 월래소리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앞소리 : 월래 보자

이 그물을 당겨주소
 이 그물 안 헝클어지게 어서 당그소
 헝클어지면 어장을 못하네.

뒷소리 : 월래 보자

4) 가래소리

고기를 퍼 실으면서 부르는 소리로 두 사람이 바구니 쪽반이를 들고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른다.

앞소리 : 어랑성 가래야
 여기도 퍼 실고 저기도 퍼 실고
 이 가래가 뉘 가랴고
 이 가래가 우리 가래로세

뒷소리 : 어랑성 가래야

5) 썰소리

만선이 되어 마을로 돌아올 때 부르는 소리로 선원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드러누워 있을 때 이 소리를 한다. 썰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도 만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앞소리 : 에 헤~ 어기요~
 우리 친네 마누래가
 궁둥이질 친다.
 에 헤~ 어기요~
 멸치잡어 보리풀고
 쌀을 풀아 자식들 묵고
 우리 집에 웃음꽃 피네
 돌아온다 봉기 시라
 궁창 맞아 소리 맞아
 에헤 어기여

뒷소리 : 에 헤~ 어기요~

6) 어영차소리

귀향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앞소리 : 어영차

어야디아차
만선이다 만선이다
만선이 되었으니
이웃집 마누래
궁둥이 춤이요
권네 마누라
궁둥이 춤춘다.

뒷소리 : 어영차

제2절 현천 소동패놀이

1. 개요

- 문화재명 : 현천 소동패놀이
-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
- 지정년도 : 1982년
- 전승지역 : 소라면 현천리
- 예능보유자 : 정홍수

소라면 현천리 소동패놀이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돼 있다. 소동패놀이는 소동패 활동을 둘러싸고 연행되던 들노래와 민속놀이를 지칭한다.

소동패 활동은 이른 시기에 중단되었지만, 마지막 소동패의 주역이던 정순원(당시 85세), 정양수(당시 83세), 김복개(당시 84세), 김용조(당시 80세) 등에 의해 1978년에 재현되었다.

1980년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81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982년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정홍수, 정순원, 정양수 등 세 사람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2. 조직의 구성과 활동

소동패는 성인 남자들의 두레 조직인 대동패와 달리,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공동 노동조직이다. 대동패가 20세 이상 성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소동패는 15~19세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소동패는 전통시대 농경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공동체다. 논농사에는 일정 시기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모를 심은 뒤 보름 정도의 주기로 논매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이때 노동력의 집중이 요구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퇴비용 풀을 확보해야 이듬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므로 풀베기를 위한 노동조직도 필요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두레인데, 여수지역의 경우 나이별로 그것이 분화되어 대동패와 소동패로 구분돼 운영되었다.

소동패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조직 구성도 체계적이었다. 소동패는 좌상(座上)-공원(公員)-영쫂시(앞·뒷영쫂시 각 1명)-소구잡이(앞·뒷소구잡이 각 1명)-매쫂시 그리고 일꾼들로 구성된다. 그 인원은 대개 15명 정도였다.

좌상은 마을 회의에서 선임된 어른이 맡고 상징적인 리더 역할을 한다. 실질적인 조직 관리와 작업 감독은 공원이 총괄한다. 영쫂시는 소동패의 상징인 영기(令旗)를 행렬의 앞뒤에서 들고 다닌다. 소구잡이는 소고를 들고 다니면서 신호를 하거나 반주를 한다. 그리고 매쫂시는 소동패의 규율을 엄하게 하기 위해 매를 들고 다닌다.

소동패는 대동패에 대해 깍듯이 예를 갖추어 대했다. 소동패가 길을 가다가 대동패를 만나게 되면 예의를 갖추어 전갈을 보내고 통과 여부를 묻고 통행



▲ 현천소동패놀이

을 했다. 소동패가 대동패에 아뢰는 전갈은 '문전갈'과 '들전갈'이 있고, 전갈을 아뢰 후에는 노래판을 벌이고 논다. 소동패끼리는 대등한 입장에서 기세를 울리며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

소동패는 행진할 때에 영기를 앞세우고 소고를 치며 이동한다. 소고 장단 중에는 평평한 길을 지난 때 치는 '들소고(평전소고)', 산길을 오를 때 치는 '산소고', 풀 베러 가서 중간 휴식을 알릴 때 치는 '반짐소고' 등이 있다.

소동패가 하는 주된 작업은 풀베기와 논매기다. 풀베기는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며 해준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루 두 번 풀을 베러 나간다. 논매기는 세 번(초벌·중벌·맘)에 걸쳐 한다. 초벌은 모를 심고 20여 일이 지난 6월 초순에 하고, 중벌은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서 하며, 맘은 6월 말경에 한다.

3. 놀이의 구성

현천 소동패놀이는 문화제에 나가면서 마당놀이로 재구성되었다. 본래는 장면이 분절되지 않지만 공연물로 재구성하면서 인위적으로 마당을 나누었다. 공동 노동 속에서 이루어진 놀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첫째마당

아침 식사 후 마당에 영기를 세우고 공원의 지시에 따라 소고수가 '모임소고'를 울리면, 영기 앞에 도열하여 공원으로부터 점고와 당일 작업 지시를 받고 '길 소고'를 치면서 들로 나간다.

2) 둘째마당

들로 나간 뒤에 논두렁에 영기를 꽂고 김매기를 한다. 논매기의 과정에 따라 초벌 논매기(산아지 소리, 어기야 소리), 두벌 논매기(동화 소리), 세벌 논매기(방애 소리)를 한다.

3) 셋째마당

이웃 마을 소동패로부터 시비를 거는 전갈이 오면 두 마을 소동패가 영기를 앞세우고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영문전갈(令門傳囑)’을 받으면 현천 소동패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한량(閑良)으로 놀 것인가(노래와 춤), 힘으로 겨룰 것인가(씨름, 패싸움, 밀치기 등)를 결정하여 두 패가 대결한 후, 패자가 승자에 정중하게 ‘가진 전갈(傳囑)’을 올린다.

4) 넷째마당

전갈 의식이 끝나면 양편 소동패가 풍물을 치면서 어울림 곳을 치면서 논다. 이때 유산굿 소고놀이, 동화소리, 자진 유산굿, 구정놀이 등을 한다.

4. 들노래의 내용

1) 초벌 논매는 소리

(1) 산아지노래

앞소리 : 삼산은 반락 청천외요 이수종부는 백로주로구나
 밀어라 당겨라 지심을 밀어라 나락폭 상할라 조심히 밀어라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네
 저 달아 보느냐 본대로 일러라 사생결단 임찾어 간다.

뒷소리 : 에헤야 뒤야 뒤야 에헤에 뒤여라 사니로구나.

(2) 어기야 노래(굿거리)

앞소리 : 산골 큰애기 삼 삼아 이고 날만 보며는 옆걸음 친다
 울 너머 담 너머 깔 비는 총각 눈치만 있으면 떡 받아먹소
 앞산은 점점 가까워지고 뒷산은 점점 멀어만 가네.

뒷소리 : 에야 뒤야 에헤야 에 헤 헤 어기야

(3) 어기야 소리(자진모리)

앞소리 :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북장구 장단에 눈을 매세
남산 봉환이 죽실을 물고 오동 속으로 넘노난다
다 되었네 다 되었네 논매기가 다 되었네

뒷소리 : 에야 뒤야 에헤야 에 헤 헤 어기야

2) 두벌 논매는 소리(동화소리)

앞소리 : 뒷동산천 먹감나무 한량부채로 다니간다
잠자리가 논다 잠자리가 논다 아랫골 메밀밭에 잠자리가 논다
붕어가 논다 붕어가 논다 아랫골 물고 밑에 짜리 쌀붕어가 논다
홍갑사 댕기는 붉어야 좋고 큰애기 속곳은 넓어야 좋네.

뒷소리 : 나 헤- 헤 동화로 구-나-

3) 세벌 논매는 소리

앞소리 : 춤추는 놈은 춤만 추었지 모타리 하나 손 안땀네
언덕 밑에 김서방네 거머리 물려서 다 죽어간다
으스 으스 춤고 골머리 치는데 속없는 저 할멈 성화가 났네.
반달 같은 딸 있거든 온달 같은 사위 삼소
좌상은 소타고 머슴은 지게타고 근간지게 놀다가 가세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 산옥이로구나
땀다 땀다 똥덩이 땀다 과부댁 요강에 똥덩이 땀다

뒷소리 : 에 에에에 에야 얼렷렷 거리고 방애흥애로 구나.

4) 유산굿놀이(허령타령)

앞소리 : 산중에 귀물은 머루나 다래 인간에 귀물은 갈보라고 한다
가면 가고 말면 말제 저 잡놈 따라서 내가 돌아갈까
칠래당 팔래당 홍갑사 댕기 곤때나 안 물어 사생이 왔네
산 너머 등 너머 정든 임 두고 이별이 잦아서 못 살겠네

저 놈의 처자 눈매를 보소 곁눈은 감고서 속눈만 떴네
 가세 가세 구경을 가세 산천 경계로 구경을 가세
 남산봉황이 죽실을 물고 오동숲속을 넘노난다
 뒷소리 : 허령 허령 허러리아 허리랑 헐씨구 허러리가 났네.

제3절 판소리 동편제 흥보가

1. 개요

- 문화재명 : 동편제 흥보가
- 지정번호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1호
- 지정일자 : 2006. 12. 27.
- 전승지역 : 미평동
- 예능보유자 : 김향순(여, 1955 ~)



▲ 김향순 공연

2. 내용

김향순의 흥보가는 동편제 송만갑제에 속한다. 전 보유자였던 박정례(예명 杳山)가 이어온 송만갑-김정문-박녹주 계열의 동편제 흥보가를 계승하였다. 동편제 흥보가는 1996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2004년 명창 박정례(구례출신)가 작고한 이후 김향순이 물려받아 전승하고 있다.

김향순은 영광 출신으로 백남희, 공대일, 박춘성, 김재경 문하에서 춘향가와 수궁가, 심청가를 배웠다. 박정례에게서 흥보가를 익혔고, 임동선 명창에게서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을 전수받았다.

1975년 한국방송공사 민요 백일장 장원을 시작으로 남도명창대회 최우수상, 1987년 한라문화제 특장부 대통령상을 받았고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최고상인 대통령상 3회, 장관상 7회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나승만, 「거문도벚노래의 민속지」, 남도민속학회, 2008.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1969.
문화재관리국,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 1980.
이경엽 외, 「여수영당, 풍어굿, 악공칭」, 여수시, 2007.
지춘상 외,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1998.
최덕원 외, 「전라남도지(19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5.

제 3 장 석 조 물

정 양 균 (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제1절 비석

1. 통제이공수군대첩비



▲ 대첩비각

통제이공수군대첩비(統制李公水軍大捷碑)는 고소동 620번지 고소대의 대첩비각에 있다.

1973년 5월 4일에 보물 제571호로 지정되었다. 총높이 453cm, 비높이 306cm, 폭 124cm, 두께 27cm이다. 비문은 오성대감 백사 이항복(李恒福 : 1553~1618)이 짓고, 비신은 이충무공의 부하로 있다가 전라좌수사와 삼도 수군통제사였던 유형(柳珩, 1566~1615)이 보낸 황해도 의 강음산 화강암

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1615년에 세워졌다.

비신 상단의「統制李公水軍大捷碑」라는 전서(篆書)는 판서를 지낸 김상용(金尙容 : 1561~1637)이 쓰고, 비문은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嘉善大夫 同知敦寧府事)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이 썼다.

비제는 「有明朝鮮國正憲大夫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忠清全羅慶尙三道水軍統制使贈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公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勅事德豐府院君諡忠武李公水軍大捷碑銘并序」이다.

1942년 봄 여수 경찰서장을 지낸 마쓰키(松木)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대첩비각을 헐고 대첩비와 타루비를 반출해 버렸던 것을 여수 경찰서장을 지낸 김수평이 1946년 경복궁 뜰에서 발견하여 여수 읍사무소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이후 이충무공대첩비 복구 기성회를 구성하여 오동도, 종고산, 자산공원 등 여러 곳의 이전 후보지를 찾다가 1948년 5월 24일 충무공과 연유가 있는 고소대로 안치하였다.

2. 타루비

타루비(墮淚碑)는 고소대의 대첩비각에 있다. 총높이 198cm, 비높이 94cm, 폭 58cm, 두께 19cm 이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6년 후, 1603년에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한 정사준(鄭思竣)이 장군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앞면에 타루비란 비명이 크게 세로로 새겨져 있으며, 비명 아래 새겨진 비문의 내용은「營下水卒 爲統制使李公舜臣 立短碣 名曰 墮淚 蓋取襄陽人思羊祐 而望其碑 卽淚必墮者也 萬曆三十一年 秋立」이다.



▲ 대첩비

타루비는 원래 중국 양양 지방의 현산 위에 있는 비석이다. 진나라 때 양호란 사람이 양양 태수가 되어 오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양양 사람들은 덕을 사모하여 그가 늘 거닐던 현산 위에 비를 세우고 사당을 지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비석을 바라보고는 언제나 그리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두예가 그 비석 이름을 타루비라 불렀다는데서 비롯되었다 한다.

타루비는 조선총독부의 비밀지령으로 통제이공수군대첩비와 함께 경복궁 근정전 앞뜰에 묻혔던 것을 광복 후 여수로 복구 안치하였다. 통제이공수군대첩비와 함께 1973년 보물 제571호로 일



▲ 타루비

괄 지정되었으나, 여수 주민들이 타루비를 별도의 보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 1998년 11월 27일 보물 제1288호로 지정되었다.

3. 동령소갈

동령소갈(東嶺小碕)은 고소대의 대첩비각에 있다. 총높이 204cm, 비높이 119cm, 폭 60cm, 두께 14cm이다. 통제이공수군대첩비를 세우게 된 경위와 비석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 비석을 건립하기까지의 어려움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다. 비문은 진안 현감을 지낸 심인조(沈仁祚)가 지었고, 건립경위는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썼다.

직사각형 비좌 위에 옥개석(屋蓋石)을 얹은 비신이 세워져 있는데 옥개석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만든 것이다. 비좌의 정면과 측면에는 꽃무늬가 새겨졌으나 심하게 마멸되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반원형을 띤 옥개석의 좌우에는 나선형 장식이, 중앙에는 여의주 무늬가 앞·뒷면으로 있으며, 꼭대기에는 연꽃 봉오리형 보주(寶珠)가 장식되어 있다.

비신(碑身) 뒷면에 '송정기원후주갑무인정월일립(崇禎紀元後周甲戌寅正月日立)'이라는 명문(銘文)이 있어 1698년(숙종 24)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호좌수영수성창설비(湖左水營守城創設事跡碑)는 연등동 376번지에 있으며, 1998년 8월 13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2호로 지정되었다.

총높이 235cm, 비높이 167.5cm, 폭 63.5cm, 두께 16.5cm이다. 1998년 8월 13일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2호로 지정되었다. 1779년(정조 3) 지



▲ 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방의 군사들과 의승(義僧)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김영수(金永綬)가 좌수영성을 대대적으로 개축, 보강하고 군사를 정비하였다. 또한 군기, 잡물 등을 마련하고 월과미(月課米) 및 정조(正租) 등을 마련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비좌와 비신, 옥개석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비좌는 장방형으로 4면에 모두 안상이 새겨져 있고, 비신도 장방형인데 아랫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또 비신 하단과 중간 부분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모되어 인식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석을 보호하고 있는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으로 방형의 초석을 놓고 장방형의 석주를 세운 다음, 그 위에 8모 기둥을 올렸다. 기둥 위에는 주두가 있고, 기둥은 창방으로 결구되었으며, 도리와 서까래 사이에 갈모방산이 있어 팔작지붕의 구조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처마는 홑처마에 내부는 4모집 형태이며, 연등천장을 하였다.

비신의 뒷면의「乾隆四十四年己亥十月日土兵立義僧自願助役」이라는 명문

을 통해 1779년(정조 3)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비각의 상량문은「崇禎紀元後三己未四月初八日巳時上梁」으로 좌수영창설비가 건립 되고 10년이 지난 1789년에 비각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비의 네 귀퉁이와 밑둥 부분에 풍화로 인한 마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근래에 마모가 심한 부분에 시멘트를 덧발라 보전(補眞)함으로써 비의 원형을 크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비문의 상당 부분도 덮여져 내용을 판독할 수 없게 되었다.

5. 절도사안숙사적비

절도사안숙사적비(節度使安榘事跡碑)는 연등동 436-21번지에 있으며 1998년 8월 13일에 문화재 자료 제 203 호로 지정되었다. 총높이 172cm, 비높이 143cm, 폭 65.5cm, 두께 18cm이며, 1823년(순조 23)에 세워진 것이다.

1809년(순조 9)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안숙(安榘)은 문무를 권장하고 좌수영을 수리하였다. 주민들의 구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군졸을 친 가족처럼 여겼으며, 서민의 혼례, 장례 등 길흉사를 돕는 등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비문은 전라좌수사 안숙이 좌수영의 거북선이 낚아 훼손되자 충무공 이순신 때의 도본(圖本)을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였으며, 배 모양을 그려 『병학지남』¹⁾ 오십여 권을 인쇄하고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아 주는 등 많은 공을 세웠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랐고, 안숙이 직을 떠나자 사적비를 세워 그의 치적을 기렸다는 내용이다.

1994년에는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굴도리 맞배지붕 비각을 신축하였다.



▲ 절도사안숙사적비

1) 『병학지남(兵學指南)』은 명(明)나라 장군 허계광(許繼光)의 『기호신서(紀效新書)』(18편) 중에서 군대의 조련에 필요한 것만을 간추린 것으로, 1787년(정조 11)으로 판명으로 편찬되었다.

6. 하마비

하마비(下馬碑)는 덕충동 충민사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총높이 120.5cm, 비높이 116cm, 폭 40.5cm, 두께 16cm이다. 본래 동산동 벽수에서 충민사 쪽으로 100m 지점에 있었으나 도로 개설로 인하여 1980년경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하마비는 충현을 배향하는 곳에 말을 타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찰 등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신성한 성역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우는 상징물이다.

충민사 하마비는 충민사 경내가 성스러운 곳임을 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603년(선조 36)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마비

7. 이장군함천군휘량방왜축제비

이장군함천군휘량방왜축제비(李將軍咸川君諱良防倭築堤碑)는 군자동 327-4번지 진남관비석군(群)에 있으며, 총높이 206cm, 비높이 158cm, 폭 79cm, 두께 18cm이다.

이량의 5대손 이배원(李培元 : 1575~1653)이 글을 짓고, 6대손 함릉부원군 이해(李濼)가 글씨를 써서 1643년(인조 21)에 세운 것이다. 그 후 비가 훼손되자 전라좌수사로 부임 해 온 8대손 이삼(李森 : 1677~1735)이 장방형 지대석으로 구획을 하고 다듬돌 기단 위에 새로 비를 세운 다음, 그 위에 팔작 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올렸다. 비문은 8대손 이삼(李森 : 1677~1735)이 짓고 글씨는 9대손 이경설이 썼다.

8. 장군성비

장군성비(將軍城碑)는 돌산도에서 마주보이는 장군도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총높이 298cm, 비높이 200cm, 폭 82cm, 두께 27cm이다. '장군성비'와 '이량방왜축제비'가 세워진 것은 연산군 때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량이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의 해저에 제방을 쌓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자연석 비좌 위에 장방형의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을 얹었다. 비신은 하단부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비신의 정면에 '장군성(將軍城)'이란 행서체로 된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 장군성비

9. 삼황묘비

삼황묘비(三皇廟碑)는 덕충동 1909번지 삼황묘 앞에 있다. 총높이 224cm, 비높이 189cm, 폭 55.5cm, 두께 28cm이다. 비석 앞면에 '삼황묘 창건사적비(三皇廟創建事蹟碑)'라고 새겨져 있으며, 삼황묘비 옆에는 삼황묘중수비, 삼황묘이전사적비 등이 나란히 놓여 있다.

여수 유림대표 정풍섭, 정영민, 최석주, 최봉삼 4인이 중심이 되어 유림 50여명을 모아 '여수 유림 조선통곡단'을 조직한 후 순종황제의 장례식(1926. 6. 10)에 참석하기 위해 열차 편으로 상경하려 했다. 그러나 일제 관헌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야간 선박편으로 부산을 거쳐 순종 황제 장례식에 참가하여 전국 유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 있다.



▲ 삼황묘비

귀향 후 정영민, 최석주, 최봉삼 등이 지역의 유림들을 설득하여 태조 고황제, 고종 태황제, 순종 효황제의 유덕을 숭모하고 민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하

여 문수동 고락산 기슭에 삼황묘를 창건하였다. 삼황묘를 증축하면서 1927년에 새긴 비가 삼황묘창건사적비이다.

일제에 의해 1939년에 삼황묘가 강제로 철묘되었으나 1947년 강진영, 최영모, 정기호가 중심이 되어 삼황묘를 복설하고, 삼황묘 보존회가 발족되어 매년 3월 12일에 제행이 계승되고 있다. 2006년 삼황묘가 있던 문수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충민사 입구인 덕충동 1909번지로 삼황묘와 비석 등이 옮겨졌다.

10. 대정서변입비

대정서변입비(大井西邊立碑)는 군자동 327-4번지 진남관비석군(群)에 있으며, 총높이 103cm, 비높이 98cm, 폭 44.5cm, 두께 8.5cm이다.

큰 우물을 서쪽 강변에 판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다. 후면에「康熙五十二年癸巳三月處西興江邊木路大井」이라 기록되어 있어 1713년(숙종 39)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 대정서변입비

11. 충민사유허비

충민사유허비(忠愍祠遺墟碑)는 충무공의 10세손이 세운 것이다. 높이 124cm, 폭 57.5cm, 두께 11.5cm의 크기이다. 1868년(고종 5) 정부의 서원 철폐 정책으로 충민사가 철폐되면서 파비된 비를 여수향교에서 66년 간 단비제(斷碑祭)를 지내다가 일제 강점기 일본인 조사를 피하여 충민사 앞뜰에서 매장하였다. 1975년 충민사 정화사업 시 화단에서 발견되어 충민사 유물전시관에 보존 전시하고 있다.

앞면 위에는 '毅愍李公諱億基 忠武李公諱舜臣 贈左贊成安公弘國, 앞면 아래에는 忠愍祠 遺墟碑', 뒷면은 '丙戌九月日 忠武公十世孫公建'이라 새겨져 있다.

12. 선조임진전라좌수영이충무공막하진충제공추모비

선조임진전라좌수영이충무공막하진충제공추모비(宣祖壬辰全羅左水營李忠武公墓下盡忠諸公追慕碑)는 덕충동 마래산 아래 충민사 경내에 있다. 충숙공 김대인(金大仁)의 13대손 김용채(金容彩)가 1972년에 세웠다. 녹도만호 정운(鄭運), 홍양현감 배흥립(裒興立), 삼남독발사 정경달(丁景達), 통제사 이시언(李時言)의 이순신 막하에서 전공을 세운 105인을 추모하는 비다.

13. 여수충민사정화사적비

여수충민사정화사적비는 충민사 경내에 있다. 이선근이 짓고 정기로가 한글로 써서 1979년 건립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노량대첩에 대한 전공을 칭송하고, 충민사에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전라우수사 이억기, 보성군수 안홍국 세 분의 위패를 배향하여 정화한 내력을 기록 하였다.

14. 흥국사중수사적비



▲ 흥국사중수사적비

흥국사중수사적비(興國寺重修事蹟碑)는 중흥동 17번지 흥국사 사천왕문 근처에 있다. 1703년(숙종 29)에 세운 비로 높이 2.5m, 폭 1.15m, 두께 0.3m이다.

성능 대선사(性能 大禪師)가 “영취산 아래에 절을 세우고 그 이름을 흥국사라 하라. 흥국사를 처음 세운 보조국사의 공적을 기리고자 이 절이 잘되면 나라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이 절도 잘 될 것이다.”라는 절을 짓게 된 배경과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범수대사와 계특대사, 통일스님이 흥국사를 중건하고 발전시킨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최창대

(崔昌大 1669~1720)가 비문을 짓고, 명필 이진휴가 글씨를 썼다.

귀부(龜趺: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대)와 이수(鰐首: 용을 새긴 지붕돌)를 갖추고 있다. 귀부가 유난히 커서 균형이 맞지 않아 기이한 느낌이 들며, 거북 등껍질의 6각형 무늬는 뚜렷하지 않고 약간 불규칙한 형태이다. 이수의 하단에는 간단한 연화 문양 띠를 돌렸으며, 중앙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해학적 느낌의 쌍룡이 조각되어 있다.

15. 이충무공유적기념비



▲ 이충무공유적기념비

돌산을 평사리 234번지에 1958년 주민들이 충무공유적기념비를 세웠다. 한글로 된 비문은 노산 이은상이 썼으며, 충무공의 전승사실을 기록했다.

대미산과 소미산 사이에 있는 무슬목은 동쪽의 광양만과 서쪽의 가막만 사이에 있는 좁은 지형이다.

멀리서 볼 때는 광양만과 가막만의 바다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활용하여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16. 이순신장군동상과 찬가의 비

자산공원에는 총 높이 14m, 폭 182cm, 두께 108cm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다. 정영배(鄭永埰) 여수시장 재임 당시 여수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모금운동과 제일여수친목회의 찬조로 1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을 하였다. 동상의 받침들의 중앙에 전서(篆書)로 '聖雄李舜臣像'(성웅이순신상)이라 새겨져 있다.

'충무공 찬가'와 '거북선 찬가'를 돌에 비석 형태로 새겨 동상의 좌·우 뒤편

에 위치시키고 있다. '충무공 찬가'는 노산 이은상이 짓고 글씨는 소전 손재형이 썼다.

「충무공 찬가」

충무공 오! 충무공 영원히 꺼지지 않은 민족의 태양이여
 지금 우리는 앞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거북선 거느리고 호령하는 그의 위풍 일생을 정의에 살던 그이시다.
 내 동포 살리려고 피를 뿌리신 그이시다.
 그 날 땅과 하늘을 울리시던 그의 맹서 저 산 저 바다에 그대로 서려있다.
 외치는 북소리를 따라가자. 살길은 오직 하나 저기 우리를 이끄신다.
 충무공 오! 충무공 영원히 꺼지지 않은 민족의 태양이여.



▲ 상용 이순신 동상

1967년 4월 28일

17. 그 외의 비석

1) 선정비

| 비 석 명 | 위 치 | 내 용 | 연 도 |
|------------------------------|--------|-----------------|------|
| 수사변공국간선정비 (水使卞公國幹善政碑) | 진남관 입구 | 애민, 선정 | 1588 |
| 수사이공도빈무휼선정비 (水使李公道彬撫恤善政碑) | · | 빈민구제, 진남관 개축 | 1683 |
| 수사이공봉상선정비 (水使李公鳳祥善政碑) | · | 애민, 구휼 | 1711 |
| 수사최공무휼군졸청덕비 (水使崔公撫恤軍卒淸德碑) | · | 향교 동서재, 서서재 건립 | 1722 |

| | | | |
|--------------------------------|--------|-----------------------|------|
| 수사유공광로청덕선정비 (水使柳公光魯清德善政碑) | 진남관 입구 | 애민, 선정 | 1854 |
| 절도사조공문헌청덕선정비 (節度使趙公文顯清德善政碑) | . | 애국, 애민 | 1872 |
| 전군수이복양기공비 (前郡守李福亮紀功碑) | 여천동 | 흥년에 군민구제 | 1971 |
| 고이종옥군수공적비 (故李鐘玉郡守功績碑) | 돌산공원 | 굴양식 구획정리 | 1984 |
| | 성두 | 성두마을 도로개설 | 1989 |
| 김우근군수감사의 비 | 안산동 | 교육기획 양양 | 1987 |
| 박공진충선정비 (朴公盡忠善政碑) | 화양면 용주 | 선정 | 1991 |
| 행감목관선정비 (行監牧官善政碑) | 화양면 화동 | 鄭鉉, 宋維楨, 金時佐 申日近, 尹東啓 | 무술 |
| 서병수선정비 (徐丙壽善政碑) | 돌산읍 군내 | 애민, 선정 | |

2) 불망비

| 비 석 명 | 위 치 | 내 용 | 연도 |
|------------------------------------|--------|-----------------|------|
| 함은군이공삼거사불망비 (感恩君李公森去思不忘碑) | 진남관입구 | 왜적방어 위한 수중석성 축조 | 1867 |
| 수군절도사신공택희영세불망비 (水軍節度使申公宅熙永世不忘碑) | 소라면덕양 | 절도사신택희의 치적 | 1711 |
| 행부사이후종영세불망비 (行府使李侯宗永世不忘碑) | . | 부사 이후종의 치적 | |
| 장익복불망비 (張益福不忘碑) | 돌산 군내 | 첨사 장익복 불망비 | 1786 |
| 절도사이공희갑영세불망비 (節度使李公熙甲永世不忘碑) | 진남관 입구 | 선정 | 1886 |
| 행군수조공동훈영세불망비 (行郡守趙公東勳永世不忘碑) | . | 선정, 애민(鐵製碑) | 1898 |
| 법부대신신공기선영세불망비 (法部大臣申公箕善永世不忘碑) | . | 돌산군 설군에 기여 | |

| | | | |
|----------------------------------|--------|------------|------|
| 학부대신이공도재영세불망비 (學部大臣李公道宰永世不忘碑) | 진남관 입구 | 돌산군 설군에 기여 | |
| 학생김공지옥홀불망비 (學生金公社玉恤不忘碑) | 거문도 | 구출 | 1938 |
| 마준영영세불망비 (馬駿榮永世不忘碑) | 돌산 군내 | 군수겸 분사무장 | 1903 |
| 박재규선생님선덕불망비 | 남면 여남고 | 여남고 건립에 기여 | 1972 |
| 원세학영세불망비 (元世學永世不忘碑) | 거문도 유림 | 수문장 삼산면장 | 1973 |
| 박동숙영세불망비 (朴東夙永世不忘碑) | 거문도 유림 | 집강 애민 | 1973 |
| 김우섭시혜기념비 (金禹燮施惠紀念碑) | 돌산 군내 | 통정대부 시혜 | 을유 |
| 고홍기 신재협시혜비 (高洪奇 申在俠施惠碑) | 화정면 적금 | 의원의 시혜 | 병오 |
| 박춘수불망비 (朴春秀不忘碑) | 돌산 군내 | 첨사 불망 | |
| 참봉노상천시혜비 (參奉盧尙千施惠碑) | 돌산 평사 | 참봉 시혜 | |
| 원응상석진형영세불망비 (元應常石鎭衡永世不忘碑) | 돌산 군내 | 도지사 | 1991 |

3) 공적비

| 비 석 명 | 위 치 | 내 용 | 연도 |
|------------------------------------|------------|------------------|------|
| 이충무공모부인초계변씨유적비 (李忠武公母夫人草溪卞氏遺蹟碑) | 웅천동 송현 | 정대수 장군 덕에 모심 | |
| 약무호남시무국가비 (若無湖南是無國家碑) | 오동도 | 이순신장군의 서한문 내용 | 1998 |
| 구국충신시대원장군유적비 (救國忠臣李大源將軍遺蹟碑) | 삼산면 손죽도 | 왜구 방어한 공적 | 1999 |
| 돌산향교창설사적비 (突山鄕校創設事跡碑) | 돌산도 군내리 | 돌산향교창설내력 | 1991 |

| | | | |
|------------------------------|------------|-------------------|------|
| 거문도(포트해밀턴) | 상산 거문리 | 거문도의 영국군 기지 내력 | 1983 |
| 금오도개척백주년기념비 (金鰲島開拓百週年記念碑) | 남면 우학리 | 남면 두포리와 우학리 2곳 | 1985 |
| 오동도와 전설비 | 오동도 | 오동도 전설 | 1998 |
| 어업인 위령탑 | 돌산 공원 | 신병은 글 박정명 글씨 | |
| 박정희대통령기념비 (朴正熙大統領記念碑) | 자산 공원 | 이충무공상 건립 성금격려 | 1968 |
| 남면전화점화기기념비 (南面電話點火記念碑) | 남면 우학리 | | 1978 |
| 손양원목사순교기념비 | 도성 교회 | 손양원목사의 순교 | 1965 |
| 포싸일 의사기념비 | 애양원 | 애양병원 봉사 | 1926 |
| 보이열원장기념비 | . | . | 1965 |
| 도성래원장기념비 | . | . | 1982 |
| 대한독립의군부병마도총돈헌 임병찬의사순지비 | 거문도 유림 | 의병장으로 거문도에 유배 | 1997 |
| 윤형숙묘비 | 화양면 창무리 | 3·1절 만세 운동 참가 | 1951 |

4) 기념비

| 비 석 명 | 위 치 | 내 용 | 연 도 |
|------------------------------|-----------|---------|------|
| 참봉이공규보자선기념비 (參奉李公圭 慈善記念碑) | 삼일동 적량 | 중생구제 | 1928 |
| 전주사이공기신송덕비 (前主事李公起申頌德碑) | 삼산면 손죽 | 지역민의 구제 | 1931 |
| 월정처사강공지비갈명 (月汀處士姜公之碑碣銘) | 화양면 이목 | | 1936 |

| | | | |
|--|------------|---------------|------|
| 가선대부전화정면장임공대진기념비 (嘉善大夫前華井面長林公秦振記念碑) | 화정면 제도 | 화정면장 | 1942 |
| 군수증자한대부병조판서충절정공신도비 (郡守贈資憲大夫兵曹判書忠節丁公神道碑) | 학동 산738 | 왜란 공적 | 1960 |
| 현감증자한대부병조판서충절정공신도비 (縣監贈資憲大夫兵曹判書忠節丁公神道碑) | 웅천동 서촌 | 노량대첩 공적 | 1960 |
| 김본정기적비 (金本正紀績碑) | 쌍봉 교내 | 지역 및 쌍봉초교발전 | 1968 |
| 김鍾호농촌지도소장공적비 (金鍾昊農村指導所長功績碑)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소장 | 1972 |
| 월암거사공대봉공적비 (月庵居士孔大鳳功績碑) | 상암동 여일 | 중종과 사림의 칭송 | 1973 |
| 최재휴공적비 (崔在休功績碑) | 화정 여자 | | 1974 |
| 조응수공적비 | 오천 도로변 | 망향의 동산 조성 | 1977 |
| 송파유윤석기공비 (松坡柳允錫紀功碑) | 울촌면 가장 | 순천시장 역임 | 1977 |
| 대한시우회 여수 여천지회장 송 임제주양공회갑공적비 | 선원동 무선 | 여수항교 발전에 기여 | 1979 |
| 호석고령신공연공덕비 (湖石高靈申公連功德碑) | 화정면 적금 | 애국애항 인재양성에 기여 | 1982 |
| 정계만공적비 (丁桂萬功績碑) | 화정면 여자 | | 1982 |
| 박옥규제독송덕비 (朴沃圭提督頌德碑) | 거문도 덕촌 | 제2대해군참모총장 | 1983 |
| 김상순기념비 (金相淳紀念碑) | 거문 초교 | 교육발전 | |
| 행산창녕성공동헌송덕비 (杏山昌寧成公東炫頌德碑) | 울촌면 청산 | 성재당한약방 인술시혜 | 1984 |
| 성균전학창원정공기로공적비 (成均典學昌原丁公基魯功績碑) | 웅천동 서촌 | 충절의 후예 | 1984 |
| 보명조남선선생송덕비 (普明趙南鮮先生頌德碑) | 여남고 | 여남고 건립공로 | 1985 |

| | | | |
|--------------------------------|-----------|---------------|------|
| 남헌김공교장준정송덕비 (南軒金公校長俊正頌德碑) | 돌산 죽포리 | 후진양성과 교육보급 | 1987 |
| 밀양박공명운공적비 (密陽朴公名雲功績碑) | 화정면 백야 | 백야노인정 건립후원 | 1988 |
| 고학생김해김공성흔공적비 (故學生金海金公性烜功績碑) | 돌산읍 둔전 | 지역발전에 기여 | 1990 |
| 朴容安善德碑 (박용안선덕비) | 화양 안정 | 선행 | 1992 |
| 전교관조공홍섭기념비 (前敎官趙公洪燮記念碑) | 돌산읍 둔전 | 어려운 집 세금 대납 | |
| 전참봉김공계홍시혜비 (前參奉金公季洪施惠碑) | . | 기근 구휼 | |
| 면장김중문공덕비 (面長金中文公德碑) | 남면 모하 | 남면 면장 | 1996 |
| 관파이창보선생송덕비 (觀波李昌保先生頌德碑) | 화양면 화동 |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한 공 | 2002 |

5) 유허비

| 비 석 명 | 위 치 | 내 용 | 연 도 |
|---------------------------------|-----------|----------|------|
| 가선대부행동녕장공기적비 (嘉善大夫行同敦寧張公紀績碑) | 화양면 옥적 | 인동장씨 유허비 | 1935 |
| 수헌선생양공선유유허비 (睡軒先生梁公善有遺墟碑) | 삼일동 적량 | 남원양씨 유허비 | 1949 |
| 방산신안주선생현석유허비 (芳山新安朱先生玄錫遺墟碑) | 여천동 내동 | 신안주씨 유허비 | 1949 |
| 운초정공기적비 (雲樵丁公紀績碑) | 울촌면 청산 | 창원정씨 유허비 | 1963 |
| 이성래기적비 (李星來紀績碑) | 소라면 복산 | | 1965 |
| 인동장씨세장산기실비 (仁同張氏世葬山紀實碑) | 호명동 내동 | 인동장씨 유허비 | 1970 |

| | | | |
|---|-------------|----------|------|
| 사충사유허비 (四忠祠遺墟碑) | 여천동 가곡 | 창원정씨 유허비 | 1971 |
| 가선대부동지돈녕부사행판관이공신도비명영서 (德善大夫同知敦寧府事判官李公純道碑銘并序) | 둔덕동 자내리 | 전주이씨 유허비 | 1971 |
| 한림학사해주오공유허비 (翰林學士海州吳公遺墟碑) | 울촌면 신산 | 해주오씨 유허비 | 1981 |
| 통헌대부행사헌부감찰남양홍공성천유적비 (通憲大夫行司憲府監察南陽洪公性天遺墟碑) | 호명동 청룡산 | | 1984 |
| 추연고령신공두휴기행비 (秋淵高靈申公斗休紀行碑) | 해산동 마을 | 고령신씨 유허비 | 1984 |
| 선략장군신안주공기적비 (宣略將軍新安朱公紀蹟碑) | 여천동 내동 | 신안주씨 유허비 | 1988 |
| 세명당건립기념비 (世明堂建立記念碑) | 여천동 내동 | 신안주씨 유허비 | 1988 |
| 화산사세명당사적비 (華山祠世明堂事跡碑) | 여천동 내동 | 신안주씨 유허비 | 2000 |
| 통정대부송석홍공택리비 (通政大夫松石洪公宅里碑) | 호명동 청룡 | 남양홍씨 유허비 | 1988 |
| 죽암정공택리비 (竹菴丁公宅里碑) | 선원동 반월 | 창원정씨 유허비 | 1989 |
| 송암제주양공회갑기적비 (松菴濟州梁公會甲紀蹟碑) | 선원동 무선 | 제주양씨 유허비 | 1988 |
| 위한주기적비 (魏翰周紀蹟碑) | 울촌 산수 | 장흥위씨 유허비 | 1989 |
| 참봉경주이공실적비 (參奉慶州李公實蹟碑) | 삼일동 적량 | 경주이씨 유허비 | 미상 |
| 증가선락현주공유적비 (贈嘉善樂軒朱公遺蹟碑) | 여천동 내동 | 신안주씨 유허비 | 1989 |
| 증가선대부전주이공기적비 (贈嘉善大夫全州李公紀蹟碑) | 호명동 청룡산 | 전주이씨 유허비 | 1990 |
| 사헌창원정공응훈기적비 (思軒昌原丁公容勳紀蹟碑) | 학동 산 738 | 창원정씨 유허비 | 1991 |
| 취송창원정공원수기적비 (翠松昌原丁公源洙紀蹟碑) | 학동 산 738 | 창원정씨 유허비 | 1991 |

| | | | |
|--------------------------------|------------|----------|------|
| 성석창원정공상동기적비 (醒石昌原丁公相東紀蹟碑) | 학동 산738 | 창원정씨 유허비 | 1997 |
| 증통정대부진양강공유허비 (贈通政大夫晉陽姜公遺墟碑) | 화양면 이목 | 진양강씨 유허비 | 1992 |
| 운암고령신공지록기적비 (雲巖高靈申公智祿紀蹟碑) | 화정면 적금 | 고령신씨 유허비 | 미상 |
| 송월사건립헌성기념비 (松月祠建立獻誠記念碑) | 호명동 청룡산 | 남양홍씨 유허비 | 2000 |

제2절 벽수

1. 벽수의 기원

우리민족은 원시시대에 이미 공동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안전과 경제생활의 충족을 위한 산천제례와 풍년기원, 벽사진경(辟邪進慶)이 있었다. 그 대상은 다신적 만상이었으나 장엄한 산천이 상급의 신이고 신역의 범위와 거리를 좁혀서 마을 근처의 나무와 돌 등이 신의 처소로 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생활로 정착이 가능해 지면서 자연숭배와 조상숭배의 사상이 출현하고 사적 소유가 이뤄져 수역 지역의 침탈 문제가 부족사이에 발생하여 정치적 지도뿐만 아니라 무속이나 제사장, 복인(卜人)이 등장하여 부족사에 나무나 돌로 경계표, 병마, 역신,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큰 나무 및 큰 돌을 세워놓기 시작하면서 유래하였다.

2. 여수지역 벽수의 특성

우리나라 장승은 투박하며 미완성적 느낌을 주는 파격의 미의식이 있는 것이 조형적 특성이다. 연등동 벽수(2)는 도깨비나 사천왕 같은 수호신상이고,

2) 여수지역에서는 장승을 '벽수'라고 예로부터 불리었다.

동산동과 개도의 여석 벽수는 민중의 자화상적 이미지이다.

또한 여수지역의 벽수에 표현된 관모를 통해 조형적 유형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진남관의 석인상과 연등동 벽수는 사모형 즉 관모를 쓴 석인형이다. 선소의 당산 아래와 동산동 벽수는 선립형으로 수군의 투구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수군형이다. 개도 여석 벽수와 화양면 화동리 벽수는 민대머리로 깎은 듯 한 무관의 민머리형이다. 선소의 부뫼가의 벽수는 입석 모양의 선돌이다.

3. 남정중 화정려의 명문

여수지역 벽수에는 특이하게 ‘남정중(南正重)’ ‘화정려(火正黎)’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사기의 ‘역서조(歷書條)’ 중국 고대의 고시씨(高矢氏)의 방계인 소호(小嶠)의 권력이 쇠퇴하여 덕이 어지럽고 민심이 혼란하여 재앙과 화난이 미치더니 그러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어서 전옥(顛頊)이 이를 이어받아 중(重)을 남정(南正)으로 명하여 하늘을 맡아 신을 다스리게 하고, 려(黎)를 화정(火正)으로 명하여 땅을 맡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전옥의 아들 고신씨 역시 그 제도를 이어받았으며 남정중과 화정려는 전옥과 그 아들 고신씨도 섬겼다.

중국의 고전 『회남자(淮南子)』에 의하면 축융(祝融)이 전옥의 손자이고 일명 ‘려(黎)’라고 하여 고시씨를 위하여 화정을 했고, 축융은 호이며, 죽어서는 화신(火神)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전옥의 아들이 고신이며 고신의 아들이 축융(祝融)으로 본명은 려(黎)요 관명이 화정이다. 동시에 중(重)은 전옥의 혈통은 아니나 려(黎)와 더불어 전옥과 소신을 섬기는 남정이라는 관직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개창기의 계보도 복희-신농-황제-소호-전옥-고신-탕-요-순의 순서이다.

이와 같이 남정과 화정은 중국의 상고시대의 관명이고 중(重)과 려(黎)는 사람 이름이다. 화정은 불과 여름과 남쪽 바다를 맡은 신이다. 5관중의 하나였으며 물과 별의 제를 장악하기도 하였고 일명 축융이라고도 했다.

이 남정중과 화정려의 명문은 그 마을이나 마을의 잡귀와 유행병을 막고, 하늘과 땅을 평정하며, 백성과 제신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신앙

의 기능을 한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화마와 수마를 막아주기 바라는 음악 비보적인 기능의 명문인 것이다.

4. 여수 석인



▲ 여수석인

군자동 진남관 경내에 있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석인상(石人像)이다. 총 높이는 2m, 머리높이는 60cm, 둘레는 140cm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있다.

두건 같은 관모를 쓰고 단정한 관복에 두 손을 포개서 잡고 있는 문반의 모습으로 문인석의 전형적인 석인형 장승이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가 양반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석장승의 사모는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소산이면서 양반을 모시는 자세와 내면적으로는 사모를 쓰고 싶은 선망과 약간의 익살스러움과 풍자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7기의 석인상을 제작하여 의인전술로 사용했다고 하나 현재는 1기만 남아 진남관 뜰 앞에서 있다.

5. 연등동 벽수

연등동 벽수는 전라좌수영성의 서문으로 통하던 길목인 연등동 35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여수지역의 벽수 중 가장 예술적인 가치가 높아 중요 민속자료 제 224호로 지정되었다. 벽수가 서 있는 시민회관 건너편의 2차선 도로는 과거에는 여수시내로 진입하는 중심 도로였다.

동편 벽수는 남정중(南正重)이라는 명문이 있고, 서편 벽수는 화정려(火正黎)라는 명문이 있다. 남정중은 높이 174cm, 두상높이 85cm, 둘레 145cm이다. 복두형의 관모에 치켜진 눈썹, 달걀형의 눈, 길고 큰 자루병 코와 드문드문 치아가 보이는 벌린 입, 그리고 양 갈래의 작고 뾰족한 턱수염을 그린 것이 특징이다.



▲ 연등동 석수(남정중)



▲ 연등동 석수(화정려)

화정려는 높이 166cm, 두상높이 86cm, 둘레 130cm이다. 사방관형의 관모에 올라간 눈썹, 길고 두툼한 귀, 길고 코볼이 넓은 매부리코, 왕방울 눈, 성긴 치아가 보이는 벌린 입을 하고 있다.

연등동 석수는 제작 연대로 보이는 명문이 있다. 화정려의 뒷면에 「戊申四月二十八日 午時立化主 主事 金□昇」이라 새겨져 있다. 「戊申」이라는 간지를 근거로 기존의 연구자들이 1788년(정조 12)에 제작된 것으로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연등동 석수에 근접해 있는 '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湖左水營守城創設事蹟碑)'가 1779년(정조 3)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연등동 석수도 정조 무렵에 조성한 것으로 비정한 것이다.

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는 “乾隆四十四年己亥十月日土兵立義僧自願助役”이라는 명문을 통해 1779년(정조 3)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비각(碑閣)은 “崇禎紀元後三己未四月初八日巳時上梁”이라는 기록을 통해 1799년(정조 23)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연대 표기에 중국의 연호가 널리 사용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연등동 석수의 경우 중국의 연호 표기가 없이 “戊申四月二十八日 午時立化主 主事 金□昇”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무신(戊申)년이 1778년(정조 12)이라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명문 중에 나오는 ‘主事 金□昇’은 전라남도 도평의원을 세 차례 연

임하고 주사(主事)의 직책을 담당했던 '김한승' (金漢昇, 1869년생)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등동 벽수가 만들어진 시기는 1788년 보다 120년이 늦은 1908년의 무신(戊申)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등동 벽수는 크기가 우람하며 대담한 조각적 표현을 느낄 수 있다. 몸체는 큰 정으로 쪼아 크게 떼어 내어 거친 화강암의 느낌을 잘 살렸다. 코와 귀 그리고 안면의 표현은 형태를 먼저 조각한 다음 작은 정으로 잘게 비스듬히 쪼아 마무리 하였다. 남해안 지역은 '코가 큰 남자가 아들 낳는 힘이 좋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이런 민중의 믿음을 바탕으로 코가 큰 벽수가 조각되었을 것이다.

6. 동산동 벽수

여수동초등학교 후문에서 200m를 가량 올라가면 돌벽수가 길 양쪽에 마주보고 서있다. 남쪽에 있는 벽수(남정중)는 관모를 쓰고 도포를 입었으며, 오른 손을 밑에 왼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어 매우 단정하게 보인다. 전체 높이 134cm, 두상 높이 38cm, 둘레 101cm이며, 얼굴과 몸체 사이에 수염을 돌을새김으로 형상화했다.

북쪽의 벽수(화정려)는 수군의 투구모양인 병거지를 머리에 쓰고 있다. 높



▲ 동산동 벽수(남정중)



▲ 동산동 벽수(화정려)

이는 105cm이며, 병거지를 쓴 벽수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시름에 잠긴 듯 두 눈을 내려뜨리고 굳게 다문 입을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단정하고 간경하게 처리하였다. 두 손은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정중과 화정려의 명문으로 동산동 벽수가 벽사진경의 성문수호와 음락비보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동산동 벽수는 풍수지리의 음양오행에 따라 양을 의미하는 남쪽에 남자상에 남정중이라 새긴 돌 벽수를 세움으로써 남쪽의 부실한 기운과 재앙과 외침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7. 봉산동 벽수



▲ 봉산동 벽수(남정중)



▲ 봉산동 벽수(화정려)

봉산동과 봉강동의 경계지점의 십자로를 예로부터 '벽수골'이라 불려왔다. 봉산동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 양쪽에 돌벽수 2기가 마주보고 서 있다.

벽수골 주변에는 조선시대에 봉산동 사철소가 위치해 있었다. 봉산동사철소는 전라좌수영 본영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이다.

좌수영 수군들이 사용하는 활살촉 및 군검과 군사무기를 만드는 풀무간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이었다.

따라서 이 경계지역에 수문장처럼 벽수를 세워 경계표지를 삼았거나 마을 주민들의 무사와 행운을 비는 비보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좌

수영성 남쪽의 성문수호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거지형의 관모를 쓰고 있는 벽수가 남정중(南正重)이고, 과거에 급제하여 홍패를 받을 때 쓰는 복두관을 쓴 벽수가 화정려(火正黎)이다.

그러나 과거에 있던 봉산동 벽수는 도로공사로 묻혀 없어지고, 현재의 벽수는 여수청년회의소 주관으로 1984년 5월 7일 재건하였다 한다. 과거의 자료를 찾지 못하여 연등동 벽수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고 전하며, 1998년 12월 17일 새로 재건한 내용을 동판으로 새겨놓았다.

8. 시전동 벽수

여천선소 유적 주변에 벽수 6기, 계선주라 불리는 입석형의 선돌 1기가 있다. 벽수는 마을 입구에 2기, 가장골이라 부르는 망마산 아래 밭 가운데 2기, 굴강 옆에 2기가 있다.



▲ 시전동 벽수

이들 벽수는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과 역병을 막고 마을 지맥을 다스리는 비보장승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 입구의 2기는 모두 관을 쓰고 있으며, 전체 모습은 문관(文官)을 닮은 석인형이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연등동 벽수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을 것이라 한다.

바닷가에 위치한 2m 높이의 계선주³⁾는 풍화가 심하여 분명치 않으나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고 체구가 4각기둥 형이다. 일부 사람들의 견해로는 계선주가 야닌 왜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해안 수호신 격인 벽수로 보기도 한다.

이곳에 여러 기의 벽수를 세운 뜻은 군사적 요충지인 선소를 지켜내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의 벽수들은 주로 수성암으로 조각되어 해풍과 공해로 인하여 마멸이 심하다.

3) 계선주(繫船柱)는 배를 매어 두기 위하여 계선인(繫船人), 부두, 잔교(殘橋) 따위에 세워 놓은 기둥을 말한다.

9. 화정면 개도리 벽수

개도 여석 마을의 벽수는 무관 민머리형으로, 2기가 세워져 있는데, 명문은 각각 남정중(南正重) 화정려(火正黎)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남자상은 민머리형 벽수로 바다 쪽을 바라보며, 여자상은 마을 쪽을 바라보게 세워져 있다.



▲ 개도 벽수(남정중)



▲ 개도 벽수(화정려)

남자상 벽수는 전체 높이 170cm, 두상 길이 89cm, 둘레 143cm이다. 눈은 타원형으로 코는 삼각형으로 높고 크며 입은 활짝 벌려 웃는 모습이다. 입술 사이로 드문드문한 치아 표현과 윗입술의 콧수염이 위로 올라가서 두 끝이 구부러진 표정이 낙천적이다.

여자상 벽수는 전체높이 160cm, 두상길이 67cm, 둘레 55cm 무관의 민머리형 벽수이다. 타원형 눈과 삼각형의 긴 코와 치아가 빠진 할머니 표정이 친근감을 주며, 특히 자연석을 그대로 조각해 마치 등을 구부린 듯 한 할머니의 모습을 느끼게 해 준다.

여석 마을 벽수는 이 섬에서 생산되는 숫돌로 조각되어 단단하고 강하여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

10. 화양면 화동리 벽수



▲ 화동리 벽수



▲ 화동리 벽수

화양고등학교 바로 밑의 마을입구에 시멘트로 제작된 벽수 2기가 있다.

1987년 1월 14일 재건된 특이한 형태의 벽수로서 높이가 약 3m, 두상길이 75cm, 둘레 3m이다. 과거의 벽수는 얼굴의 손상이 심하여 표정을 알아보기 힘들어 마을 젊은이들이 철거하였다.

그 후 마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다. 다시 마을의 원로들이 합심하여 마을수호를 위해 재건하였다. 과거의 벽수의 명문은 좌측이 화정려이고 우측이 남정중이었는데, 현재의 벽수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 새겨져 있다. 마을비보 장승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11. 돌산읍 군내리 서외마을 벽수



▲ 서외마을 벽수

군내리 서외마을은 방답진 설진 이후 선소와 병기창고 등이 있던 곳이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돌벽수가 옛 길목에서 있었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어 1기는 없어지고 1기는 얼굴의 반만 땅에 묻힌 채 노출되어 있다. 없어진 1기 자리에 시멘트로 재건한 1기가 독특한 모습으로 서 있다. 전체 높이 90cm, 둘레 120cm이며 시멘트가 굳기 전에 굽어서 벽수의 이목구비를 표현하였다.

12. 우두리 벽수



▲ 우두리 벽수(남정중)



▲ 우두리 벽수(화정려)

돌산읍 우두택지 지구를 지나 좌측으로 진입하면 상동마을과 하동마을이 나온다. 상동마을 입구에는 수명이 500년을 넘었다고 하는 거대한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다. 이 소나무 앞 길 양편에 벽수 2기가 마주보고 서 있다. 예전의 있던 벽수가 일제강점기에 없어지고, 광복 후에 목장승이 세워졌는데 또 없어진 후 1995년 1월 현재의 벽수가 재건된 것이다.

남성상의 벽수의 몸매는 육중하며, 머리는 무관의 민머리형이고, 몸통은 사각기둥형이다. 안면은 이마가 넓고 길며 코가 크고, 두 눈은 왕방울처럼 튀어나온 타원형이다. 양손은 오른손을 밑으로, 왼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마주 잡은 깍지를 낀 형태로 단정하게 보인다. 몸통에는 여수 지역의 전통 명문인 남정중(南正重)이라고 새겨져 있다.

여성상의 벽수의 머리도 무관 형태이고, 몸통도 사각기둥형이다. 안면은 이마가 넓고, 두 눈은 왕방울처럼 튀어나온 타원형이다. 입술 사이에 치아가 보이고, 윗입술은 곡선으로 표현하여 여성스럽다. 몸통에는 여수 지역의 전통 명문인 화정려(火正麗)라고 새겨져 있다.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연등동벽수와 유사한 모습이다.

13. 소라면 현천 중촌마을 벽수



▲ 현천리 벽수

소라면 현천리 중촌마을에 벽수 2기가 서있다. 화강석을 사용하여 목장승의 형상을 본떠 1983년에 재건하여 만든 것으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한편, 현천리 중촌마을에서 바라보면 고락산 봉우리 2개가 마치 쌍둥이처럼 보인다.

그런 연유인 줄은 모르나 이 마을 75가구 중에서 35가구에서 37쌍의 쌍둥이가 태어나, 1989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참고문헌

- 김두하, 『벽수와 장승』, 집문당, 1995.
- 김두하, 『장승과 벽수』, 대원사, 2004.
- 엄길수, 『여수 여천지역에 분포된 석장승 연구』, 1998.
- 여주시문화원, 『여주시 주요 비석 탁본 기행』, 1997.
- 여주시문화원, 『여수금석문대관』, 2003.
- 여주시문화원, 『여수문화』, 제7집 1993.
- 여주시문화원, 『여수문화』, 제9집 1994.

제 4 장

사우 (祠 宇)

김 은 혜 (여수시사편찬위원회 간사)



제1절 충민사

충민사는 덕충동 182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적 381호로 지정되었다.

영의정 이항복이 왕명을 받아 임진왜란이 끝난 뒤의 민심을 살펴본 후 1601년(선조 34) 통제사 이시언에게 명하여 건립케 하였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주벽으로 하고 의민공(毅愍公) 이억기⁴⁾, 보성군수 안홍국이 좌우로 배향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연려실기술」에도 나타나 있다.



▲ 의민공의 초상화와 위패

4) 의민공 이억기는 천리우도 수군절도사로서 충무공과 함께 큰 전공을 세웠다.

『忠愍祠在順天左水營東門外五里享忠武公李舜臣水使李億祺寶城郡守安弘國配 宣祖辛丑創建春秋降香祝行祀』

충민사는 순천좌수영 동문 밖 5리 되는 곳에 있고 충무공 이순신을 향사하였으며, 수사 이익기와 보성군수 안홍국을 배향하였다. 선조 신축년에 창건, 춘추로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행하였다.



▲ 충민사 전경

사우 건립 후 우부승지 김상용(金尙容)의 계청으로 사액을 받았다. 그 후 1732년(영조 8) 충민공 이봉상(李鳳祥)을 신묘로 배향하고 석천제를 창설하였으며 그해 사우를 중수하였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1868년(고종 5) 충민단 만을 남겨두고 철거되었다. 이후 1971년부터 여수, 여천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정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975년부터 공사에 착공,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기단은 3단의 장대석으로 짜고 3군데의 계단을 통해 오르게 되어 있다.

제2절 오충사

오충사는 웅천동 62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847년(헌종 13) 정재선(丁載審)이 그의 선조인 정철(丁哲)을 기리기 위해 여천 쌍봉면 가곡리에 세웠던 가곡사(佳谷祠)가 그 전신



▲ 오충사 전경

5) 이봉상은 충무공의 5대손으로 1709년(숙종 35) 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신창을 베풀었다.

6) 임진왜란 때 이충무공을 따라 충군하였다가 전사하자 나라에서 충절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 충무공 위패

(前身)이다.

이 사당에 충의공(忠毅公) 정춘(丁椿), 충숙공(忠肅公) 정린(丁麟), 충정공(忠貞公) 정대수(丁大守)의 4위를 같이 배향하여 사충사라 불리다가 1864년(고종 2) 대원군의 서원 철폐정책에 의하여 헐렸다.

1923년 8월 창원 정씨 문중과 향민들이 용천동에 새롭게 건립하면서 충무공을 주벽(主壁)으로 정철, 정춘, 정린, 정대수 4인을 좌우에 각 2위씩 총 5위의 위패를 배향하여 오충사로 개칭하였다.

1938년 또 다시 일제에 의해 철거된 것을 1962년 현 위치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충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오충사 앞에 월천재(月川齋)가 있으며 마을 입구에 정대수 묘와 신도비가 있으며, 정철 묘소와 신도비는 학용동에 있다.

제3절 손죽도 이대원 사당

이대원 사당은 삼산면 손죽리 11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당의 주신은 삼산면 손죽도 해상에 침입한 왜구와 싸우다 전사한 이대원 장군⁷⁾이다.

1637년(인조 15)에 세워졌다고 하며 일부 조사된 기록에는 그 이전인 1590년(선조 23) 또는 1597년(선조 30)에 세워졌다고 하였으나 모두 전거가 불명하다. 손죽리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초가로 사당을 짓고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후 퇴락과 수리가 거듭되다가 1983년 여천군



▲ 이대원 장군 초상화

7) 이대원(1566~1587)의 본관은 함평, 자는 호연이다. 1586년에 녹도안호기 도망다.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웠으나 전라좌수사 심암이 전공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요구하자 거절하여 미움을 샀다. 다시 전투가 일어나자 심암이 무리하게 나가 싸울 것을 명하여 결국 전사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양재시 포승읍 신희리 신83-6에 있다.

주도로 현존 사당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대원 사당은 대지 60평, 건평 5평의 목조 와가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충렬사라 계현(揭懸)된 솟을대문 형식의 쌍여단이 출입문이 있으며, 큰 은행나무가 있는 경내를 와개(瓦蓋)담장으로 둘러 정돈이 잘 되어 있다.

제4절 영당

영당은 남산동 30-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영당이 있는 곳을 '당머리'라고도 한다. 1520년쯤에 최영장군을 모셨으며 임진왜란 이후 이순신을 주벽(主壁)으로 이대원(李大源), 정운(鄭運)⁸⁾과 용왕신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영당은 출어 선박들의 무사항해를 위해 고사를 지내는 해신당의 기능을 했다.



▲ 영당 전경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철폐되어 당집만 남아 있다가 1975년 국동어항단지 조성사업에 의해 헐린 뒤 1982년 복원되었다. 매년 거북선대축제 기간에 향토민속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이곳에서 풍어제(豐漁祭)와 풍어굿이 열린다.

1943년 철폐 당시 4위의 영정 가운데 최영과 정운의 영정은 일본경찰이 소각해 버리고, 이순신 영정은 행방불명되어 이대원 영정만이 남아 있었으나 최근에 향토민속문화보존회에서 새로 제작하여 봉헌하였다. 여수 영당지(影堂址)는 2008년 12월 26일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44호로 지정되었다.

제5절 삼항묘

삼항묘는 덕충동 190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순종의 장례식에 50여 명의

8) 정운(1543~1592)의 본관은 하동. 자는 청진, 시호는 충칭이며 정몽정의 아들이다. 1570년 무과에 합격한 뒤 1581년 녹도만호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휘하에서 전공을 세웠으나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하였다. 1796년 병조판서 김 의금부은 권원사로 추증되었으며 고종 도영음의 성종시에 이대원과 함께 배향되었다.

여수 유림들이 조선통곡단을 결성하여 참석하였다. 참석한 여수지역 유림 대표 정영민, 최석주, 최봉삼 등이 중심이 되어 태조 고향제, 고종 태황제, 순종 효황제를 모시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처음에는 삼황이외에 면암 최익현, 의사 안중근을 배향하였다.

외삼문에 새긴 태극무늬가 문제가 되어 이를 그린 강진영이 일제 관헌을 피해 멀리 피신하는 일도 일어났으며, 1939년 일제는 삼황묘를 강제로 철모시키고 정영민, 최석주, 최봉삼 등을 잡아 가두기도 했다.

광복 후 1947년 삼황묘보존회가 발족, 강진영, 최영모, 정기호가 중심이 되어 다시 삼황묘를 복설하였다. 제행은 매년 3월 12일에 행해지며, 80년간 종묘제향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래는 문수동 고락산 아래 위치해 있었으나,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2000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창건당시의 사적을 기록한 삼황묘창건사적비와 삼황묘 중수비, 삼황묘 이전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 삼황묘 전경

제6절 관왕묘



▲ 관왕묘 전경

세운 장수이다. 19세기 후반 관왕(關王)을 모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이 서울에서 관우의 초상화 1점을 가져와 자기 집에서 제사를 모셨는데,

관왕묘(關王廟)는 남면 횡간리 횡간도의 마을 남쪽 언덕의 전담 가운데 위치한다. 관우(關羽)를 신격으로 모시는 사우로서, 관우는 중국의 삼국시대 장비와 함께 유비를 도와 촉한(蜀漢)을

참여하는 사람이 늘자 사당을 세우게 되었다.

대지 20평에 목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평 4평의 관운장 사당, 기와지붕으로 된 6평의 부속건물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에게 갈, 초상화, 서적 등을 빼앗겨 제사가 중단되었으나 1914년 초상화를 다시 제작하여 봄의 경칩(驚蟄), 가을의 상강(霜降) 두 차례 제를 모시고 있다. 국태민안 무운장구를 빌고 잡귀를 쫓으며 무사어로를 기원한다 한다. 이전부터 제사를 주관하는 집안의 후손들이 계(契)를 조직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의 고령화와 재정부족 등으로 관왕제와 계의 명맥도 끊어졌으며 당집도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제7절 그 외의 사우

| 명 칭 | 소재지 | 창건연도 | 배향된 인물 | 유적, 유물 |
|----------------|--------------------|--|----------------------|--|
| 구암별묘 | 울촌면 신평리 구암마을 | 일제강점기 | 차원부 | |
| 굴은당 | 삼산면 동도리 유촌마을 | 1904년 | 김 유 | 3개의 당기 |
| 서산사 (김양록사당) | 삼산면 서도리 | 1900년 | 김양록, 김지옥 김정태, 김상순 | 학생김공자옥출궁불망비(學生 金公祖王植宮不忘碑), 인동부 사김정태출궁불망비(仁洞府使 金鼎大植宮不忘碑) |
| 송산사 | 울촌면 가장리 산 104번지 | 1964년 (1706년 나주에 세워 진 사당을 현 위치로 이설) | 유용공, 유몽 징, 유 영 | 없음 |
| 화산사신당 | 화치동 896-3 번지 | 1918년 | 주 자 | 화산사 상량문, 화산사 실기 |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려실기술』, 1966.

여수시·조선대학교박물관, 『여수시의 문화유적』, 2000.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문화재도록』, 2001.

제5장

관방유적

김 병 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제1절 산성

1. 고락산성

고락산성(鼓樂山城)은 문수동 산 35번지, 미평동 산 115번지, 둔덕동 산 176번지 일대의 고락산(鼓樂山)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35m의 고락산정과 고락산의 동쪽에 있는 해발 200.9m의 낮은 봉우리를 둘러싼 테뫼식 산성이다. 장타원형의 낮은 봉우리의 성이 본성으로, 원형의 고락산정의 부속성보다 규모와 면적이 훨씬 크고, 축성기법도 정교하다.

성터 발굴 결과 축성기법과 백제식 와편(瓦片) 다량 출토로 백제 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기와는 모두 평기와로, 막새와는 한 점도 수습되지 않았다.



▲ 고락산성 서문

고락산성의 면석은 다듬지 않은 면석으로 쌓았으며, 앞면의 두께가 대체로 20~30cm 정도이며, 뿌리는 길고 전체 모습이 4각 추처럼 되어 있어 삼국시대 석성의 일반적인 양상과 동일하다. 합석형 면석으로 성벽을 축조하여 빈틈이 보이는데, 이 틈 사이에 작은 썰기돌을 박아 놓았다.

이러한 축성법은 주로 백제 석성의 특징이다. 성벽의 아래쪽에 사용된 성돌이나 성벽의 위쪽에 사용된 성돌이 크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며, 성벽은 12~22° 정도 기울고 있다.

2. 월암산성

월암산성(月巖山城)은 돌산읍 평사리 237번지, 해발 460.3m의 대미산(大美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테외식 석성이다. 산의 정상부는 동서방향에 가깝게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으며, 성(城) 유적이 있는 곳은 서쪽 봉우



▲ 월암산성

리이다.

축성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명칭은 '달암산성(達岩山城)'과 '월암성지(月岩城址) 혹은 월암산성(月岩山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1847년에 제작된 「좌수영진도」⁹⁾에 이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산을 '월암산(月巖山)'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 산성의 명칭을 월암산성(月巖山城)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월암마을 주민들이 대미산을 테미산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산정부근에 테가 둘러진 것처럼 쌓아진 산정식 산성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라 볼 수 있다. 성 내부의 정상부는 약간의 평탄하나,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총 둘레는 249m이며, 성벽의 너비는 3.2~4.1m이다. 체성 관련시설로는 문지(門地)가 2개소 확인되었으며, 서문지 내측에 건물지 1개소와 성의 동쪽 정상부에 추정 건물지 1개소가 조사되었다.

3. 선원동산성

선원동산성(仙源洞山城)은 선원동 산128-1번지 일원으로, 해발 135.4m의 협산(峽山)¹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축성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42년 조선



▲ 선원동 산성

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86년에 간행된 『문화유적총람』에 '土城 麗川洞 仙源里 石槍城址 南쪽 野山에 위치하며 이곳을 토미산이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구간이 토축(土築)이고 경사가 급한 계곡부분 일부만 석축 구간이므로 산성의 명칭을 '선원동토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명을 따라 '선원동산성'이라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편, 주민들은 옛날부터 돌산의 달

9) 김정호 편 「좌수영진도(左水營鎮圖)」, 「전남의 옛지도」, 전라남도, 69쪽

10)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5000 지도에 표기됨

암산성과 마찬가지로 '테미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토축 구간은 조밀한 판축기법으로 쌓았으며, 석축 구간은 전남 동부지역의 일반적인 축성기법이 사용되었다. 토축 구간의 일부를 절개한 결과 판축기법 위에 성토를 하였으며 그 내측에 석열(石列)로 마감하였다.

기와나 토기 등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므로 백제 말기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축성 기법과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봉계동토성



▲ 봉계동 토성

봉계동토성(鳳溪洞土城)은 봉계동 계원마을 뒤편 해발고도 76.1m의 구릉성 산지에 위치한 테외식 토성이다.

성의 내부는 평탄하며, 총 둘레는 361m, 너비는 5~10m 정도이

다. 성이 위치한 야산을 '당목산'이라 하고, 성의 명칭도 '당목산성'이라고 표기하였다. 일제시기의 기록은 '계산(鷄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주민들도 '당목산성'으로 부르는데, 이곳이 풍수지리상 닭의 머리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명에 따라 '봉계동토성'으로 명명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채성 시설로 문지(門地)가 2개소 조사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 파편과 경질토기 파편이 발견되었다.¹¹⁾ 주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이다.

11) 최인선·조근우, 『여주의 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 여주시, 1998.

5. 척산산성

척산산성(尺山山城)은 오림동 해발 100m의 척산 정상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 유적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의 소로를 따라 철도를 건너 약 10분 정도 산을 오르면



▲ 척산산성

성의 북동 벽에 도착하게 된다. 이 성은 자산산성, 척산산성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문화유적총람』¹²⁾에 “紫山山城 - 紫山山頂에 있는 野山山城, 야전 기습용으로 左水營 9개 웅성 중 하나로 전한다. 높이 1.5m, 둘레 1,000m”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와 『여수·여천 발전사』¹³⁾에는 “오림동 자산의 정상에 있다. 정확한 축조 시기나 기능은 알 수 없으며, 원형산성으로 역시 전라좌수영 본영의 9개 웅성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추정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척산산성(尺山山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3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에는 자산(紫山)과 척산(尺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¹⁴⁾

자산이란 길이를 재는 ‘자(尺)’가 아니라 ‘자’가 있는 산이란 뜻이다. ‘자재’, ‘자’는 성(城)의 우리말이다. 문수동 고락산 아래 주택단지의 길을 재밈길, 죽포의 본산산성 아랫길을 자산길, 둔전에서 죽포로 넘어가는 본산산성 아래 지명이 자곡재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성의 둘레는 약 264m이다. 성벽은 북동쪽과 남서쪽은 곡선을 이루고 있고 북서쪽과 남동쪽은 직선을 이루고 있다. 성벽은 북동벽의 일부가 가장 잘 남아 있는데 내외벽 사이의 너비는 630cm, 외벽의 높이는 120cm이고 내벽의 높이는 약 90cm이다.

12) 전라남도, 『문화유적총람』, 1985.

13)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1993.

1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1983.

성곽의 면석(面石)은 다듬지 않은 것과 다듬은 것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다듬지 않은 면석은 할석형 면석에 속한다. 또 그 형태는 백제시대 산성의 면석에서 주로 나타나는 4각추 형태이다.

성벽 아래쪽 성돌이나 성벽 위쪽에 사용된 성돌은 크기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북동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할석형 면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돌 사이에 틈이 보이는데, 작은 썰기돌을 박아 놓았다.

이러한 축성법은 백제시대 석성의 특징이므로 백제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된 기와들은 모두 암기와인데, 모골의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특히 모골은 백제시대의 기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6. 본산성

본산성(本山城)은 돌산을 죽포리 산 881번지 일원으로 해발 271m의 본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돌산을 죽포리에는 본산성(本山城)을 비롯해서 죽포와 둔전 사이의 수죽산에 있는 수죽산성(또는 小本山城), 두문포와 방죽포 사이에 있는 과녁산성(또



▲ 본산성

는 갈구산성, 갈고지산성) 죽포리 서북방에 있는 산성 등 4개의 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⁵⁾

본산성의 체성은 경사면을 석비레층이나 혹은 암반 위까지 파서 기초를 자연적으로 튼튼하게 한 후에 1~2단의 기단을 두고 곧바로 벽석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성돌로 이용된 할석은 부정형의 자연할석도 있고 판석과 같은 모양도 있으며 약간 손질하여 다듬은 듯한 석재도 있다. 축성법과 다양한 성돌 모양을 사용한 것은 백제산성 특징이라 볼 수 있다.

15)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85쪽, 1942

7. 호랑산성



▲ 호랑산성

호랑산성(虎狼山城)은 둔덕동 산 114-53번지 일원으로 호랑산 정상부에 위치한 테피식 석성이다. 성의 북동쪽이 높으며, 남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암반이 없는 부분은 성벽을 연결하여 축조하였고, 암반이 있는 부분은 암반 사이사이에

성벽을 쌓아 자연 지세를 잘 이용하였으며, 동편은 절벽이다.

성벽의 총 둘레는 약 454m이다. 성벽 가운데 서쪽 성벽의 일부가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외벽의 높이는 약 160cm이고, 외벽이 무너져 뒷채움석이 노출되어 있는데 높이는 180cm이다. 내벽의 높이는 약 140cm이고, 성곽의 너비는 500cm이다.

문지(門地)는 능선의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약 29m 정도 비켜선 곳에 위치하고 현재는 남서쪽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능선의 정상부를 피하는 현상은 고락산성의 문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입지는 삼국시대 성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호랑산성은 테피식의 협축석성, 부분적으로 모인 성벽의 축성방법, 문지의 위치 등으로 볼 때 순천, 광양, 여수 등지에 있는 백제산성들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초축은 백제시대 말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와나 토기 등의 유물 대부분이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 산성이 주로 활용된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된다.

8. 묘도동산성

묘도동산성은 묘도동 해발 130m의 유두산(油頭山) 정상에 위치한 테피식 산성이다. 묘도의 동쪽으로 돌출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묘도산성, 도독성 등

으로도 불린다. 산 정상에서 서쪽 사면까지 내려오는 동고서저의 형태이다.

성(城)의 북서쪽 해안가는 작은 만이 형성되어 작은 포구로 사용되고 있다. 북쪽과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며 해안선과 연결된다. 남쪽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곡부(谷部)는 산의 북서쪽으로 내려가는데, 계곡은 크지 않다. 서쪽으로는 섬의 서쪽에 위치한 봉화산까지 능선으로 연결된다.

고려 말 정지 장군의 관음포 대첩과 조선시대 왜란의 마지막 격전인 노량해전 때 이 산성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의 길이 약 2km의 토성이나 후대에 석축으로 보충한 흔적이 있다.

채성 관련시설로는 문지(門地)가 2개소 확인되었다. 수습된 기와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진성(鎭城)

1. 돌산포만호진성



▲ 돌산포 만호진성

돌산포만호진성은 화양면 용주리에 있던 돌산포만호진의 성이다. 돌산포만호진은 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관하의 오관·오포(五官·五浦)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라좌수영이 설진(設陣)되기

전부터 있던 수군기지였다.

돌산포만호진이 설치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돌산만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 고려 말, 조선 초 무렵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79년(성종10) 전라좌수영이 설진되고 나서 돌산포만호진은 전라좌수영의 관할이 되었으며, 돌산포만호진성은 1485년(성종 16) 축성(築城)을 시작하여 1490년(성종 21) 6월에 석성이 완성되었다.

성이 축성된 지 32년 후인 1522년(중종 17), 남해안 수군진의 일부를 보강 정비할 때 돌산포만호진은 폐진되고, 돌산에 방답진(防踏鎭)이 설진되어 군선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폐진된 돌산포만호진에는 권관(權官)을 두어 순천부의 진군들 가운데 약간 명이 파견되어 지키게 되었다.

임진왜란 후, 우리나라에는 왜구의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남해안의 수군진을 대폭 증설하게 된다. 1611년(광해군 3)에 돌산포진을 고돌산진으로 개칭하여 수군진을 복구하고 권관을 두었는데 그 후 별장으로 바뀌었다. 이때 고돌산진은 장흥부와 회령포진이 함께 전라좌수영의 관하의 6관 7포를 형성하게 되었다.

돌산포만호진성은 주위가 1,313척, 높이가 13척, 성내에 샘(井泉)이 3개소 있었다.¹⁶⁾ 배후에 있는 산을 의지하여 산위에서부터 바닷가의 완만한 경사진 곳을 이용하여 성곽을 둘러, 동·남·북문을 냈다. 북쪽 고외(古外)마을로 통하는 길목에 북문을 내고, 남문과 동문(水口門) 밖이 바로 바다이므로 거기에 굴강을 구축하였다.

지금은 거의 성이 허물어져 옛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굴강 또한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내의 동헌은 용주리 663번지, 665-1번지 일대인데 동헌을 헐어서 구 화양면사무소를 지었다가 지금은 그 목재들이 이웃 용문사 법당의 재목으로 쓰이고 있다 한다. 내아는 용주리 659번지에, 장청은 용주리 665-2번지에, 화약고는 용주리 665-5번지에, 군기고는 용주리 667번지에, 사령청은 용주리 668번지에 각각 설치되었다 한다.¹⁷⁾

1895년(고종 32) 7월 각 수영 및 진영이 폐지됨에 따라 조선 초부터 500년간 가막만 방어의 중심역할을 하던 고돌산진은 혁파(革罷)되고 말았다.

2. 전라좌수영성

전라좌수영이 설진(設陣) 되기 전 여수에는 진례만호진과 돌산만호진이 있었다. 진례만호진(進禮萬戶鎭)은 진례부곡(進禮部曲)에 위치하였는데, 지금의 상암동 신덕포로 추정된다. 진례만호진이 혁파되고 내례만호진(內禮萬戶

16) 『성종실록』, 16년 3월 21일
18

17)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대한건설진흥회, 1992, 131쪽

鎭)이 설치되었다.

내례만호진의 위치를 『호남여수읍지(湖南麗水邑誌)』에는 국동 일대인 국포(菊浦)로 적고 있다. 반면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관방조에 “내례는 순천부 남쪽 며포다.(內禮 在順天府南旆浦)”라고 적고 있다.

1475년(성종 9) 왜구가 내례만호진이 위치하는 내례포에 침입하여 군기와 화약을 약탈해 갔다. 이를 계기로 전라도순찰사 이극배(李克培)의 제청(啓請)이 받아들여져, 성종 10년 정월에 내례만호진을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全羅左道水軍節度使營)으로 승격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전라좌수영은 1479년(성종 10) 설치된 이래로 1895년(고종 32)에 혁파될 때까지 416년 간 남해안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왜란을 때 충무공과 전라좌수영 군대의 활약은 왜란 극복의 계기가 되었다.

전라좌수영성은 석성으로 완성 당시의 규모가 둘레 3,634척, 동서 길이 1,200척, 남북 길이 908척인 동서로 약간 긴 형상이었다. 1774년 절도사 김영수가 성을 보수한 뒤의 기록에는 6곳의 곡성(曲城), 즉 치(雉)가 6개 있었으며, 여기에 포루(鋪樓) 6채를 세우고 화포기(火炮器) 6좌(坐)를 두었다고 하였다.

보수와 수축에 대한 중요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592년 성문(城門) 해자(孩子)를 축조 하였다.
- 1599년 이시언(李時言)이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진해루터(鎭海樓址)에 객사(客舍)인 진남관(鎭南館)을 건립하였다.
- 1664년 절도사 이도빈(李道彬)이 진남관, 망해루(望海樓), 결승당을 재건, 화약고, 수군기, 호고(戶庫), 해현창을 새로 건립하였다.
- 1716년 진남관 화재로 소실되었다.
- 1774년 절도사 김영수(金永綬)가 동문루를 철문(鐵門)으로 건립, 장대를 겸하는 동문좌포루(東門左鋪樓)를 건립하여 물거정(勿去亭)¹⁸⁾으로 바꾸고 서문루, 남문좌포루, 서문좌포루, 서문우포루, 수성군관청, 의승청(義僧廳), 수성고(守城庫)를 창건하는 등 성곽 및 관아의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

18) 고소대이다. 이광수는 소설 『아순산』에서 '고소대는 원래 피리강이라 했는데 한문 풀이하는 놈들이 고소대라 했다'라고 썼다.

『호좌수영지』(1847)에는 체성 주위가 3,158척, 여첩 437좌, 충혈 1,302척,

곡성 6처에 포루와 화포기 각각 6좌, 민호 성내 2,024호, 샘이 성내 7곳 성외 2곳, 연못 1처로 기록되어 있다.

1895년(고종 32)에 영(營)이 혁파되면서 방치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영성과 관아건물은 모두 훼손, 또는 방치되기에 이른다. 또 1916년 이후의 해면 매립(海面埋立)과 민가 조성으로 전라좌수영성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호좌수영지』에 나타난 전라좌수영 건물 현황¹⁹⁾

()의 숫자는 총수임

| 건물명 | 칸수 | 건물명 | 칸수 | 건물명 | 칸수 | 건물명 | 칸수 |
|----------|------------------|---------|------|----------|------|--------|------|
| 진남관 | 70 | 정변문 | 3 | 공사문 | 3 | 무권재 | 3 |
| 운주헌 | 4 ²⁰⁾ | 완경루(定遠) | 3(2) | 서학당 | 10 | 공수 | 5 |
| 백화당(비장청) | 8 | 남문(진남루) | 3(3) | 망미루 | 2(2) | 중영(동헌) | 3 |
| 마구 | 14 | 동문루 | 3(2) | 동문좌포루물거청 | 5 | 서문루 | 3(2) |
| 공사문 | 3 | 남문좌포루 | 2 | 서문좌포루 | 2 | 의송청 | 11 |
| 남문우포루 | 3 | 수성중군청 | 4 | 수첩군관청 | 13 | 우대변청 | 10 |
| 서문우포루 | 3 | 좌혈대 | 3 | 좌대변청 | 7 | 직방 | 2 |
| 장대 | 3 | 집사직방 | 3 | 영방 | 6 | 공시방 | 7 |
| 장관청 | 7 | 훈도청 | 6 | 통인청 | 6 | 병기고 | 5 |
| 진무청 | 12 | 화포장청 | 7 | 포수청 | 12 | 수군기 | 5 |
| 사부청 | 8 | 취타군청 | 7 | 기생청 | 5 | 지창 | 9 |
| 기군청 | 10 | 이장청 | 5 | 중영군관청 | 5 | 공고 | 7 |
| 사공청 | 5 | 관노청 | 9 | 장인청 | 24 | 관청 | 7 |
| 유군기 | 12 | 점공방 | 2 | 화약고 | 3 | 병선집물고 | 4 |
| 호고 | 17 | 해현창 | 17 | 도무창 | 13 | 복파당 | 3 |
| 보군창 | | 검제창 | 6 | 조량창 | 10 | 진무청 | 5 |
| 사철청 | 4 | 진출청 | 6 | 봉상청 | 2 | 포랑창 | 3 |
| 미육고 | 14 | 주사청 | 8 | 전선집물고 | 9 | 보선고 | 7 |
| 외창 | 24 | 광양둔창 | 7 | 수성고 | 7 | | |
| 군뢰청 | 5 | 망해루 | 3(2) | 결승당 | 4 | | |

19) 이수시, 『전라좌수영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22~23쪽.

20) 운주헌의 칸수가 『호좌수영지』에 4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호남읍지』에는 30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방답진

방답진(防踏鎭)은 돌산읍 군내리에 있던 전라좌수영 관하의 5포(五浦) 중

하나이던 수군진이다. 1522년(중종 17)에 왜구의 길목이며 왜구 방비의 요충지라 하여 방답(防踏)에 진(鎭)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방답진이라 하고 첨사(僉使)를 두었다.

방답진이 위치한 곳은 남향으로凹형 만입을 이루고 앞에 송도가 가로놓여 있어 천연의 양만을 이루어 명실 공히 전라좌수영 전초 기지로서 손색이 없다. 석축으로 된 이 진성은 주



▲ 방답진 고지도

위가 694보(步), 높이가 19척(尺), 여장(女牆)이 205개소, 창고가 20개, 연못이 하나이고, 성문이 동·서·남 3개소가 있었고, 아사(衙舍)·객사(客舍) 등 진관(鎭管)의 면모를 갖추었다.²¹⁾ 서문 밖 서남쪽에 굴강이 있어 여기에 전선을 매어두었다.



▲ 방답진 성

동문은 군내리에서 돌산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동령(東嶺)고개 미처 못가서 즉 군내리 306번지(북)와 240-1번지(남)에 걸쳐 고개 길목에 있었다. 성터는 이곳에서 북으로 서당산의 중턱을 따라 읍사무소 뒷산 중턱에 이른다. 이곳에서 군내교회 뒷산중턱에 낮게 그 자취를 보여주는 성벽의 흔적을 따라 여수 쪽으로 빠지는 도로 길목인 군내리 1008-1번지(북동)와 965-1(남서)에 걸쳐 서문이 있었다.

서문터에서 남서쪽 노병주 댁 뒷담을 거쳐 도금터를 넘어가는 곳에서도 성

21) 『호남읍지(순천읍, 규장각 도서 12175), 방답진진지 조.

터의 자취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민가를 거쳐 서편 군내리 479-1번지와 동편 군내리 553-1번지(영성약포)에 걸쳐 남문이 있었다. 이곳에서 민가를 거쳐 성벽의 흔적이 보이는 상본산(윗본산)에서 동문 쪽으로 성이 이어졌던 것이다.

동헌(東軒)터는 현 읍사무소(군내리 353-1번지)의 뒤에 있는 옛 건물이고 그 뒤에 관사(官舍)가 있었다 한다. 성내 동북쪽에 10칸짜리 객사(客舍, 군내리 326-3번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수하여 우체국에서 사용하여오다가 화재로 소실되고 현재는 우체국이 그 자리에 새로 지어져 있다.

그리고 성내 서남쪽에 있던 연못(군내리 476-1번지)은 현재 매립되어 민가가 들어서 있다. 서문 밖 서남쪽 느티나무 몇 그루가 남아있는 바닷가, 군내리 980-987번지 부근 만입된 곳이 굴강(屈江)이라 불리는 전선을 메어둔 곳이다.²²⁾

22) 문영구, 「천리화수영연구」, 대한건설진흥회, 1992, 95~96쪽

4. 거문도진

거문도진(巨文島鎭)의 설진은 『풍화거문도진지(風和巨文島鎭誌)』를 통해 거문도 사건 직후인 1887년임을 알 수 있다.



▲ 거문도진 터

본 거문도는 동남쪽 외양(外洋)에 위치한 조그만 섬이다. 주민도 많지 않으며

지형은 바다를 방어하는 데 요해지라 할 수 있다. 사방으로 에워싼 산세는 마치 고리 또는 병풍과 같고 그 안의 내양(內洋) 바닷물은 큰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으며 급한 조수(潮水)가 몰아치지도 않는다. 다만 물이 왕래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북쪽 수구(水口)는 물이 얇고 구불구불하여 작은 배가 겨우 다닐 만하나 남쪽 수구(水口)는 물이 깊고 광활하다. 그 사이에 고도(古島)가 끼어 있는데 그 밖은 좁고 위험하나 안쪽은 안전하다. 갑신년(1884)부터 정해년(1887) 까지 4년 동안²³⁾(原文대로임) 영국 함대 수 십 척이 본도 앞바다에 정

23)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 기간은 고종 22년(1885. 4. 15)부터 고종 34년(1887. 2. 27)까지 약 2년 동안이었다.

박하여 무장을 하고 경비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물속에 목책을 세워 이곳을 별구(別區)로 만들었다.

조정에서는 어명으로 참판 엄세영을 보내어 영국 사람의 동정을 정탐하게 하고 이때부터 교섭하여 영국군을 완전히 철수시켜 돌아가게 했다. 또 경략사 이원희로 하여금 이 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진(鎭)을 설치하도록 순찰하게 하고 이 지방을 정비하게 했다. 이 때 이곳이 홍양현이란 소문을 들었으나 다시 삼도의 이름을 거문도라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고종 임금은 1887년(정해년)에 독진(獨鎭)을 설치케 하고, 수군첨절제사 겸 수방장 신석효로 하여금 해사(海舍)를 건립하게 하여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거문진의 건물(公廩)은 객사(客舍), 동헌(東軒), 내아(內衙), 책실(冊室), 관청(官廳), 군관청(軍官廳), 진무청(賑恤廳), 사령청(使令廳), 관노청(官奴廳), 군기고(軍器庫), 봉세고(捧稅庫), 폐문루(閉門樓)가 있었다.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과 좌수영 산하의 방답진(防踏鎭)과 더불어 거문진(巨文鎭)도 1895년(고종 32) 7월 15일 일본의 간계에 의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건물들은 거문진이 혁파(革罷)된 후에도 있었으나 1905년에 해체되어 서도장촌리의 사립 낙영학교 교사 건축에 사용되었다.²⁴⁾

24) 삼신면지편찬위원회, 『삼신면지』, 동아기획, 1998.

5. 석창성

석창성지는 여천동 86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1월 15일 전라남도 지방 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석창성이라 부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명칭은 '여수석보(麗水石堡)'로 되어 있고, "둘레가 1,479척이고 높이는 10척이며 3개의 우물이 있으며, 절도사가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승평지(昇平志)』²⁵⁾에도 '석보창(石堡倉) 즉 여수석보(麗水石堡)라 기록되어 있다. "평상시에 창고를 설치하여 여수, 삼일포, 소라포 3개리의 환상곡(還上穀)을 여기에서 수납하였다.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적고 있다.

여수석보의 기능은 『세조실록』의 1457년(세조 3) 3월의 기록을 보면 "전라도 순천의 돌산포에는 동쪽에 내례석보가 있고 서쪽에는 여수석보(麗水石堡)가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동떨어지게 멀므로 방어가 긴급하지 않으니 지금

25) 1818년(공해군 10) 순천 부사였던 이수광이 편찬한 순천읍지이다.



▲ 석창성의 해자



▲ 석창성의 우물

돌산포를 혁파하고 그 선군을 내례와 여도에 분속시키게 하소서.”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여수석보는 1457년 이전부터 수군진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순천도호부 관방 조에 ‘여수석보는 둘레 147척, 높이 10척이며 안에 우물이 3개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곽을 쌓는 수법은 낙안읍성과 대단히 유사하다. 기초는 진흙을 한 겹 깔고 잡석을 한 켠 다지는 방식으로 쌓아올린 토축인 것으로 보이며 성굽은 큰 돌을 길이쌓기로 한 겹 빙 둘러쌌다. 이 위에 성돌을 약간 디밀어서 면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성벽을 길이쌓기로 하지 않고 큰 돌을 쓰는 대신 면쌓기로 한 것은 백제계 수법이 전해진 것이라 추정된다. 성벽의 북쪽과 남쪽 외곽에 해자(垓字)²⁶⁾의 유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호 편, 『좌수영진도(左水營鎭圖)』, 『전남의 옛지도』, 전라남도, 69쪽.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대한건설진흥회, 1992, 131쪽.
 삼산면지편찬위원회, 『삼산면지』, 동아기획, 1998.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1993.
 여수시, 『전라좌수영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22~23쪽.
 전라남도, 『문화유적총람』, 1986.
 최인선·조근우, 『여수의 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여수시, 1998.

26) 垓字(垓字/垓字): 성 밖을 둘러 파서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인공 연못.

제 6 장

교통과 통신유적

김 병 호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이사장)



제1절 봉수

1. 봉수제도

봉수란 봉(烽)과 수(燧)로 변방의 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던 전근대 통신망을 말한다. 봉(烽)이란 햇불(炬)을 의미하고 수(燧)란 연기(煙)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밤에는 햇불로 신호를 보내고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야화주연(夜火晝煙)의 방식이다.

봉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지만, 체계적인 정착은 고려시대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1149년(고려 의종 3)에 서북면병마사 조진약이 상주하고 왕의 윤허가 떨어져 봉수식(烽燧式)이 정해졌는데,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화주연(夜火晝煙)으로 하되 봉수 해의 수를 정하여 평상시에는 야화(夜火)와 주수(晝煙)를 각기 1회, 보통 위급한 2급에는 2회, 긴급한 3급에는 3회, 초긴급한 4급에는 4회씩 올리게 하였다. 또 봉수소에는 하급 장교인 방정(防丁) 2명과 봉화대에서 직접 햇불을 올리거나 방어하는 백정(白丁) 20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각각 평전(平田) 1결씩을 주었다.²⁷⁾

1422년(세종 4) 봉수제도는 더욱 정비되었다.²⁸⁾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하고 중국의 봉수제를 참고하여 봉수대 시설 기준과 봉군(烽軍)의 신분과 봉화의 해의 수를 새로 정하였으며, 봉수의 노선을 5개로 나누어 정했다.

제1거는 함경도 영안도를 기점으로 하여 강원도·경기도를 거쳐 양주 아차산에 이르는 노선으로 직봉(直烽)이 120, 간봉(間烽)이 60처에 달했다.

제2거는 경상도 동래를 기점으로 하여 경북·충북·경기도를 거쳐 광주 천천령에 이르는 노선으로 직봉 40, 간봉 123처였다.

제3거는 압록강 중류에서 시작하여 평안도·황해도·경기도의 내륙을 거쳐 경기도 고양의 염포나루에 이르는 노선으로 직봉 78, 간봉 22처였다.

제4거는 평안도 의주에서 시작하여 평안도·황해도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 모악 서봉에 이르는 노선으로 직봉 71, 간봉 35처였다.

제5거는 여수 돌산도 방담진에서 전라도 해안을 거쳐 충남의 내륙과 경기도 및 강화도의 해안을 돌아오는 노선으로 직봉 60, 간봉 35처였다. 이처럼 조선의 봉수는 전국 5개 노선에 직봉과 간봉을 합쳐 623개소에 달했다. 제5거의 봉수 노선은 제5거의 노선에 설치된 서남해의 봉수는 각 처의 수군진과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운영되었던 것이다.

여수지역 내에는 4개소의 중요한 봉수가 있었다. 방담진 봉수(돌산을 둔 전리)와 백야곶 봉수(화양면 장수리)는 서울 목멱산으로 연결되는 직봉(直烽, 줄기봉수)이며, 진례산 봉수(상암동)와 봉화산 봉수(만흥동)는 순천부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간봉(間烽, 사잇봉수)이었다. 이외에도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여수 주변에서는 봉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27) 『고려사』 권81, 병자(丙子) 윤4(癸丑) 3년 8월조

28) 『세종실록』 권18, 4년, 임인(壬寅) 윤12월 계유조

| 유적명 | 소재지 | 시대 | 유적개요 |
|---------|-----------|----|------------------------------------|
| 심포 봉수터 | 남면 심장리 망산 | 미상 | 남면 금오도의 최남단에 위치 1999년 복원 정비 |
| 안도리 봉수터 | 남면 안도리 | 미상 | 안도리 상산에 위치 심포봉화대와 상호연락을 취하는 역할로 추정 |

| | | | |
|---------|-------------|----|--|
| 방답진 봉수터 | 돌산읍 둔전리 봉화산 | 조선 | 제5거의 시기봉. 남해안 일대의 봉화대 중 가장 컸으며, 2단의 돌무더기가 남아 있다. |
| 북봉 연대터 | 동산동 종고산 | 조선 | 종고산에 위치. 현재 옛터만 남아 있으며 해자를 파던 흔적이 잔존. |
| 봉화산 봉수터 | 만홍동 84번지 | 조선 | 봉군들의 흔적과 관련 유물이 남아 있다. |
| 묘도 봉수터 | 묘도동 묘도리 | 미상 | 광양군과 순천등지에 적의 침공을 알린 간봉으로 알려짐. |
| 진례산 봉수터 | 상암동 진례산 | 조선 | 순천부와 광양현으로 중요한 간봉. 현재 봉수터와 관련유구가 잔존. |
| 백아곶 봉수터 | 화정면 안포리 봉화산 | 조선 | 방답진봉수와 연결되었으며 현재 잘 보존되어 체험학습장으로 이용. |
| 거문도 봉수터 | 삼산면 서도리 녹산 | 조선 | 서도리 마을 뒷산에 있으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동학농민운동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
| 손죽도 봉수터 | 삼산면 손죽도 | 조선 | 거문도와 흥양현을 연결하는 중간 봉수로 고지도에 요망대 표시가 있다. |
| 남도 봉수터 | 화정면 남도리 | 조선 | 흥양현과 좌수영을 연결하는 사잇봉수. |
| 장도 봉수터 | 율촌면 여동리 장도 | 조선 | 광양군과 순천부, 좌수영을 연결하는 사잇봉수. |
| 조발도 봉수터 | 화정면 조발도 | 조선 | 흥양현과 좌수영을 연결하는 사잇봉수. |
| 개도 봉수터 | 화정면 개도리 봉화산 | 조선 | 가막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 봉수로 흥양현과 좌수영을 연결함. |
| 돌산도 봉수터 | 돌산읍 평사리 대미산 | 조선 | 방답진봉수와 만홍동 봉화산 봉수를 연결한 사잇봉수. |

제2절 역원

1. 역원제도의 기원과 운영

역제의 기원은 도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제의 기원은 『삼국사기』에 실린 기록을 전거(典據)로 487년(신라 소지왕 9)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의 역제는 통일신라로 이어져, 통일 후 우역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경도역(京都驛)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고려시대 있어서는 성종(재위 981~997년)때 12목이 설치된 이후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역은 점차로 중앙의 통제 밑에 들게 되었고 개경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역로망을 형성하여 22역도 525역(고려사「병지역참조」)이라는 방대한 역조직을 갖추게 된다.

조선시대의 역제는 역로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는 중앙의 병조였고, 그 밑에서 우역사무를 실제로 관장하던 곳은 승여사(乘輿司)였다. 역마는 전국 목장에서 충당했으나 항상 부족해서 물수한 난신(亂臣)의 말이나 민가의 말을 징발해 충당하기도 하였다. 역에는 평균 10.1필의 비율이었다.

각 역도에는 찰방 1인을 두어 대개 10여 역을 다스리게 하고 3년이 되면 교체했는데, 그 품계는 현감, 교수 등과 동급인 종6품이었다. 각 역에는 역장·역리·역졸·일수(日守)·노비·보인(保人)·솔인(率人)·조역(助役) 따위가 있어 역무에 종사했다.

2. 여수지역의 역원 유적

역(驛)은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이 말을 갈아타기 위한 시설이고, 원(院)은 육로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여수지역에는 1곳의 역(驛)과 3곳의 원(院)이 있었다.

덕양역(德陽驛) 부의 동쪽 63리에 있다.

성생원(成生院) 부의 동쪽 40리에 있다.

무상원(無常院) 부의 동쪽 65리에 있다.

내례원(內禮院) 부의 동쪽 87리에 있다.

덕양역은 소라면 덕양리 성재동, 성생원은 소라면 신평리 신산리 1구 후동 마을²⁹⁾, 무상원은 무선³⁰⁾, 내례원은 국동 일대 또는 광무동 석현(石峴)³¹⁾으로 추정한다.

여수지역의 역원유적으로는

첫째, 역의암을 들 수 있다. 덕양역 부근의 역의산 아래에 역(驛)의 바위(岩)가 있는데 역원제도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인다. 임진왜란과 결부하여 역의암(易衣巖), 여기암(女妓巖)으로 부르고 있다.

29) 김계유, 『여수여천발원지』, 1988, 반도문화사, 166쪽.

30) 김계유, 『여수여천발원지』, 반도문화사, 988, 795쪽.

31) ① 『호남여수읍지』 신천 조에 국포, 서쪽으로 10리에 있다. 내례포의 옛터가 있고, 돌산군과 통하는 나룻배가 있다.

② 김계유, 『여수여천발원지』, 1988, 반도문화사, 795쪽.



▲ 덕양역터로 추정되는 성재동



▲ 성생원터로 추정되는 신산리

둘째, 마전(馬田)을 들 수 있다. 마전이란 역마(驛馬)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로 마위전(馬位田)·마분전(馬分田)이라고도 한다. 소라면에 마전(馬田)이라는 마을 명칭은 인근에 있는 덕양역의 역전(驛田) 혹은 성생원의 원전(院田)으로 지급된 토지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역의산



▲ 역의암

셋째, 여수 지역의 역전(驛田)에 관한 구체적인 문헌은 『각사등록(근대편)』으로 1998년(광무 2) 2월23일 자 공문 등의 사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여수군수가 운반비와 우체료에 대한 지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연유를 보고

발송일 光武二年二月二十三日(1898-02-23)

발송자 麗水郡守 吳安默

“本郡所在驛田畝丙申條賭稅一千四百十八兩九錢五分內에 一百八十兩은 因本道觀察府甘飭^ㄱ야 遞夫貫로 除之^ㄴ고…….”

- ② 발송일 光武五年四月十八日(1901-04-18)

“全羅南道麗水郡所在丙申條驛田畝斗落錢數并錄成冊

畝五百三十二斗五升落內

二十斗五升落陳

實畝五百十二斗落每斗落二兩五錢式

代錢一千二百八十兩

田三百四十四斗九升落內

十五斗一升落陳

實田二百九十九斗八升落每斗落三錢五分式

代錢一百四兩九錢三分

埜田九十七斗二升落每斗落三錢五分式

代錢三十四兩二分

合代錢一千四百十八兩九錢五分內

一千五十九兩三錢一分 光武二年一月上納

七十六兩八錢五分 同錢二十九息駄費

九十兩 本郡遞夫貫

一百二十兩 突山郡遞夫貫 依部訓移割

在七十二兩七錢九分 光武四年五月 日上送”

③ 제목 전라남도는 기록표대로 각 군 1896년 역토소작료를 마감하도록 할 것

발송일 光武三年二月一日(1899-02-01)

“麗水郡

丙申條驛土賭錢 合一千四百十八兩九錢五分內

一千五十九兩三錢一分 光武二年一月納

七十六兩八錢五分 駄價

九十兩 光武元年度遞料

合下一千二百二十六兩一錢六分除

在錢一百九十二兩七錢九分”

④ 여수군 역토전 처리 건에 대해 문의한 순천군수의 보고와 훈령

발송일 光武三年九月八日(1899-09-08)

“……, 德良驛賭錢合一千四百八十兩三錢五分…….”

“麗水郡德良驛土丙申條賭錢合一千四百八十兩三錢五分內…….”

⑤ 여수군이 납부해야 할 역도전(驛賭錢) 액수를 제시함

“麗水郡丙申驛土賭錢合一千四百八十兩三錢五分內

一千五十九兩三錢一分 光武二年一月納

七十六兩八錢五分 駄價

九十兩 光武元年度遞料

一百二十兩 突山郡移割

六十七兩八錢七分 光武四年七月納

四兩九錢二分 駄價

合下一千四百十八兩九錢五分除

實在六十一兩四錢不日畢納事”



▲ 마전마을 버스정류소



▲ 마전 들

넷째, 돌산읍 죽포리 봉림³²⁾ 마을은 옛날에 말을 먹이면서 살던 곳 즉 역참(驛站)이 있던 곳이라 하여 '역터골'이라 하였다. 한자식 지명으로 역기동(驛基洞) 또는 역지동(驛地洞)으로 불렸다. 또한 부근에는 봉황산 밑에서 말을 키우던 골



▲ 역터골

짜기라고 해서 마적골(馬積 : 수축골)이라고 부르는 골짜기가 있다.

32) 역터골은 1944년 죽포리로부터 마을이 나누어지면서 봉황산(鳳凰山)기슭 숲 속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봉림리(鳳林里)라 부르게 되었다.

제3절 등대

1. 여수의 항로표식시설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식시설(航路標識施設) 중 대표적인 시설이 등대이다. 등대에는 유인등대와 무인등대가 있다. 그 외에 협초(險礁)를 표시하는 등표(燈標), 등부표(燈浮標), 부표(浮標), 입표 등이 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할하는 유인등대와 무인등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유인등대(有人燈臺)

| 등 대 명 | 설치 년월일 | 위 치 |
|-------|-----------|------------------------|
| 오동도등대 | 1952. 05. | 34° 44.5' ~ 127° 46.2' |
| 백야도등대 | 1922. 12. | 34° 36.4' ~ 127° 49.4' |
| 소리도등대 | 1910. 10. | 34° 24.6' ~ 127° 48.1' |
| 거문도등대 | 1905. 04. | 34° 00.4' ~ 127° 19.5' |

2) 무인등대(無人燈臺)

| 표 지 명 | 위치(wgs-84) | | 설치 년월일 |
|----------------|--------------|---------------|------------|
| | N좌표 | E좌표 | |
| 여수신항 북방파제 등대 | 34° 45' 04 " | 127° 45' 39 " | 1991.11.02 |
| 여수항 파제제북 등대 | 34° 44' 59 " | 127° 45' 02 " | 2003.06.18 |
| 여수항 파제제남 등대 | 34° 44' 48 " | 127° 45' 05 " | 1968.09 |
| 여수구항방파제 히멜등대 | 34° 44' 11 " | 127° 44' 49 " | 2004.12.23 |
| 여수구항등대 | 34° 44' 16 " | 127° 44' 01 " | 1981.6.18 |
| 장군도 등대 | 34° 44' 01 " | 127° 44' 07 " | 1986.08.08 |
| 돌산도 등대 | 34° 42' 11 " | 127° 47' 18 " | 1944.11 |
| 돌산항동방파제등대 | 34° 36' 47 " | 127° 43' 20 " | 2004.12.20 |
| 백금 등대 | 34° 29' 47 " | 127° 49' 35 " | 1985.09.19 |
| 암목도 등대 | 34° 42' 34 " | 127° 41' 44 " | 1979.11.12 |
| 야도 등대 | 34° 43' 17 " | 127° 42' 42 " | 1979.11.12 |
| 구룡암 등대 | 34° 28' 22 " | 127° 45' 58 " | 1986.11.11 |
| 안도항 동방파제 등대 | 34° 28' 38 " | 127° 47' 42 " | 1994.11.24 |
| 안도항 서방파제 등대 | 34° 28' 37 " | 127° 47' 38 " | 1994.10.20 |
| 소횡간도 등대 | 34° 33' 48 " | 127° 45' 56 " | 1998.12.25 |
| 간여암 등대 | 34° 17' 16 " | 127° 51' 18 " | 2004.06.05 |
| 상백도 등대 | 34° 03' 19 " | 127° 34' 58 " | 1938.11 |
| 대두역서 등대 | 34° 14' 34 " | 127° 32' 08 " | 1983.09.19 |
| 서도방파제 등대 | 34° 03' 12 " | 127° 17' 46 " | 1985.07.24 |
| 거문도항고도 서방파제 등대 | 34° 01' 43 " | 127° 18' 27 " | 1974.06.01 |
| 거문도항동도 남방파제 등대 | 34° 01' 57 " | 127° 18' 34 " | 1989.09.01 |
| 거문도항고도 동방파제 등대 | 34° 01' 48 " | 127° 18' 36 " | 1996.03.09 |
| 녹산곶 등대 | 34° 03' 46 " | 127° 17' 33 " | 1958.01.31 |

| | | | |
|---------------|-------------|--------------|------------|
| 역만도 등대 | 34°10'47" | 127°21'11" | 1984.07.16 |
| 초도 등대 | 34°12'43" | 127°15'46" | 1982.06.30 |
| 손죽도 등대 | 34°17'43" | 127°21'04" | 1981.05.29 |
| 남도 등대 | 34°35'40.2" | 127°32'59.7" | 1985.07.24 |
| 고서 등대 | 34°32'37" | 127°38'53" | 1985.08.04 |
| 지마도 등대 | 34°19'58" | 127°22'28" | 1998.08.10 |
| 종결도 등대 | 34°18'49" | 127°14'25" | 1999.12.14 |
| 함구미 등대 | 34°32'20" | 127°41'49" | 2000.09.05 |
| 거문도서도 북방파제 등대 | 34°03'25" | 127°18'02" | 2000.10.24 |
| 거문도동도 북방파제 등대 | 34°03'28" | 127°18'09" | 2000.11.15 |
| 대단 등대 | 34°39'28" | 127°48'29" | 2001.12.01 |
| 초도항 북방파제 등대 | 34°14'15" | 127°14'30" | 2002.08.14 |
| 오도등대 | 34°37'36" | 127°31'30" | - |
| 작도등대 | 34°24'59" | 127°54'13" | 2002.12.03 |
| 남도항남방파제등대 | 34°35'58" | 127°31'55" | 2003.11.17 |
| 소삼부도등대 | 34°02'33" | 127°21'42" | 2003.09.01 |
| 초도항남방파제북단등대 | 34°14'25" | 127°14'28" | 2003.11.17 |
| 남도항북파제제북단등대 | 34°36'03" | 127°32'11" | 2002.08.14 |
| 작금항방파제등대 | 34°35'30" | 127°45'55" | 2005.12.28 |
| 초도항 남방파제남단등대 | 34°14'22" | 127°14'31" | 2006.07.15 |
| 남도항 북파제제남단등대 | 34°36'05" | 127°32'03" | 2006.07.15 |
| 국동항방파제등대 | 34°43'15" | 127°42'21" | 2006.07.05 |
| 문서등대 | 34°08'26" | 127°33'42" | 2006.07.31 |
| 여자도남방등대 | 34°44'58" | 127°30'57" | 2008.12.17 |

2. 거문도 등대

거문도 옛 등대는 1905년 4월 10일 남해안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등대로서 100년 이상 남해안의 뱃길을 밝혀왔다. 등대의 높이는 6.4m이며, 흰색 원통형으로 벽돌과 돌, 콘크리트가 혼합된 구조물이었다. 흰색과 붉은색 빛을 교대로(紅白交閃光) 15초마다 1번씩 비췌으며, 1929년 3월 23일 55,000축광의 찬스식 백열등으로 개조했다.

1934년 4월 6일, 등질을 섬백광으로 바꾸어 강섬광 91,000축광, 약섬광 55,000축광의 빛을 발하였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등대 업무를 중지하였다. 1947년 2월 1일 석유 백열등으로 등대 업무를 다시 시작했고, 1951년 4월 8일 섬백광을 매 15초마다 1섬광씩 빛을 발했다.

2006년 8월 지어진 새 등대는 높이는 33m이며 백색 육각형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구조물이다. 내부는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었다.

광파 표지 기종은 3등 대형(120V-1000W)으로 등질은 섬백광이며, 15초에 1섬광(FLW15s)씩 빛을 발한다.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등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리인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지리적으로 24마일(44km), 광학적으로 38마일(70km), 명목적으로 23마일(42km)에 달한다.

음파 표지는 공기 압축기 즉, 에어 싸이렌으로 취명 주기는 매 50초에 1회 취명(취명 5초, 정명 45초)하며, 음달 거리는 6마일(11km)이다.



▲ 거문도 등대

새 등대는 거문도와 백도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상층부에는 기존 등탑에서 설치되어 있었던 회전식 3등 대형 등명기를 옮겨 설치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옛 등대는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등탑 외벽과 회전 장치를 보수하였으며, 회전식 등명기인 DCB-36을 설치해 보존하고 있다.

등대 절벽 끝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백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소 개방 등대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원룸 형식의 숙소 1세대에 식기류, 조리 기구, 싱크대, 침구류 등을 구비하여 등대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3. 소리도등대

남면의 최남단 연도(소리도)에는 1910년 10월 불을 밝힌 소리도 등대가 있다.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82m, 땅 위에서 9.2m 높이의 육각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이며, 내부에는 2층 구조로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소리도 등대의 광파 표지 기종은 KRB-375(220V-700W)로 등질은 섬백광이며, 12초에 1섬광(FLW12s)씩 빛을 발한다.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 소리도 등대

등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리인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지리적으로 26마일, 광학적 43마일, 명목적 26마일(48km)에 달한다. 음파 표지는 공기 압축기(에어 싸이렌)로 54초마다 울리는데(취명 4초, 정명 50초), 음달 거리는 2.7마일(5km)이다.

소리도 등대는 밤에는 어두운 밤바다의 길을 열어주지만, 낮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알맞은 곳이다. 등대까지 가는 길은 삼림욕을 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의 휴식 공간과 해안 침식 지형이 주는 아름다움, 트인 바다 위로 멀리 백도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다.

4. 백야도 등대

화정면 백야리 산 34번지(N : 34° 36' 4", E : 127° 39' 4")에 위치하고 있다. 1928년 12월 세관공관부 등대국에 소속되어 최초로 밤바다에 불을 밝혔다.

광복 이후인 1948년 1월 교통부 해운국, 한국 전쟁이



▲ 백야도 등대

끝난 뒤인 1955년 2월 해무청 시설국에 소속되었으며, 1959년 6월 유인 등대로 전환하였다. 1961년 10월 여수지방해운국, 1977년 12월 여수지방해운항만청 백야도등대를 거쳐 1988년 8월 여수지방해운항만청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 1997년 5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로 불리고 있다.

백야도 등대의 광파 표지 기종은 HY 610mm(120V-500W)로 등질은 섬백광이며, 20초에 1섬광(FLW20s)씩 빛을 발한다.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등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리인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지리적으로 19마일, 광학적 35마일, 명목적 22마일(40km)에 달한다. 음파 표지는 주파수가 다른 2개의 저주파를 발진, 증폭하여 금속 진동판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吹鳴) 전기폰으로 취명 주기는 매 40초에 1회 취명(취명 5초, 정명 35초)하며, 음달 거리는 2마일(3km)이다.

등탑은 1928년 12월 평균 해수면(MSL)으로부터 5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최초로 세워졌으며, 1983년 11월에 개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조는 백색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써 내부에는 4층 구조로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높이가 14m이다.

5. 오동도등대



▲ 오동도 등대

옛 등대는 1952년 5월 건조된 높이 10.5m의 백색 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었으나, 2002년 등탑을 높이 25m의 백색 팔각콘크리트조로 개축하였다. 8층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다. 오동도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최상부에는 등롱이 설치되어 있다.

항로표지 기능을 발하는 등명기(KRB-375)를 설치하여 선박의 안전항해

에 기여를 하고 있다. 오동도 등명기는 광달거리가 명목적 25마일에 달하며, 농무기 등 안개 철에는 음파표지인 전기혼(음달거리가 2마일)을 발사하여 해상교통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등탑전망대를 비롯한 등대시설을 연중 관광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관광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2층 사무실에 해양수산 홍보관을 개장하여 해양수산 홍보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등명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프리즘렌즈 회전식대형등명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0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등대 불빛은 46km 떨어진 먼 바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녹산등대

1958년 1월 뱃길을 밝히기 시작한 녹산등대는 녹새이³³⁾ 등대라고도 한다. 북위 34° 03' 6", 동경 127° 17' 7" 에 위치하고 있다.

광달거리가 5km인 무인 등대이다. 서도 장촌 마을에서 등대까지 가는 산책로가 아름답다. 등대에 오르면 삼산면 초도가 아스라이 마주 보인다.



▲ 녹산등대

33) 현재로 '녹산(嶺山)'이라고 쓰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어름인 '녹새이'를 그대로 표기했다.

7. 향표 지명

마산만에서 경기만에 이르는 서남해안 전역에 걸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과 해협 또는 해로의 분기점 내지 전환 지점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불궁도, 불도, 탄도, 연도, 인화도, 불태바위, 불모도, 방화도, 화도, 장구도, 고도, 북섬, 명도, 깃대봉 등 모두 신호 발신과 관련되는 섬 이름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한결 같지 않다. 물론 이러한 지명들은 해안뿐 만 아니라 내륙에도 있다.

내륙에 나타나는 지명들은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해안지역은 낙동강 하구로부터 경기만까지 서남해안 전역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분포한

34) 화톳불은 한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을 말한다.

다. 이러한 추세는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여수 지역에도 묘도와 광양, 남해 등에서 행하여지던 화톳불³⁴⁾로 이웃 섬과 연락하는 섬사람들의 통신 관습 때문으로 보기에 너무나 큰 초지역적 분포 규모이다.

여수해안의 향표지명

| 향표지명 | 현 주 소 | 해 역 | 비 고 |
|------|-------------|---------|--------------|
| 불무섬 | 돌산읍 죽포리 두문포 | 돌산도 동측 | 향표시설 존재 |
| 화태도 | 남면 화태리 | 횡간수로 서측 | 취타도>수태도>화태도 |
| 장구도 | 화정면 하화리 | 백아수로 서측 | |
| 장구도 | 소라면 사곡리 | 여지만 입구 | |
| 연 도 | 남면 연도리 | 금오도 남측 | 소리도 |
| 고 도 | 삼산면 거문리 | 동도 서도 | 왜도>예도>고도(古島) |
| 깃대봉 | 삼산면 손죽리 | 손죽도 | 깃대류 지명 |



▲ 돌산읍 불무섬



▲ 불무섬의 향표시설

참고문헌

『고려사』 권81, 병지(兵志)1 의종 3년 8월조.

『세종실록』 권18, 4년 임인(壬寅) 윤12월 계유조.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반도문화사, 1988.

여수시문화원, 『호남여수읍지』, 1985.

제 7 장

유교 유적

조 종 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교사)



제1절 여수향교

1. 연혁 및 현황

여수향교는 군자동 165번지에 소재하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4호로 지정되었다. 1895년(고종 32) 전라좌수영이 폐영되고 2년 뒤인 1897년(광무 1) 여수군이 복설되면서 유림의 합의에 따라 창건하였다.

유림안(儒林案)을 편성하고 각호(各戶)마다 각금(釀金)하여 종고산 남쪽에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를 건립하여 오성위(五聖位)와 송조육현(宋朝六賢)과 동국의 18현을 차례로 봉안하고 명륜당(明倫堂)과 수호사(守護舍)를 증축하고 향사답(享祀畝) 170여 두락을 매입하였다.

1934년에 유림들이 성금을 각출하여 명륜당을 중수하고 동서양재와 풍화



루(風化樓)를 신축하는 등 향교의 전형을 갖추게 되었다.

광복 후 1949년 창건 당시는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이었던 대성전을 정면 5칸의 현재 건물로 증축하였으며, 1984년에 명륜당을 증수하였다. 1994년 유림회관을 건립하여 충·효·도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급경사지에 위치한 관계로 위쪽에 위치한 문묘구역(文廟區域)과 아래쪽의 강학구역(講學區域)과는 약 3.6m의 지반차를 두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양구역의 왕래를 위한 15단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구조이다.

현재 약 1,652.5㎡ 경내에는 대성전(76.67㎡,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지붕)을 비롯하여 명륜당(72.37㎡,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동재(38.66㎡, 정면 4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서재(29.7㎡,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 제물고, 수호사, 측소, 유림회관, 풍화루, 홍전문이 배치되어 있다.

석전대제봉행일(釋奠大祭奉行日)은 음력 봄 3월 상정(上丁)일과 가을 8월 상정(上丁)일 탄신제 8월 27일이고, 신구교임 교체식은 음력 2월, 8월 말일(末日)이다.

2. 비석(碑石)

- 1) 전남여수부설연혁향교창건기실비(全南麗水復設沿革鄉校創建記實碑)(孔夫子誕降 二千五百十九年 戊午 三月 日, 成均館長 朴性洙 撰, 成均館典學 丁基魯 謹書)
- 2) 노재창원정공기리기적비(魯齋昌原丁公基魯紀蹟碑)(檀紀四千三百十五年 壬戌1982 秋, 光山 李珉秀 撰并書, 麗水鄉校 儒林一同 建立)
- 3) 전여수시장송재구기적비(前麗水市長宋載久紀蹟碑)(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九年 戊辰 既望, 昌原 黃致淳 撰並書, 戊辰 二月 日 麗水鄉校儒林一同 立)
- 4) 전여수시장김우곤기적비(前麗水市長金禹坤紀蹟碑)(檀紀四千三百二十三年 庚午 1990 元月上弦, 昌原 黃致淳 謹立書)

3. 현판(懸板)

- 1) 대성전상량문(大成殿上樑文)(建陽二年 丁酉1897 仲夏, 知郡 豊壤 趙東 勳 撰)
- 2) 명륜당기(明倫堂記)(光武 庚子1900 八月 日, 知郡 海州 崔正益 序)
- 3)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光復後 甲子1984 重陽日, 後學 丁雨錫 記)
- 4) 여수군학중건기명륜당중수기(麗水郡學重建記明倫堂重修記)(乙未 流頭 節, 安東 金潤東 謹記)

제2절 돌산향교

1. 연혁 및 현황

돌산향교는 돌산을 군내리 203번지에 소재하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1호로 지정되었다. 1896년(고종 33) 돌산군(突山郡) 설군(設郡) 1년 후, 대한제국이 성립된 해인 1897년(光武 원년) 10월에 김씨, 박씨, 주씨, 강씨 집안의 사문중(四門中)에서 창건하였다.



▲ 돌산향교

1895년 지방 관제의 개편에 따라 방답진이 폐진되고 순천부 관내에서 분리설군 되자, 1읍 1교의 향교 설립 원칙에 따라 돌산향교가 창설되게 되었다. 이 무렵에 여수향교도 신설되자 돌산향교의 소관 지역은 돌산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에 국한되었다.

『돌산향교신설사적(突山鄉校新設事蹟)』에 의하면 군(郡)이 신설된 직후 먼저 사직단(社稷壇)이 설단되고 이어서 대성전, 명륜당, 풍화루 등이 차례로

35) 향교의 규모는 대설위(大設位), 중설위(中設位), 소설위(小設位)의 3등급으로 나뉜다.

건립되어 2년간의 향교창설역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성전상량문(大成殿上樑文)은 당시 승정대부중추원부외장부장(崇政大夫中樞院副議長副將) 동양(東陽) 신기선(申箕善)이 찬(撰)하였고 명륜당(明倫堂) 상량문(上樑文)은 전(前) 학부대신(學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지었으며, 풍화루(風化樓)의 기문(記文)은 당시 돌산군수였던 서병수(徐丙壽)가 지었다. 그 후 1931년 대성전을 중수할 때는 향교 전직원이던 김병채가 중수기를 썼다.

돌산향교는 소설위(小設位)³⁵⁾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공자를 주향(主享)으로 한 사성(顏子·子思·曾子·孟子)과 송사현(宋四賢)(周敦頤·程·程顥·朱熹) 및 설총(薛聰) 이래 동국 18현을 배향하였다.

광복 후에는 전화(戰禍) 등으로 파훼(破毀)되어 일시 방치되다가 차츰 문화재보전의 관심 고조로 1979년에 한차례 보수가 있었고, 1986년 명륜당은 군비를 지원 받아 신축에 가까운 중수를 하였다. 1989년 8월 전교 박충래의 홍전문(紅箭門) 헌립(獻立)과 1991년 풍화루(風化樓) 단청 등 지속적 경내 정화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석전제봉행일은 음력 2월 상정(上丁)일과 8월 상정(上丁)일이다.

향교 후면과 좌우로 야산을 끼고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돌산향교는 평탄한 지형에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독특한 배치 형태이다. 경내의 대지면적은 약 1,355㎡ 정도이며 대성전(46.27㎡), 명륜당(64.12㎡), 풍화루(31.39㎡), 어사문(9.9㎡), 내삼문(14.21㎡) 등의 건물이 있다.

이 외에 험문 4동과 벽돌조 창고 2동, 관리사 1동이 있다. 건물의 전체 배치 모습은 향교 맨 앞쪽에 풍화루가 있고 이 누각을 통과하면 넓은 교육 공간이 펼쳐지며, 명륜당은 이 공간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문묘 구역은 향교 전면 우측 담에 설치된 일각대문(一脚大門)을 통하여 진입하게 되어 있다.

2. 소장 자료

1) 향교 고문서

- (1) 향안(鄉案) 1책(광무3년 己亥, 1899년 6월, 김인성 외 64명 등재)
- (2) 문묘건설시보조사입록(文廟建設時補助者入錄) 1책(광무3년 己亥, 1899

년 6월, 보조자 70인 등재)

- (3) 본향교신설사적(本鄕校新設事蹟)(광무3년 己亥, 1899년 8월)
- (4) 향교출의책(鄕校出義冊)(1900년 5월, 175명 등재)
- (5) 향안(鄕案)1책(壬寅, 1902년 3월, 주홍필 외 36명 등재)
- (6) 돌산문묘존성계신구안합편(突山文廟尊聖楨新舊案合編)(壬戌, 1922년 12월30일)
- (7) 돌산문묘청금안(突山文廟靑襟案)1책(癸亥, 1923년 1월, 최병수 외 100명 등재)
- (8) 돌산향교집강안(突山鄕校執綱案)(1966년 刊, 창건 이후 1966년까지의 향교 임원 및 鄕儒 총 명단)
- (9) 그 밖의 문서명 돌산향교경임안(突山鄕校經任案), 돌산향교창선계안(突山鄕校彰善契案), 돌산향교역대전교등록부(突山鄕校歷代典校登錄簿), 향원명부(鄕員名簿), 효열표창서류철(孝烈表彰書類綴), 답산실기전(滄山實記全), 읍지호남여수(邑誌湖南麗水), 회맹록(會盟錄), 백일장시집(白日場詩集)

2) 일제강점기 돌산향교와 관청 및 각면간왕래서류철

- (1) 소화(昭和)8年(1933) 군면왕복서류철 1책(郡面往復書類綴 1冊)
- (2) 소화(昭和)9年(1934) 향교수리급보기수선각수입계1책(鄕校修理及寶器修善各收入計1冊)
- (3) 소화(昭和)9年(1934) 각관서왕복서류철 1책(各官署往復書類綴 1冊)
- (4) 소화(昭和)9年(1934) 군면왕복서류철 1책(郡面往復書類綴 1冊)
- (5) 소화(昭和)10年(1935) 각관서왕복서류철 1책(各官署往復書類綴 1冊)
- (6) 소화(昭和)11年(1936) 각관서왕복서류철 1책(各官署往復書類綴 1冊)
- (7) 소화(昭和)11年(1936) 군면왕복서류철 1책(郡面往復書類綴 1冊)
- (8) 소화(昭和)12年(1937) 각관서왕복서류철 1책(各官署往復書類綴 1冊)
- (9) 소화(昭和)12年(1937) 군면왕복서류철 1책(各官署往復書類綴 1冊)
- (10) 소화(昭和)12年(1937) 경학원왕복서류철 1책(經學院往復書類綴 1冊)
- (11) 소화(昭和)13年(1938) 군면왕복서류철 1책(郡面往復書類綴 1冊)

3. 비석(碑石)

- 1) 돌산향교창건사적비(突山鄉校創建事蹟碑)(孔夫子誕降 2542년 辛未)
- 2) 도지사원응상영세불망비(道知事元應常永世不忘碑)(大韓民國 6년 甲子 4월)
- 3) 참서관석진형영세불망비(參事官石鎭衡永世不忘碑)(大韓民國 6년 甲子 4월)
- 4) 통정진주강공기적비(通晴晉州姜公紀績碑)(孔夫子誕降 2539년 戊辰 3월)
- 5) 하마비(下馬碑)

4. 현판(懸板)

- 1) 대성전신건상량문(大成殿新建上樑文)(光武元年 十月 下浣, 崇政大夫中樞院副議長 部將東陽 申箕善 撰)
- 2) 명륜당신건상량문(明倫堂新建上樑文)(光武元年 十月 上浣, 前學部大臣 李道宰 撰)
- 3) 풍화루신건상량문(風化樓新建上樑文)(大韓光武二年 戊戌 十月二月十二日未時, 本郡士人 金大鉉 謹稿)
- 4) 풍화루기(風化樓記)(光武三年 己亥夏 郡守 徐丙壽 記)

참고문헌

- 고영진, 「여수시의 유교유적과 고문서」, 『여수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나익수, 『돌산향교지』, 호남문화사, 1993.
-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이레기획, 2007.
-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동광인쇄소, 1982.
- 위민환, 『유림대전』 전남편, 1981.
- 정수길, 『여수향교지』, 형제인쇄소, 2007.
-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제 8 장

불교 유적

조 종 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교사)



제1절 흥국사

1. 연혁

흥국사는 여수지역의 대표적 사찰로 영취산(靈鷲山) 아래 위치하고 있다. 정확한 창건 연대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1961년에 작성된 「전라도 순천부 영취산 흥국사 사적(全羅道 順天府 靈鷲山 興國



▲ 흥국사 전경

寺事蹟)에는 1196년(고려 명종 26)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창건이라고 하였다.

1703년에 세워진 「유조선 전라도 순천 영취산 홍국사 중수 사적비명 병서(有朝鮮 全羅道 順天 靈鷲山 興國寺 重修 事蹟碑銘 并序)」에는 서기 1343년(고려 충혜왕 4, 元至正 3년 癸未)에 역시 보조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적혀 있다. 두 자료가 보조국사의 창건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그 시기는 147년이 나 차이가 난다. 보조국사의 생몰 연대(1158~1210)로 보아 「홍국사 중수 사적비」의 1343년 창건 기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전라도 순천부 영취산 홍국사 사적」에 기록된 1196년에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조국사가 홍국사를 떠난 1201년 이후 승려는 줄어들고 사찰은 점차 피폐되어 백 년 가까이 토굴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몽골군에 의해 소실되고만 홍국사는 1560년(명종 15) 법수(法守)대사에 의해 다시 중건되기에 이른다. 그는 동지인 학준(學俊) 신잠(信岑) 수인(守仁) 양희(良希) 영우(靈佑) 등과 법당과 요사를 복원하여 3,000곳의 비보사찰 가운데 제1의 사찰로 재건하였다.

그러나 반세기가 못되어 홍국사는 또 왜란으로 비운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혜대사(三惠大師), 기암대사(奇岩大師)를 중심으로 한 홍국사의 승군 300여명은 충무공을 도와 전공을 세워 '홍국'이라는 절 이름(寺名)을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

그 후 어릴 적 이 절에 출가한 계특대사(戒特大師)가 옛 산으로 돌아와 다음 해인 1624년(인조 2) 가을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단행하여 당우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계특대사는 법당을 중건하고 희(希) 익(翼) 안(顔)과 더불어 선방과 요사를 일신하는가 하면 수시로 당우와 범종을 주조하여 영취산의 기운을 무르익게 하였다.

대웅전이 비좁아 이를 확장할 필요성을 느낀 통일(統日) 스님에 의해 1690년 법당을 중창 개조하고, 팔상전을 준공하기도 하였다. 현재 대웅전에 걸려 있는 영산회상도가 1693년에 그려 모신 것이고, 7년 후인 1700년에는 대웅전 원통전 나한전의 후불탱, 삼장탱, 지장탱, 제석탱 등을 모신 것으로 보아 당시의 불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23년에는 16나한도를 6폭에 나누어 그려 모셨고, 1741년에는 감로왕도 삼장보살도 제석도 지장보살도 천룡도 팔상전 후불도를 모신 것으로 보아 홍국사의 대작불사는 50년 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도 1822년의 신중도, 1844년의 산신도, 1855년의 칠성도, 1873년과 1875년에 독성도 등을 꾸준히 모셨던 점에서 흥국사는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사세가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의 흥국사는 1985년에 주지로 부임한 명선 스님에 의해 대웅전 해체 복원, 적묵당, 봉황루, 종각, 범종 등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여 옛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현재 흥국사에는 대웅전, 팔상전, 불조전, 무사전, 원통전, 응진전, 해동선관, 만월료, 후불탱화, 괘불탱화, 적묵당, 심검당, 보제루, 천왕문, 범종각, 일주문, 사적비, 12기의 부도, 홍교 등이 있다.

2. 전각 및 문루

1) 흥국사 대웅전

대웅전(大雄殿)은 보물 제39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기(1690)에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로 아름다움이 유난히 빼어난 건물이다.

둥글게 높이 솟은 영취산 주줄기의 뒷산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자



▲ 흥국사 대웅전

리 잡아 배치부터 범상하지 않다. 조선조 중기 이후에 흔히 볼 수 있는 다포(多包)집 형식으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어서 화려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단층기단은 긴 장대석으로 바른 층 쌓기를 하여 그 위에 갑석을 깔았다.

대웅전이 반야용선(半若龍船)을 상징하므로 그 기단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북, 게, 해초를 새겨 넣고 석등과 기단에는 거북 등을 조각하고 정면 계단 양편에는 용을 조각하여 호위하는 형태를 취했다.

2) 원통전



▲ 원통전

전각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두루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것이다.

기둥 상단에 혀 같은 장식을 치레한 주심포 건물이면서 다포적인 수법이 많이 첨가되었으며, 익공계의 수법도 표현되고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여 최대한 아름답고 기능에 알맞은 원통전을 만들었다. 1195년(고려 명종 25) 보조국사가 지은 건물로서 1560년(명종 13) 범수대사가 중수하고 1624년(인조 2) 계특대사가 재중수한 후 1974년, 2007년 보수하였다.

원통전(圓通殿)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17~18세기)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팔작지붕의 한 면이 전면의 현관 구실을 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3) 팔상전



▲ 팔상전

취산에서 흘러내려온 뒷산 봉우리와 잘 조화를 이룬다. 내부는 비교적 단순하며 고주(高柱)를 세우고 탕화와 불상을 안치했으며 단집도 비교적 대웅전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다. 천장은 정자형으로 짚으며 국화문과 연화문으로 장식했다.

팔상전(八相殿)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8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다포 양식을 취했으며, 어간문은 4합이며 양 옆은 3합문으로 빗살문과 정(井)자문을 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영

1645년 통일대사가 창건하고 1815년 응운대사가 중수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취산 흥국사사적」에는 1690년 통일 스님이 법당을 중창·개조할 때 먼저 계특 스님이 1624년 가을 중건한 법당을 해체한 목재를 수습하여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7년 해체 복원하였다.

팔상도는 1917년 영봉(英峰) 스님이 조성하여 모셨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난당하였다.

4) 응진전

응진전(應眞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정(井)자문으로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주심포 양식을 취했으며 장혀를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천장반자에 국화문과 연화문을 장식했으며, 내부구조도 지극히 간결하여 소박한 맛을 준다.

절에서는 1624년 계특대사가 창건하고 1753년 영파대사가 중수하고 1963년 응봉대사가 중수하였다고 한다. 응진당 내에 있는 탕화 화기에 의하면 1723년으로 제작 연대를 기록하고 있어 응진전도 1720년을 전후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응진전

5) 무사전

무사전(無私殿)은 다른 절에서는 대개 명부전이나 지장전으로 부르고 있으나 흥국사에서는 특이하게 무사전이라고 한다. 명부의 세계는 사사로움이 아닌 그 사람의 업(業)에 의해 공평무사하게 결정된다는 뜻에서 '무사(無私)'란 편애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1624년 계특대사가 창건하고, 1750년 묵암대사가 중수한 것을 1895년 경허대사가 중수하고 1980년대 초에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 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주심포 양식이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축조된 이곳의 응진전과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아마 같은 시대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내부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으나, 천장 가운데 칸은 연화문 당초문을 섞어가며 조각하였고, 또 좌우 칸에는 구름무늬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가운데 문 위쪽 천장에는 6판 연잎의 꽃술에 6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흠)



▲ 무사전

을, 연앞에는 각 대왕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무사전에 모셔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팔 및 복장 유물은 보물 제1566호로 지정되었다.

6) 불조전

불조전(佛祖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형이며, 2합 빗살문으로 되어 있고 후벽 바깥에는 소를 찾는 그림인 심우도(尋牛圖)가 그려져 있다. 내부에는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좌우로 창건주 보조국사 지눌과 법수대사 계특 원통 등 흥국사의 역대 조사들을 모셨다.

1630년 청파대사가 창건하고, 1820년 침룡대사가 중수한 후 1935년 춘봉대사가 청운암에서 이관하였다고 한다.



▲ 불조전

7) 노전

노전(爐殿)의 현판은 해동선관(海東仙觀)이라고 붙여 있으나 원래 이름은 첨성각(瞻星閣)이다. 집의 형태가 조금 특이하다. 부처님의 오른쪽 뒤에 항상 대기한다는 뜻으로 법당 오른쪽 뒤에 지어졌으며 팔작지붕인데, 오른쪽 앞으로 팔작지붕을 겹쳐서 본 듯이 하나 더 붙여 누각이 되게끔 했다. 이곳에서 차를 달이고 별을 보아 시간을 알았던 것 같다. 정면 2칸, 측면 2칸의 변형으로 부엌 쪽의 한 칸은 최근에 달아낸 것 같다.

1643년(인조 21) 6월에 초창하고, 1861년(철종 12)에 경주대사가 중창하였다.

8) 심검당

심검당(尋劍堂)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ㄱ자형 집이다. 지붕은 한쪽은 팔작이고 대웅전 쪽은 맞배이며 ㄱ자로 돌출된 부분은 팔작이다. 바닥은 수평을 잡지 않고 기둥의 높낮이를 조성하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으나 불안전한 모습이다.

1633년(인조 11) 6월 설주선사가 초창하여 선승당(禪僧堂)이라 하였다. 그 후 1780년 주지 봉순이 일차 수집(修輯)하였음을 응운 증오의 「상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1987년 11월 10일 해체 보수하였는데, 이 때 1812년에 한 차례 더 중건하였음을 효암 충일 「상량문」에서 확인되었고, 그 때 선당을 심검당이라고 고쳐 불렀다.

9) 적묵당

적묵당(寂默堂)은 법당 마당을 중심으로 심검당과 마주 보고 있다. 땅을 고르지 않고 기둥으로 높낮이를 잡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이 건물은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을 혼용한 형태로 부엌이 딸린 큰방 형태이다.

1801년 4월 화재로 소실된 것을 전라좌수사 이신경의 도움으로 1803년에 상량했다는 효암 충일의 「상량문」과 1805년 5월에 순암 지서가 쓴 「중창기」가 있다.

10) 법왕문

법왕문(法王門)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며, 지붕은 맞배형이다. 기둥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안정감은 없으나 건물의 사용 목적상 높이 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본래 마루가 있었고 보제루의 일부 기능을 담당했던 것 같다.

1624년 계특대사가 흥국사를 복원한 후 옥청 스님이 법왕문을 세웠다고 「선당수습상량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1650년을 전후해서 법왕문이 완성된 것 같다.

11) 봉황루

봉황루(鳳凰樓)는 의식을 집행하는 누각이다. 여기서 부처님께 예불 및 제반 의식을 행한다. 1729년에 기록된 「봉황대루중창상량문」에 따르면 팔도도총섭인 덕린스님, 승통대장 찬민, 팔도도총섭 자현스님 등 300여 승병들에 의해 지어졌다.

봉황대루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봐서 매우 컸던 건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봉황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형 건물이나, 상량문에 의하면 6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보수를 하면서 많이 줄었다고 한다.



▲ 봉황루

당시 이 일에 참여했던 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추를 찾아, 정면 7칸, 측면 5칸의 대형 보제루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 당시 승군 300명을 합하여 700여 명의 대중이 집회를 하는 장소로 쓰였던 것 같다.

이 봉황루 안에는 남장군순절비문이 판각으로 걸려 있으며, 승군의 성문이었던 공복루의 현판도 걸려 있고, 선비들이 찾아와 지은 시가 판액으로 걸려 있어 이채롭다.

12) 천왕문

천왕문(天王門)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805년에 기록된 「흥국사천왕중수개채기」에 의하면 “다 허물어진 천왕문을 보수하기 위하여 벽파, 용운, 영월, 완해스님 등이 화주를 하여 보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며 내부는 사천왕상이 안치되어 있다. 천왕상이 매우 크며 위엄 있게 조성되었다.

3. 불상 · 보살상

1) 흥국사목조석가여래삼존상

흥국사목조석가여래삼존상(興國寺木造釋迦如來三尊像)은 대웅전에 모셔져 있으며, 보물 제1550호로 지정되었다. 협시 보살상의 보관 뒷면에는 각각 자씨보살대명승정(慈氏菩薩大明崇禎), 제화보살대명승정(提花菩薩大明崇禎)이라는 명문이 타출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따



▲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라서 이 삼존상이 수기삼존상(授記三尊像)으로 17세기 전반의 승정연간(1628~1644)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삼존상은 조각수법이 매우 뛰어나서 양감이 잘 표현되었으며, 손과 발의 표정이 잘 살아 있고, 옷 주름이나 장신구의 표현도 유려하다. 불상은 17세기 조각의 단순함을 잘 반영하고 있고, 두 보살상은 자연스러운 자세와 장대한 신체비례를 보여준다. 17세기 전반의 상으로 이와 같은 크기의 보살상을 동반한 삼존불이 드물고, 도상과 양식 면에서도 조선후기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상으로 평가된다.

2) 흥국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및복장유물

흥국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일괄및복장유물(興國寺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은 흥국사 무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시왕·권속일괄 유물이다.

1648년(인조 26) 수조각승 인균(印均)을 비롯한 12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보물 제156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지장보살상은 동그란 얼굴에 살이 적당히 울랐으며, 부푼 눈두덩 사이로 짧게 치켜 올린 눈이 인상적이다. 단정한 신체에 표현된 옷 주름은 강직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잘 조화시켜 신체의 굴곡과 양감을 잘 살려내었다. 시왕과 권속상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특징과 역할을 다양한 표현력과 연출력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흥국사 무사전 조각들은 17세기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삼존을 비롯한 권속들이 모두 존속하고, 조성주체와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응진당 목조석가삼존좌상

응진당목조석가삼존좌상(應眞堂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의 본존불인 석가여래좌상은 통견이며, 수인은 아미타 9품인이고 둥근 상호에 살이 찌었다. 양보살은 본존과 거의 비슷하나 머리에 보관을 쓴 것과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이 다르다.

조성 시기는 응진당의 건립 완성 시기와 탕화 제작 연대(1723년)를 볼 때 18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



▲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응진당 목조석가삼존좌상



▲ 목조관음보살좌상

4)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원통전목조관음보살좌상(圓通殿木造觀音菩薩坐像)은 원통전의 주존불이다. 상호는 원만하고 보관은 화려하며 귀는 길게 늘어져 있다. 이마에 여래처럼 백호가 있으며 볼에 살이 찢고 목에는 삼도가 보인다. 법의는 통견이며 수인은 아미타 수인을 결하고 있다. 가부좌한 다리 사이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이 발목을 감았으며 손은 별조하여 끼웠다. 대좌는 정방형인데 모서리가 각을 죽여 8각이다.

조성 시기는 여러 양식을 살펴볼 때 17~18세기 작으로 추정된다.

5) 팔상전 석가삼존좌상



▲ 석가삼존좌상

팔상전석가삼존좌상(八相殿釋迦如來三尊坐像)은 석가여래좌상을 본존으로 하고 좌우에 보살좌상이 협시하고 있는데 모두 목조이다. 본존불은 통견이며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갖고 있고, 신체에 비해 상호 부분이 큰 편이며 중간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양쪽의 협시보살 역시 본존불과 비슷한 양식을 갖고 있으나 다만,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것과 손에 연봉오리를 들고 있는 것이 다르다.

조성 시기는 팔상전의 건립 연대(1690년)와 1741년에 그려진 영산회상도를 참작하고 18세기의 다른 불상과 비교해 볼 때 18세기 작으로 추정된다.

4. 불화

1) 흥국사 대웅전후불탱

흥국사대웅전후불탱(興國寺大雄殿後佛幀)은 석가가 영취산에서 여러 불·보살에게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탱화로,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린 보물 제578호이다. 탱화는 천·종이에 그린 그림을 죽자나 액자의 형태로 만들어 거는 불교그림을 말한다. 크기는 가로 4.27m, 세로 5.07m이다.

이 탱화는 화면 중앙에 있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앞쪽 양옆으로 여섯 명의 보살들이 배치되었고, 그 옆으로는 사천왕을 거느리고 있다.

석가여래상의 바로 옆과 뒤편으로는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따르는 무리들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다. 석가여래상은 왼쪽 어깨에 옷을 걸쳤고, 얼굴은 둥글고 풍만한 모습이다.



▲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채색은 대체로 붉은 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졌는데, 머리광배의 녹색은 지나치게 광택이 있어 은은하고 밝

은 맛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꽃무늬나 옷주름선 등에 금색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결 고상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1693년(숙종 19)에 왕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천신(天信)과 의천(義天) 두 승려화가가 그린 이 탕화는 원만한 형태와 고상한 색채의 조화로 17세기 후반기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된다.

탱화의 둘레에는 백색의 당초문(唐草文)이 둘러지고, 그 밑에 화기(畫記)가 쓰여 있다. 화기(畫記)는 「강희삼십이년계유사월일(康熙三十二年癸酉四月日) 영취산흥국사영산회필(靈鷲山興國寺靈山會畢) 공안우태위주상삼전하만세수만세국태민안(功安于泰爲主上三殿下萬歲壽萬歲國泰民安) 법륜상전(法輪常轉)」이다.

2) 흥국사 노사나불괘불탱

흥국사노사나불괘불탱(興國寺盧舍那佛掛佛幀)은 보물 제1331호로 지정되었다. 협시상 없이 거대하고 화려한 보주형(寶珠形) 몸 광배와 녹색바탕의 둥근 머리광배를 갖춘 본존만을 전체 화면에 꽉 차도록 단독으로 그리고, 하단 좌우로 보탑을 배치한 단독불화(單獨佛畫) 형식의 괘불화이다.

이 상은 머리에 화불이 안치된 화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 위까지 들어 좌우



▲ 흥국사 노사나불괘불탱

로 별린 설법인을 짓고 있어 삼신불회도 가운데 보신불을 단독으로 그린 이른바 보살형 노사나불도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상단에 화엄탱화의 칠처구회도(七處九會圖) 중 노사나불과 관련이 있는 천상설법 장면, 즉 도리, 야마, 도솔, 타화자재천궁회에서 보이는 천궁과 같은 건물의 처마 끝이 표현되어 있다.

당대 최고의 화승 의겸 스님과 함께 활동했던 비현(丕賢) 스님이 수화사(首畫師)로 참여한 그림으로, 색채가 선명하고 아름다우며 장식성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필선이 유려하여 세련미가 엿보인다.

불화의 하단에는 제작 당시 괘불 제작에 참여한 시주질(施主秩)과 연화질(緣化秩)이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뒷면에는 후에 괘불을 보수하면서 기록한 화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괘불 제작의 실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3) 흥국사수월관음도

흥국사수월관음도(興國寺水月觀音圖)는 보물 제1332호로 지정되었다. 관음보살은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고난에서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수월관음도에는 그가 사는 정토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등근 몸광배에 싸인 정면관(正面觀)의 수월관음(水月觀音)을 중앙에 큼직하게 그린 다음 오른 무릎 아래 쪽 한 권으로는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 합장하고 서 있는 선재동자(善財童子)를 배치하고, 맨 하단에는 일렁이는 물결을 묘사하였다.



▲ 흥국사 수월관음도

그리고 양팔 좌우로는 쌍죽 및 정병과 청조를 그려놓아 관음보살이 금강옥

석 암좌에 앉아 문수보살의 지시에 의하여 구도 여행을 하는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수월관음도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관음도의 전형을 잘 따르고 있는 정면관 관음도로써, 부분적으로 도식적인 면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짜임새 있고 안정된 구도에 적·녹·청색이 조화를 이루어 화려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의 색채와 정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세련된 필선, 단정하고 적당한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바위면 처리에 있어 회화성 넘쳐나는 표현 기법 등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 그림은 18세기의 유명한 화승 의겸(義謙)이 그린 불화로서 비록 화면 하단부에 일부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구도가 매우 안정되고 필선이 섬세하며 색채의 조화가 뛰어난 조선 후기의 수작이다.

4) 흥국사십육나한도



▲ 흥국사 십육나한도

흥국사십육나한도(興國寺十六羅漢圖)는 응진당(應眞堂)에 모셔져 있다. 중앙의 영산회상탱은 없어지고 지금은 나한도 여섯 폭만이 남아 전해져 오고 있으며, 보물 제1333호이다.

좌우 각각 세 폭씩으로 좌측(향우)에는 1·3·5·7·9·11·13·15존자를, 우측(향좌)에는 2·4·6·8·10·12·14·16존자를 서로 마주하도록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독특한 구성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 폭 모두 황토색 바탕에 인물과 함께 명암처리가 두드러진 바위와 고목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부드러운 중간색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여섯 폭 가운데 좌1폭은 예를 갖추고 중앙 본존불을 향하여 서 있는 노비구모습의 가섭존자를 시작으로 1·3·5존자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고, 좌2폭은

7·9·11·13존자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좌3쪽은 15존자와 대범천 및 그 권속들을 그렸다.

우1쪽에는 중앙을 향해 단정하게 서있는 청년 비구 모습의 아난존자와 함께 2·4·6존자를 그렸고, 우2쪽은 8·10·12·14존자가 그려져 있으며 우3쪽은 다소곳이 앉아 합장하고 있는 청년비구 모습의 16존자와 하원장군과 직부사자를 거느리고 있는 제석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그림은 채색과 인물 묘사, 도상 창안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던 화사 의겸의 대표적인 나한도로서, 차후 조선 후기 16나한도의 모본이 되었다는 점과 불화 속에 수묵화의 기법을 도입한 의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5) 대웅전 후벽백의관음벽화

대웅전후벽백의관음벽화(大雄殿後壁白衣觀音壁畫)는 대웅전 중앙에 불단을 설치한 양고주의 뒷면 토벽 위에 한자를 덧바르고 그 위에 수월백의관음(水月白衣觀音)을 모신 벽화이다.

가로 340cm, 세로 390cm로 후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쪽 문을 열었을 때 굽어 살피는 듯한 모습은 펍 인상적이다. 약간 각이 진 듯한 관을 쓰고 푸른 연꽃 위에 왼발을 내리고 반가부좌한 상태로 모셔져 있고,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그리고 왼손은 오른쪽 발목을 가볍게 잡고 있다.

화면 오른쪽 상단 보살의 가슴 부위 약간 아래쪽에 감로병이 놓여 있고 그 위에 관음조가 앉아 있다. 그리고 보살의 무릎 부위 쪽으로는 남순동자가 관세음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있다.

조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대웅전이 1690년에 완성되었고, 후불탱화가 1693년에 이루어졌으며, 괘불탱화가 175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대체로 1760년 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6) 팔상전영산화상도

팔상전영산화상도(八相殿靈山會上圖)는 팔상전 후불탱화로 팔상전이 건립되고 50여 년 후에 모셔졌다. 흥국사 대웅전 영산화상도에 비해 매우 도식적



▲ 대웅전 후벽백의관음벽화

이다.

가운데 주불인 석가모니불께서 향마촉지인으로 앉아 계시며 우견편단의 가사를 입고 계신다. 광배는 구광과 신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존적으로 화염문이나 원형이 아니고 각이 지게 표현을 했으며, 다분히 도식적인 형태이다. 전체의 균형 면에서 약간 아래로 치진 듯 한 느낌을 준다. 팔상전 자체가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곳이므로 8상을 가장 잘 표현한 법회가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이므로 이 그림도 영산회상도이다.

7) 삼장탱

삼장탱화(三藏幀畵)는 2폭으로 조성하였는데, 한 폭에는 천장(天藏)·지지보살(持地菩薩)을 그리고 한 폭에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을 그렸다.

삼장탱은 세 보살이 화면의 주존으로 동시에 등장한다. 천장보살은 상계(上界), 지지보살은 음부(陰府), 지장보살은 명부(冥府)의 교주이다. 이들은 각각 하늘과 땅과 지옥을 주재하는 교주로서 삼계 신앙을 상징한다.

5. 여수 흥국사강희4년명동종

여수흥국사강희4년명동종(麗水興國寺康熙四年銘銅鐘)은 주종장 김용암(金龍岩)·김성원(金成元) 등과 더불어 사장계(私匠系)를 대표하는 김애립(金愛立)이 순천 동리산의 대흥사 종으로 1665년에 주성하였



▲ 흥국사 강희4년명동종

다. 높이가 121cm나 되는 대종으로 보물 제1556호이다.

종의 외형은 상부가 좁고 아래로 가면서 약간씩 벌어져 마치 포탄과 같은

모습을 하였다.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는 쌍룡(雙龍)을 종 고리로 삼고 천판에는 큼직한 연화문대를 돌렸다. 천판과 만나는 종의 어깨부분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 둘러져 있으며, 몸체에는 연곽대와 보살상 및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패(殿牌)가 마련되어 있다. 종신에 새겨진 문양은 전반적으로 섬세하고 화려하며 잘 정돈된 느낌을 보여준다.

이 종은 사인비구와 비금가는 기술적 역량을 지녔던 김애립 범종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인 동시에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6. 흥국사 홍교



▲ 흥국사 홍교

흥국사홍교(興國寺虹橋)는 1639년(인조 17)에 세워진 다리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무지개형 돌다리로서는 가장 높고 길며, 주변 경치와도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다리로서 보물 제563호이다.

계류(溪流)의 암반(巖盤) 위에 편단석(扁單石)을 놓고 그 위로 같은 형태의 장방형 각재(角材)를 중첩(重疊)시켜 홍예(虹霓)를 구성하고 앞뒤 양측벽(兩側壁)은 자연잡석(自然雜石)을 쌓아 완만하고 긴 노면을 형성하였다.

홍예의 종석(宗石)은 돌출한 용두각석(龍頭刻石)이며, 꼭대기에는 장방형 각석(角石)을 복개(覆蓋)하여 통행하는 하중(荷重)에 대비하고 있다. 홍예를 구성하는 돌은 총 86덩이이며 잡석을 쌓은 양쪽 석벽(石壁) 하류는 여유 있는 날개 모양으로 전개되어 수압 및 자체 하중에 견디도록 구축하였다.

홍예 밑 석축(石築) 위에는 흙을 쌓아 자연 노면을 만들었고, 그 양쪽 가에는 풀이 나서 평토노면(平土路面)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홍예 돌다리로서는 가장 높고 긴 것이라 하겠다.

7. 석등

석등(石燈) 1기가 대웅전 좌측 마당에 있다.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삼아 그 위에 귀부로 기단을 구성한 특이한 양식이다. 귀부 위에는 방형의 간주석을 세우고 다시 정방형의 화사석을 올렸는데 4곳에 화창(火窓)을 뚫었다. 그 위에 있는 옥개석에는 기와 골이 모각되었고 상륜부에 양화와 보주를 얹었는데 그 사이에 염주 알 모양의 띠를 돌려 장식하였다.

8. 부도

흥국사에는 12기의 부도(浮屠)가 있다. 조각의 양식으로 보아 1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질이 좋지 않아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종(鍾)형식이거나 옥개석을 한 형태여서 단순하고 순박하다.

배열된 순서는 우로부터 경서당(敬西堂)·응운당(應雲堂)·우룡당(雨龍堂)·응암당(應巖堂)·보조국사(普照國師)·호봉당(虎峰堂)·금계당(錦溪堂)·능하당(凌霞堂)·취해당(鷲海堂)·무명(無名)·중흥당(中興堂)·낭월당(朗月堂)의 부도이다.

9. 기문(記文)

- 1) 전라도순천부영취산흥국사사적(全羅道順天府靈鷲山興國寺事蹟)
- 2) 흥국사중수사적비(興國寺重修事蹟碑)
- 3) 흥국사사적참고문(興國寺事蹟參考文)
- 4) 영취산흥국사적묵당중창상량문(靈鷲山興國寺寂默堂重創上樑文)
- 5) 흥국사적묵당중창기(興國寺寂默堂重創記)
- 6) 흥국사사천왕중수개채기(興國寺四天王重修改彩記)
- 7) 청계암중창문(聽溪庵重創文)
- 8) 흥국사공북루중수기(興國寺拱北樓重修記)
- 9) 완문흥국사(完文興國寺)
- 10) 흥국사심검당아미타불개금중수본사동참질(興國寺尋劍堂阿彌陀佛改金)

重修本寺同參秩)

- 11) 영취산흥국사불사서문(靈鷲山興國寺佛事序文)
- 12) 흥국사보광전만일염불회설시서문(興國寺普光殿萬日念佛會設始序文)
- 13) 축대시주방명록(燭臺施主芳名錄)
- 14) 흥국사대웅전후불탱화불사자원금 방명(興國寺大雄殿後佛幀畫佛事自願金 芳名)
- 15) 흥국사대웅전창문개조공덕문(興國寺大雄殿窓門改造功德文)
- 16) 개금불사방명록(改金佛事芳名錄)
- 17) 천왕문사천왕상홍교중수기(天王門四天王像虹橋重修記)

제2절 향일암

1. 연혁

향일암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659년(의자왕 19년)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여수군지』 및 『여산지』의 기록으로 볼 때 원통암(圓通庵)이었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되었다.



▲ 향일암

조선시대에 와서는 임란을 거쳐 1713년(숙종 39)에 당시 돌산 주민들이 논과 밭 52두락을 헌납하여 그로부터 2년 뒤인 1715년(숙종 41) 인목대사가 향일암이라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일암은 금오산의 기암절벽 사이에 동백이 울창하여 남해의 수평선에서 솟아오른 일출광경이 천하일품이어서 향일암이라 명칭하였다.

사역(寺域) 내(內)에는 관음전, 칠성각, 취성루 등이 있는데 이들 건물은 모

두 1986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향일암은 인근에 있는 은적암과 함께 돌산 지역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찰이다. 2009년 12월 화재로 대웅전, 요사채, 종각이 전소 되었다.

2. 전각 및 문루

1) 대웅전

대웅전(大雄殿)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 팔각지붕이다. 내부 불단에는 1987년에 청동으로 조성한 석가모니불을 개금하여 주불로 모셨고, 좌협시는 관세음보살 우협시는 지장보살을 모셨다. 1988년에 그린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도 모셔져 있다. 2009년 12월 화재로 전소 되었다.



▲ 대웅전

2) 관음전(용왕전)

관음전은 종각 남쪽에 있는 전각으로 용왕전이라고도 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내부 중앙에 관세음보살상을 모셨고, 그 뒤에 관음탱화가 걸렸으며, 우측면에는 용왕도가 걸려 있다.



▲ 용왕전

3) 관음전

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향일암 내에서는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효 스님께서 창건하셨다는 원통암 자리가 바로 이 곳이다. 안에는 1991년에 구리로 조성하여 개금한 관세음보살상을 모셔 놓았고 구 뒤에는 금니(金泥)관음보살도를 걸어 놓았다. 전각 우측에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석조해수관음보살상이 있다.



▲ 관음전

4) 일주문

일주문은 1998년에 건립하였다. 화강암 석주는 둘레가 360cm이고, 높이는 300cm이다. 석주의 둘레에는 구름 사이에서 위아래로 서로 마주 보는 쌍



▲ 일주문

용을 돌을새김 하였다.

3. 불화

1) 관음전(용왕전) 관음탱화

좌우에 바위섬인 보타락가산이 있고 좌측 바위산 뒤편에는 대나무가, 우측 바위 위에는 버드나무가 꽃힌 감로병이 올려져 있다.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이 결가부좌한 상태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관음보살의 왼쪽에는 남순동자, 오른쪽에는 용왕이 그려져 있고 관음보살의 두광 오른쪽으로는 염주를 문 관음조가 날고 있다.

2) 관음전(용왕전) 용왕탱화

의자에 앉아 있는 용왕이 시동들과 함께 용궁에서 오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맞이하는 형상이다. 관세음보살은 바다 위 구름 속에서 해태의 등에 반가부좌하고 앉아 있는데 양손에 연꽃을 들고 있고, 그 옆 우측에서 용이 호위를 하고 있다.

4. 범종

대웅전 마당 우측에 마련된 종각에 걸려 있다. 하대에 물고기와 거북이가 이어지는 문양을 새겼다. 종고 184cm, 종구 114cm, 천판지름 77cm, 상대 폭 15.5cm, 하대 폭 18cm, 당좌 지름 25.5cm 이다.

5. 기문

- 1) 화주창원황학모기공비(化主昌原黃鶴模紀功碑)
- 2) 취성루개축시주비(就成樓改築施主碑)

- 3) 향일암사적비(向日庵事蹟碑)
- 4) 일주문 및 계단 시주자 공덕비
- 5) 산신각 불사 시주록
- 6) 수륙대회모연문(水陸大會募緣文)

제3절 은적암

1. 연혁

은적암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호로 『여수군지(麗水郡誌)』와 『여산지(崖山誌)』 등의 기록에 의하면 1195년(고려 명종 25)에 송광사의 정혜결사를 일으켰던 보조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보조국사가 이 무렵을 전후하여 흥국사를 비롯하여 이곳 다도해의



▲ 은적암

경관을 보고 운수행각을 벌였을 법한 곳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는 20세기 초(1918년)에 조성된 후불탱, 칠성탱, 산신탱 등이 있고 건물로는 대웅전, 관명루, 칠성각이 있다. 특히 관명루는 세 번에 걸쳐 개수된 상량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1618년(만력 무오), 1790년(건륭 55년), 1857년(합풍 7년 정사) 등이 그것이다.

이 건물이 정유재란 때 소실되지 않고, 이때 개수된 것이라면 은적암은 임란의 훨씬 이전부터 사찰이 존속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전각 및 누각

1) 대웅전

인법당(人法堂)으로 사용하던 작은 건물을 198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고쳐 짓고 1988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전면 4칸, 측면 2칸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며 막돌 허튼층 기단위에 막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전면은 원형기둥, 후면은 사각 기둥을 세우고 차방과 주두, 장혀, 도리를 차례로 결구하였다. 공포는 중심포계의 2익공식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인데 우측은 바람막이 판이 있는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2) 칠성각

칠성각(七星閣)은 맞배지붕에 전면 3칸, 측면 2칸의 크기이다. 내부에는 1918년에 봉안한 칠성탱화, 산신탱화와 1986년에 봉안된 독성탱화가 모셔져 있다.

3. 불상 및 불화

1) 아미타불상

1988년 대웅전 불당을 새로 조성하고 주불로 모셔 놓은 동조아미타불좌상이다. 얼굴의 표정이 근엄하고 고개를 바로 들고 있어 단정한 느낌을 준다. 가사는 통견이고, 중품중생인의 수인을 맺고 있다. 조성 연대는 1741년으로 전해 오고 있다.



▲ 아미타불상

2) 석조지장보살좌상

이 불상의 재료는 옥돌이고, 가사는 통견에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1976년 서보월 스님이 조성하였다.

3) 후불탱화

붉은 바탕에 황금색 선으로 그려진 이 탕화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시립하고 있다. 아미타불 뒤에는 두 분의 승상만 그려진 아주 단순한 구도이다. 아미타불은 중품중생인 수인을 맺고 있고, 관음보살은 연꽃을 지장보살은 석장과 여의주를 들고 있다. 조성 시기는 대정 7년(1918)임을 화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후불탱화

4. 범종

불기 2542년(1993) 3월 3일에 주조한 범종으로 종고 198cm, 용두 48cm, 종구 114cm의 크기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었다.

대웅전 마루 기둥에는 1960년에 조성한 소종이 있다.

5. 기문

- 1) 은적암중창상량문(隱寂庵重創上樑文)
- 2) 은적암칠성산제각중건상량축사(隱寂庵七星山祭閣重建上樑祝辭)
- 3) 은적암칠성산제각중수기(隱寂庵七星山祭閣重修記)
- 4) 은적암중수의연취지문(隱寂庵重修義捐趣旨文)
- 5) 은적암사적(隱寂寺史蹟)
- 6) 은적암사적비(隱寂寺事蹟碑)
- 7) 은적암범종불사권선문(隱寂寺梵鐘佛事勸善文)

제4절 석천사

1. 연혁

석천사는 임진왜란(1592~1598)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에 지어졌다. 그러나 상세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 창건 당시와 이후 300여 년간을 좌수영과 함께한 기록들을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 대략의 역사를 알 수 있다.



▲ 석천사

로 남아 있어 대략의 역사를 알 수 있다.

2. 임진왜란과 석천사

임란 당시 참전했던 300여명의 의승 수군들 중에 승군 대장 역을 하셨던 옥형, 자운의 두 분 스님이 계셨는데 자운스님은 화엄사가 출가 본사로 서산대사와 부휴선사와도 교분이 두터웠으며, 당시 교·선 양과 가운데 교과의 최고인 화엄대선의 과거에 합격한 뛰어난 학승이었다.

임란 발발과 함께 조카 상좌인 벽암각성(뒤에 승군팔도총섭으로 남한산성을 구축한 분)과 함께 해전에 참전했으며, 옥형스님의 기록은 거의 없어 알 수 없으나 자운스님과는 속가의 형제분이라는 불가의 전언이나 또한 석천사에서 옥형과 자운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3월 중순 정일에 제사지낸 연유 등을 보면 매우 가까운 분이였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3. 전각

1) 대웅전

1980년대 소실된 후 정면 3칸 측면 3칸의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충민사 정화사업 때 사찰의 원래 위치가 바뀌었다. 내부에는 삼존불을 모시고 그 뒷벽에 삼존탱화를 모셨다. 그리고 좌측에는 지장탱화가 모셔져 있다.

2) 의승당

대웅전 왼편에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주지실과 도서실이 있다.

4. 불상 · 불화

1) 삼존불상

중앙에 석가모니불, 그 좌측에 약사여래, 그리고 우측에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모두가 좌상이다. 석가모니불은 우견편단에 항마촉지인을 맺었으며, 약사여래의 납의는 통견인데, 왼손에 약합을 들고 있다. 아미타불도 통견의 납의에 수인은 하품중생인을 맺고 있다.



▲ 관음불상

2) 해수관음보살상

대웅전 오른쪽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해수관음보살석상은 1996년 7월 10일에 조성 점안한 것이다.

두 마리의 사자석상 뒤쪽에 서 계시는 중앙의 관음보살은 4각의 높은 기단을 마련하여 각 면에는 2분식의 사천왕과 신장을 모셨다. 그 위로 방형의 3단의 받침과 반원형의 복련과 양련의 2단 대좌를 차례로 올린 후 관음상을 모셔 놓았다. 왼손에는 감로병을 그리고 머리 위에는 화관을 쓰고 있는데 화관에는 아미타화불이 모셔져 있다. 구 뒤쪽으로 형태의 석벽을 쌓아 소형의 불상



▲ 해수관음보살상

을 모서 놓았는데, 정면에는 12단, 좌우에는 10단으로 되어 있다.

3) 후불탱화

삼존불 뒤에 모셔진 이 후불탱화는 중앙에 석가모니불 그 왼쪽에 약사여래 그리고 오른쪽에 아미타불이 앉아 계신다. 삼존불 좌대 아래로 보살과 사천왕을 그렸고, 삼존불 뒤로 두 분의 보살과 여러 성중을 그렸다. 이 탱화는 서기 1985년에 금어 이진경이 그렸다.

4) 지장탱화

중앙에 지장보살이 반가부좌를 하고 오른손에 석장을 쥐고 앉아 있는 형상인데 신광과 두광에는 화염무늬가 있어 특이하다. 전체적인 구도는 4단으로 구성하여 좌우가 대칭 되게 하였다. 하단의 2열까지는 좌협시 도명존자 우협시 무독귀왕 그리고 사천왕과 명부의 시왕들이 서 있다. 그 위로는 좌우에 녹사와 6대보살 그리고 명부의 성중을 표현하였다.

5. 범종

1983년에 주조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범종모형을 그대로 본떴다. 종의 상대 아래 4곳에 유곽을 마련하고, 그 안에는 각기 9개의 종유가 있으며, 종신 중앙에는 공양상 2구가 있고, 그 아래로 하대 바로 위 두 곳에 당좌를 마련하였다.

제5절 용문사

1. 연혁

용문사의 창건에 대하여 현재 전하는 유일한 기문인 노영기의 「용문암중수

서(龍門庵重修序)』에는 ‘신라갑자조창(新羅甲子肇創)’이라 기록과 “영조 37년(1761)과 현종 12년(1846)에 각각 중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용문사

이 사찰의 안내판에는 “신라 효소왕

원년(692) 당나라 고승 도증법사(道證法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적혀 있다.

이 절이 문헌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일제강점기 태고사 사법(太古寺佛法)에 의해서다. “여수군 화양면 용문산 대본사 선암사 말사”라 한 것으로 보아 1911년 6월 사찰령이 제정·반포된 이후 순천 선암사에 소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14년 비구 경담(景潭)에 의해 이 절의 역사는 비로소 분명해진다. 그는 동지 20~30인과 함께 대시주 이기열(李基烈)과 화양면민들의 도움으로 인법당을 건립하였다.

그 후 1962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등록하고, 1964년 2월에 부임하여 26년간 혜월(慧月) 스님에 의해 사세가 확장되었다. 그는 법당 중수는 물론 화양면사무소의 건물을 옮겨와 관음전을 짓고 칠성각 요사채를 새로 건립하였으며 1981년 11월에는 범종을 주조하고, 1988년에는 종각을 세워 절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현재 용문사의 모든 전각은 1999년 2월에 부임한 주지 성문(聖門)스님에 의해 추진된 불사로 2008년까지 대웅보전, 관음전, 삼성각, 연화당, 설선당의 불사가 마무리되었다.

2. 전각

1) 대웅보전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 팔작지붕이다. 내부 불단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셨고, 좌협시는 관세음보살, 우협시는 지장보살을 모셨다. 후불탱화 대신 천불상을 모시고 있다. 좌측 벽에는 신중탱화(神重幀畵)가 모셔져 있다.

2) 관음전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옛 관음전의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龍門庵'이라는 소형 편액과 용문암 중수서(龍門庵重修序), 중수원운(重修原韻)이 걸려있다.

3. 대웅전신중탱화

대웅전신중탱화(大雄寶殿神重幀畵)는 검은색 바탕에다 황금색 선을 주로 사용한 금니(金泥)로 채색하였다. 가사도 채색이 거의 없이 연한 노란색이다. 불기2546년(2002)에 조성하였다.

4. 기문

- 1) 용문암 중수서(龍門庵重修序)
- 2) 중수원운(重修原韻)
- 3) 혜월대사공로기념비(慧月大師功勞紀念碑)

제6절 한산사

1. 연혁

한산사(寒山寺)는 고려 명종 24년 보조국사가 창건하였다 한다. 창건 이후

의 자료는 1820년 정집원(丁輯愿)이 쓴 「한산사중창서(寒山寺重創序)」 뿐이다. 이 중창서에 초창자를 보조국사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영조 때 제작된 것이라고 전하는 동종이 있다. 1403년(태종 3)에 시학대사(始學大師)가 다시 세우고 1931년 김환해



▲ 한산사

가 개축하였다는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태고사사법에는 선암사 말사로 되어 있는데 그 후 1968년 11월 1일 조계종으로 다시 등록하고 이듬해 5월에 단청 및 보수를 하였다.

2. 전각

1) 대웅전

전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다. 내부에는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그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지장보살좌상을 모시고 있다. 상단 중단 하단에는 각각 탕화를 모셔 놓았다.

2) 용왕각

대웅전 왼편에 있는 이 용왕각은 육모지붕의 육각형 전각이다. 내부에는 목각 용왕탱이 걸려 있다.

3)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한 건물에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의 현판을 걸었다. 내부의 중앙에는 불단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뒤 괘불은 치성

광여래를 모셨다. 왼쪽에는 목조 산신상이 모셔져 있고, 산신행화가 걸려 있다. 우측에는 나반존자가 모셔져 있고, 나반존자 탕화가 걸려 있다.

4) 범종

한산사 마당 오른쪽에 위치하며 1982년에 주조한 범종이 있다. 범종은 종신에 '九鳳山 寒山寺'라고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8판 연꽃으로 된 당좌가 있다. 당좌 바로 아래의 하대는 흔히 볼 수 있는 당초문으로 되어 있으나 상대는 아주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상대에 붙어있는 유곽 아래에는 연꽃을 들고 연화대 위에 서 있는 2구의 보살입상이 있다. 종신의 나머지 공간에는 시주자 이름으로 뿔뿔하게 채워져 있다.

3. 불상 · 불화

1) 대웅전 삼존불상

붉은 색의 화려한 달집 안에 모셔진 석가모니불은 향마촉지인을 맺고 있으며,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통견으로 각각 연꽃과 육환장을 들고 있다.

2) 후불탱화

영산회상도인 이 후불탱화는 법화경을 설하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설법을 듣는 보살대중과 제자들을 배치하였다.

목탱인 만큼 테두리도 모두 목재로 두르고 연 꽃을 조각한 화려한 이 후불탱화의 크기는 가로 320cm, 세로 230cm이다.

3) 신중탱화

법당 좌측 벽에 모신 이 탕화는 화면 전체에 구름이 가득 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날개가 달린 투구를 쓴 동진보살이 중앙에 모셔져 있다.

4. 한산사 종

이 종은 약사전 종무소 옆에 있다. 절에서는 조성연대는 조선 1750년(영조 26)에 주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명문도 없고 기록도 없어 확실하지 않다. 여수8경의 하나인 ‘한산모종(寒山暮鐘)’은 바로 이 종을 지칭한 듯하다.



▲ 한산사 종

쌍용뉴에 입상대가 있으나 상대가 없다. 종신 중앙 약간 아래로 유관(4)과 보살입상(4)을 차례로 새겼고 그 아래쪽으로 하대를 돌렸으며 위쪽으로는 보살입상과 유관 사이 상단에 범자와 위패형 문양을 각각 두 군데 새겨 조선 후기의 양식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위패 안에는 기원문이 생각되어 있다. 크기는 종고 80cm, 종구 62cm이다.

참고문헌

-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해인기획, 1998.
 신영훈, 『절로 가는 마음』, 책 만드는 집, 1994.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동광인쇄소, 1982.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문화재도록』, 동아기획, 2001.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이레기획, 2007.
 진 옥, 『호국의 성지 흥국사』, 동쪽나라, 1991.
 한국박물관회, 『한국의 박물관』, 문예마당, 2000.
 최성렬, 『여수시의 불교유적』, 『여수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제 9 장

기독교 유적

주 정 철 (여수그리스도의교회 목사)



제1절 장천교회

울촌면 조화리 139번지에 위치한 장로파 교회로 1905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전남 동부지역의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 등 3시 4군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어 여수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기독교를 포교하는 중심교회가 되었다.

장천교회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울촌면 장천리의 유지 조일환, 이기흥, 박경주 등이 자유로운 삶을 찾아 만주로 가던 도중 미국인이 경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후 낙향하였다. 목포선교부에 찾아가 더 깊은 진리를 전수받고 1905년에 조일환 씨 집에서 선교사인 변요한³⁶⁾ (1910년 Rev. John Fairman Preston) 목사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장천교회가 설립되었다.

36) 존 F.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은 1875년 미국 조지아에서 출생하여 테네시주의 킹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03년에 대한하여 변요한(邊杓煥)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고, 1940년까지 37년간 목포·광주·순천 등 호남 지역에서 선교사와 교육자로 활동하며, 호남지역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초가 12평의 작은 규모였지만 창립초기부터 인근의 교회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는 사설 여흥학교를 열어 관내 주민을 위한 근대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924년에 건축된 예배당 건물은 화강석으로 2층의 벽체를 쌓고 목조트러스로 지붕을 구성한 것으로 장천 교회의 최초의 석조건축물이기도 하다. 지상 2층으로 화강석 벽체에 목조 트러스로 지붕틀을 구성한 전형적



▲ 장천교회 전경

인 교회 건축양식이지만, 정면 종탑 아치창의 목조프레임에 보이는 세공수법과 좌우 계단 위 출입구 상부의 목재 캐노피, 그리고 캐노피 달대동자 등은 인근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디자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장천교회는 우리나라 근대 교회의 성립과 당시의 건축 양식을 온전히 전해주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로 교회사적·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장천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근대문화유산 제115호로 등록되어 있다.

제2절 여수제일교회

1906년 12월 10일에 경상도 부산 동래로부터 김암우 여사가 여수에 와서 서정(현재 군자동 1번)에다 초가 한 칸을 빌려 복음을 전하면서 여수읍교회라 이름 하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 2월 5일 울촌에 조의환 조사³⁷⁾가 부임하여 여수교회(현재 고소동

37) 조사는 유촌의 전도사의 옛 이름이다.

여수제일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19년 5월에 군자동 목조건물을 신축하여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여수지방의 선교모체가 되어 농어촌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수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제3절 우학리 교회



▲ 우학리교회 전경

남면 우학리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이다. 1906년 4월 5일 여수군 남면 우학리 322번지에서 안돌영·김문옥의 두 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본 것을

시작으로 우학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학리교회는 순수하게 이 지역 유지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라는데 의의가 있다.

초대 전도인인 최진막 조사의 1908년 4월 5일 설립 예배를 계기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후 처음에는 목포 주재 맹혈리 선교사가 목회 활동을 하였으며 1913년 순천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설치되면서 그곳 소속인 변요한 선교사가 우학리 교회의 초대 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교세를 확장하게 됨에 따라 1915년 4월 66㎡ 규모의 예배당을 마련하고 2대 교역자로 강병담 조사를 청빙하였다. 강병담 조사는 이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1925년 3월 중국 건축 기술자를 고용하여 적벽돌로 된 99㎡의 변식 스타일로 지어진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1932년 5월 김문옥이 초대 장로로 장립되어 초대 당회가 조직된다. 1938년 1월 이기풍 목사가 5대 교역자로 자청하여 부임하였다. 1938년 9월에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지만 우학리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194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는 장년자의 출석수가 3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부흥하였으며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낳는 산과 역할을 하였다. 1970년 4월 제1차 예배당 증축 공사를 하였고, 1976년 12월 제2차 증축을 통해 연면적 528㎡의 2층 건물로 완공하였다. 2001년 7월 예배당 외벽을 적벽 돌로 치장하여 쌓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된 후 순교한 이기풍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주위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회 건립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4절 애양교회

애양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수노회 소속 교회로서 애양원의 부속 전도실로 출발하였다. 애양교회 건물이 신축된 것은 1926년이지만, 그 연원은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 애양교회 전경

1909년 4월 목포에서 활동 중이던 포사이트(Willey H. Forsythe) 의료 선교사가 광주로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한센병 환자를 광주 제증원 벽돌 가마터에서 치료하게 된 것이 서양 의학에 의한 나환자 치료의 효시였다.

이것이 미국인 윌슨(Robert M. Wilson) 의료 선교사에 의해 1911년 4월 25일 당시 전라도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설립된 광주 나병원으로 계승되었고 1913년에는 최초로 나병원 교회가 설립되었다. 광주에서 번창하던 나병원

과 교회는 1926년 울촌면 신흥리 일대로 옮겨와 미국인 선교사 포사이트의 주도로 애양원과 애양교회가 신축되게 되었다.

1939년 애양교회에 부임해 헌신적인 목회활동을 하던 손양원 목사가 일제의 신사참배정책을 거부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손양원 목사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28일 공산군에 의해 순교했다. 손양원 목사를 기리기 위한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이 울촌면 신흥리 13-207번지에 1994년 3월 27일 건립되었다.

애양교회의 이름은 '성산교회'로 바뀌었다. 신도들인 한센병 1세대 환자들이 모두 고령이어서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센병과 무관한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애양교회는 잦은 증축과 개축으로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건물의 기본적인 골격과 개구부 등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935년에 예배당을 재건하였고, 1979년 개축시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였다.

1980년 이후 목조였던 보와 기둥을 철근콘크리트로 개조하였고 층고를 높이기 위해 벽면 상부에 석재를 4단 정도 더 쌓아 올렸다. 애양교회는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애양병원 건물과 함께 서양 선교사에 의해 건축된 건물로서 우리나라 의료 선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2002년 5월 31일 등록문화재 제32호로 등록 관리되고 있다.

제5절 돌산봉양교회

1909년 봉양리 정수봉 씨가 남면 우학리에 사업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맹혈영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어 1910년 1월 5일 봉양리 419번지에 12평의 예배처를 마련하고 봉양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때 성도들은 정수봉, 강기현, 김용배 가정이었으며 우학리교회를 선교하며 섬기던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하여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마을을 선교하게 되었다.

또한 6.25 당시에는 여수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봉양교회 성도들도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돌산 군내리 읍소재지로 끌려가 여수로 나가는 배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산을 넘고 군내리로 모이

는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지 않은 것이 배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다행히 순교를 면할 수 있었다.

지금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하여 마을 주민의 수는



▲ 동신봉양교회 전경

약 70호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 복음화는 80%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교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봉양교회 출신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도 10명이 넘고, 초대 3명의 장로를 시작으로 지금은 4대에 이르는 장로가 시무하고 있으며, 1951. 10. 24에는 금천교회를 분리 개척하여 선교사역에도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20년사 편찬위원회, 『여수노회20년사』, 2001.
- 50년사 편찬위원회, 『여수중앙교회 50년사』, 1996.
- 가평군지편찬위원회, 『가평군지』, 2006.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 2005.
- 애양원 100년사 간행위원회, 『구름기둥 불기둥』, 2009.
- 『애양원과 손양원 목사』, 애양원, 2005.
- 『여수노회 순교자기념위원회 자료』, 순교자기념위원회, 2000.
- 크리스천대전 편찬위원, 『크리스천대전』, 1983.
- 한국기독교지도자 강단, 『손양원』, 2009.
- 교회연구사, 『한국 카톨릭 대사전』, 1989.
- 카톨릭대학교, 『CBCK 한국주교사』

제 10 장

유지 (遺址)

노 희 구 (여도중학교 교사)



제1절 선소

선소(船所)는 병선(兵船)이나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조운선(漕運船)의 정박처, 선박의 건조와 수리장소, 수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보관소, 외적을 경계하는 조망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곳이었다.³⁸⁾

여수 지역의 선소로는 중앙동의 좌수영 선소, 시전동의 여천 선소, 돌산읍의 방답진 선소 등이 있었다. 이들 선소에서는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종 병선(兵船)들을 장기간에 걸쳐 건조하여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란 당시 거북선이 몇 척이었는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왜란 때 박동량(朴東亮)이 지은 『기재잡기(寄齋雜記)』에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장수 백 여 명을 뽑아 세 거북선에 갈라 태워 적선 속으로 드나들며 날아가듯이 빨리 달리므로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 거북선

38) 류청규, 『조선시대 선소의 설치와 운영』 『조선시대의 거북선과 선소』, 2008, 22~42쪽.

제작 때 감독자였던 군관 나대용(羅大用)에 대해 『나주목지(羅州牧志)』에서 “나대용은 이순신에게 종사해 거북선 세 척을 꾸며 왜적을 무찌른 공로로 뒤에 경기 수사로 승진되었다.”고 나와 있는 점, 일본의 『군마지기』에도 큰 배들 가운데서 세 척이 쇠로써 장식했다고 적혀 있는 점, 이순신 함대의 귀선(龜船) 돌격장 임무를 띠었던 사람 이름이 불과 두 세 명으로 나타난 점, 당시 거북선 총 건조 기간이 불과 1년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왜란 당시에 거북선은 세 척이 건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³⁹⁾

확실한 문헌으로 고증할 수는 없지만, 세 척의 거북선은 세 곳의 선소에서 한 척 씩 건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영귀선(營龜船), 방담귀선(防沓龜船), 순천귀선(順川龜船)이라고 명명(命名)되고 있다.

1. 좌수영 선소

좌수영 선소(左水營 船所)는 진남관 앞 망해루(望海樓) 밖의 해변에 위치했던 선소로 ‘본영선소(本營船所)’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시가지 조성을 위한 매립으로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⁴⁰⁾

고지도를 살펴볼 때 전선과 병선들이 정박하던 굴강(掘江)은 중앙동 492번지 부근에서 과거에 중앙극장이 있던 곳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라좌수영 선소는 전라좌수영성의 바로 앞에 위치한 선소라서 규모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매우 컸을 것이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좌수영선소 주변에 석인 7구(軀)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그 중 1구의 석인(石人)만이 남아있으며, 진남관 구내로 옮겨져 지방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고노(古老)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1920년대~1930년대 무렵에 이곳에서 구선(龜船)의 잔해가 보였는데 왜인들의 시가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로 없어지고 말았다 한다.⁴¹⁾

2. 여천 선소

여천 선소(麗川 船所)는 시전동 708번지 일대의 해변에 위치해 있다. ‘순천부 선소’⁴²⁾, ‘시전동 선소’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1995년 4월 20일 국가

39) 김홍대, 『여해 이순신』, 2008, 68쪽.

40)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1992, 34~35쪽.

41)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1992, 35쪽.

42) 순천부선소로 불리게 된 것은 1396년(태조 5)에 이수현이 패현되어 순천부에 흡수 합병된 후 순천부 직속의 선소였기 때문이다.

43) 조성도 외, 『이충무공유적지 선소 문헌고증보고서』, 18쪽.

44) 동백개 편집부, 『한려수도와 제주도』, 1998.

사적 제 392호로 지정되었다.

여천 선소는 가막만(駕莫灣)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선소의 바다 입구에는 가덕도와 장도가 여천선소의 방패 구실을 하고 있다. 바다에서 볼 때 잘 노출되지 않으며, 심한 파도가 닿지 않는 선소로서 적합한 지리적 장점을 가진 곳이다.

여천 선소 주변의 포구 전체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장생포(長生浦) 또는 장성포(長省浦)라 불렸다.⁴³⁾ 장생포는 고려 말 공민왕 때 유탁(柳濯) 장군이 왜구를 격퇴하여 왜구 방어의 중심지로 부각된 곳이다.⁴⁴⁾ 『고려사』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는 공민왕 때 왜구가 순천부의 장생포를 침범하자 전라만호 유탁이 출진했는데, 왜구들이 위엄과 은혜를 겸비한 유탁을 보고 도망가자 군사들이 매우 기뻐하며 「장생포가」를 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1479년(성종 10) 전라좌수영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여수지역의 중심지는 백제 이래로 여수지역의 치소(治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창성 주변 일대였을 것이다. 따라서 장생포는 석창성 주변에 형성된 여수반도의 중심지역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길목으로 선박의 출입도 많았을 것이고, 미곡(米穀)이나 물자를 약탈하고자 접근하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던 위치였을 것이다. 왜구 방어의 필요성이 높은 요충지라는 판단에서 이곳에 선소가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0년 해군사관학교와 1985년 명지대학교에서 발굴조사 한 결과 총 565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발굴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전선 등을 만들고 수리하며 배를 대피시키던 굴강(掘江), 칼과 창을 만들던 '풀못간', 칼과 창을 갈고 닦았던 '세검정(洗劍亭)', 무기를 보관하던 무기고(軍器庫) 등이 복원되어 있다.

1) 굴강

복원된 굴강은 직경 40m 내외의 원형으로 거북선 두 척이 들어갈 만한 규모이다. 깊이는 석축 상면에서 5~6m 정도로 추정된다. 굴강 북쪽 입구는



▲ 굴강

폭이 약 9m이고 둘레에 쌓았던 석축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굴강 내부의 한 곳과 입구 동서 양쪽에 노출된 허부에 남아 있는 석축은 굴강 석축의 바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높이는 1m 정도이다.

석축에 쓰인 석재는 대개 40~50cm의 자연석과 깎돌(割石)을 사용하였다. 쌓는 방법은 자연석을 막쌓기로 하고 뒤채움은 특별히 보강한 흔적이 없으며, 석축 후 남은 돌과 흙을 같이 채운 것으로 추측된다. 굴강 내부 석축은 굴강 중심을 향해 약 50~6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완만한 반면, 입구와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급하다.⁴⁵⁾

45) 이정훈, 「시전동 선소」 『다지탈 이수 문화대전』, 2008.

2) 계선주

복원된 세검정 건물 앞에 위치한다. 크기는 높이 140cm, 방형 밀면의 한 변 길이가 32cm 정도이다. 이 계선주에 거북선과 판옥선을 매어 두었다고 구전되어 왔는데 그 위치가 선소의 해상입구의 초소적(哨所的)인 위치이고 해안선이 돌출한 지점에서 있는 것으로 보아 해안 벽수로 추정하기도 하나, 현재는 배를 묶는 계선주 역할을 하고 있다.



▲ 계선주

3) 세검정

임란 당시 수군관계의 건물이었던 것이 임란 후 보수 또는 개축되어 세검정으로 이름 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건물의 장축은 동서로 되어 있고 초석의 전체배치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잔존한 초석의 기둥 간격(柱間)을 보아 최소한 정면 7간에 길이 15.8m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세검정

현재 복원된 세검정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1칸의 북향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산기슭에 인접해서 북쪽 해안을 향하고 있다.

4) 풀무간

풀무간은 균기제작과 수리가 이루어진 곳으로써 집수구와 단조루가 발견되었는데 집수구는 남쪽 면은 자연 암반층인데 비해 북쪽 면은 인공의 흔적이 보이고, 암반구덩이의 중심부분에는 원암반층(原岩盤層)내에 있었던 직경 10~20cm의 자갈(礫石)들이 여러 개 빠져 있으므로 인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풀무간

암반구덩이에서는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 나오므로 수조로는 아주 적합한 경우이며, 또한 단조철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급냉 열처리 있어서도 용이한 물의 공급이 필요하기에 단야로가 이곳에 위치한 것도 그러한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조루는 암반구덩이에서 북동쪽으로 3m 떨어져 있는 장타원형 유구로 현 지표하 70cm에 해당하고 단조로의 크기는 105×50cm 규모인데 현재 잔존하고 있는 부분은 노의 바닥 층과 노역의 일부이다.

현재 유구외곽을 따라 3개의 돌이 놓여 있는데, 노 바닥층 외곽 테두리선을 따라 약 5cm 너비로 모래층이 일부 둘러져 있고, 단조로 남쪽 40cm 지점에는 모루돌로 보이는 2개의 납직한 돌(직경 : 40cm 두께 15cm 정도)이 있는데, 이 돌 주변에는 목탄과 소량의 단조박편, 단조 과정 중의 철 소재 등이 보인다.

3. 방답진 선소

방답진⁴⁶⁾은 전라좌수영 관할을 받던 5포(浦)⁴⁷⁾ 중 하나이다. 방답진 선소(防踏鎭船所)는 돌산읍 군내리 980번지와 987번지 일대로, 과거 방답진성의 서문(西門) 밖의 위치에 해당한다.

46) 방답진은 1523년(중종 18) 설치되었고 청사(淸沙使)를 두었다고 한다. 1895년(고종 30)에 폐진될 때까지 약 370여 년간 존속하였다.

47) 왜란 두렵 전라좌수영은 5관(官) 5포(浦)를 관할하였다. 5관은 순천부, 낙안군, 보성군, 흥양현, 광양현의 다섯 고을이며, 5포는 방답진, 고흥반도에 위치한 여도진, 서도진, 발포진, 녹도진을 말한다.



▲ 방담진 선소

과거 방담진 첨사가 임금님께 그려 바친 수군 전략 지도에는 굴강, 수군(水軍) 무기고,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장하는 즈물고(汁物庫), 세검정 등이 나타나 있다.⁴⁸⁾ 현재 방담

진 선소가 있던 곳의 주변에는 민가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 유적은 없어지고, 전선을 건조·수리·정박하던 굴강(掘江)만 비교적 원형(原形)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다.

『호남읍지(湖南邑誌)』에 의하면 전선 2척, 병선 2척, 협선 4척 등 전선 8척과 군관 50명, 기패관 25명, 진무 45명, 지인 25명, 군노 25명, 기수 50명, 사령 25명, 사생 50명, 화포장 22명, 포수 68명, 사공이병 18명, 능노군 302명 등 수군 장졸 705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2절 도요지

1. 신평리 백자 가마터

울촌면 신평리(新豐里) 신산마을 뒷산의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남쪽의 뒤로 난 산길을 따라 20여 분간 올라가면 산 아래 구릉이 있다. 구릉에 올라서면 비교적 넓고 평탄한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잘 정돈된 민묘(民墓)들과 당산나무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요지는 당산나무를 기준으로 서쪽 산등성이에 만들어진 작은 길을 따라 500m 쯤 들어가다 보면 길과 인접한 산기슭 자락에 있다.

48) 이정훈, 『방담진 선소』 『다자발여수문화대전』, 2008.

도요지 주변에는 '광산이공영호지묘(光山李公永鎬之墓)'가 있고 그 주변에서 도자기 파편이 수습되고 있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 접시, 바래기, 잔 등이다. 조선시대 17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장리 가마터

울촌면 가장리(佳長里) 저수지의 동남쪽에 있는 도로를 따라 150여m 정도 올라가다보면 길옆 오른쪽의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가마터가 자리한 곳은 이 지역의 골재채취를 위한 돌산 개발로 파괴되었으며, 길가 또는 언덕 위의 흙더미 위에서 도자기 파편의 일부만이 약간씩 수습되고 있다.

이 도요지에서 수습된 그릇의 종류는 발, 대접, 된 접시, 잔, 바래기, 병 등이다. 대체로 조선시대 17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백자들로 보여 진다.



▲ 가장리 가마터

3. 취적리 백자 1호 가마터

울촌면 취적리(吹笛里) 산 177번지 일대에 있으며, 국사봉 아래 넓게 형성된 분지에 해당한다. 현재는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유적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취적리 산 177번지에 존재하는 3기의 가마터 가운데 하나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허이부씨 집으로부터 북쪽으로 150m지점이다. 이 도요지에서 수습된 백자들의 종류에는 발, 대접, 접시, 바래기, 잔 등이다. 조선 시대 후기에 제작된 백자들로 보인다.

4. 취적리 백자 2호 가마터

울촌면 취적리(吹笛里) 산 177번지 일대에 있으며, 허이부씨 댁에서 남쪽 골짜기로 향한 소로를 따라 약 50m 정도 나아가면 최근에 밭으로 개간한 넓은 평지가 있다.

이 도요지는 산의 비탈면을 깎아 만들어 소로에서 밭까지의 높이 차이가

심하다. 가마터는 발 개간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도요지에서 수습된 백자조각들로 보아 발, 대접, 접시, 바래기, 잔 등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백자들로 보인다.

5. 취적리 백자 3호 가마터

울촌면 취적리(吹笛里) 산 177번지 일대에 있으며 취적리 2호 가마터에서 남쪽으로 향한 작은 길을 따라가면 수암산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이곳에 민묘 1기가 있으며 이 뒷산 경사면에 도요지가 자리하고 있다. 매우 많은 양의 백자 파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땅 밑에 잘 보존된 도요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발견된 백자 조각으로 보아 대접, 접시, 잔 등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백자들로 보인다.

6. 봉두리 백자 가마터

소라면 봉두리(鳳頭里) 상의곡 마을에서 북쪽으로 향한 계곡을 따라 올라 가다보면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는데 바로 이곳 묘지의 입구 쪽의 포장된 갈림길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파괴되어 길가의 깎여진 단면과 바닥에서 일부의 파편이 확인되고 있다.

도자기 파편으로 보아 대접, 접시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백자들로 보인다.

7. 사곡리 분청사기 가마터

소라면 사곡리(沙谷里)는 '사곡', '사기막골'이라 과거에 불리던 마을로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사곡리 도요지는 마을 북쪽 송전탑이 있는 산 경사면에 있다.

발견되는 도자기 파편을 수습하여 본 결과 고려 말부터 쇠퇴하던 청자를

제송하여 만든 분청사기의 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 고려청자와 거의 같은 질의 회청색 또는 회흑색 태토로 빛은 그릇 표면을 분장하고 그 위에 유약을 입혀 구워낸 것이다. 청자 모양을 기초로 하지만 청자에 비해 색이 밝아지고 유약도 청자보다는 얇어 전체적으로 밝은 회청색을 띤다.

조선전기인 15~16세기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곡리의 분청사기는 주로 16세기경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약에 도자기를 흙백 담그는 덩빙 기법을 사용한 덩빙분청으로 보이나, 도자기 표면에 돼지털이나 말총으로 묶은 큰 붓으로 문양을 낸 귀얄분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제작된 도자기 종류는 발, 대접, 접시, 바래기, 대발 등이다.

사곡리 분청사기의 특징은 태토는 모래와 다른 물질이 섞인 거친 것이며 청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 또는 회흑색을 띤다. 그릇의 두께가 얇고 그릇의 주둥이 부분은 대부분 밖으로 굽어져 있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포개서 굽기 위한 받침으로 흙과 모래를 섞어 빛은 조그마한 덩어리 6~7개를 사용하였다.⁴⁹⁾

49) 김병호, 『디지털여수문화대전』, 2006.

8. 분계동 분청사기 1호 가마터

울촌면 반월리 삼산마을에서 소라면 사곡리로 향하는 863번 지방도를 따라 가면 울촌면과 소라면의 경계지점에 동쪽으로 향한 작은 계곡이 있다. 이곳을 분두골 또는 분계동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에는 3~4가구가 살고 있다.

도요지는 마을 동쪽 끝 북쪽의 산사면에 있으며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이곳에서 수습된 도자기 파편으로 보아 발, 대접, 접시, 병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인화, 귀얄, 덩빙 기법의 분청사기들이다. 16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들로 보인다.

9. 분계동 분청사기 2호 가마터

분계동 1호 가마터에서 동쪽 계곡 안으로 100m 정도 들어가면 북쪽 산 경

계면에 민묘들이 몇 기 조성되어 있는데 도자기 조각들은 이 민묘 주변에서 흩어져 있으며,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습되는 도자기들의 종류는 대접, 접시, 발, 항아리, 병 등의 조각들이다. 16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들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격은 분계동 분청사기 1호가마터와 비슷하다.⁵⁰⁾

50) 이준범 외, 여주시·조 선대학교박물관, 『여수 시의 문화유적』, 2000.

제3절 와요지

화장동 선사유적 공원 내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기와를 굽던 가마터 2기가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경작(耕作)으로 인해 가마의 천장 부분만 훼손되었을 뿐 와요(瓦窯)의 입구에 해당하는 회구부(灰丘部)와 연소실(燃燒室), 소성실(燒成室), 연도(燃道) 등의 유구(遺構)가 양호한 상태였다.

동쪽에 위치한 1호 가마는 굴가마(登窯)로 소성실 바닥에 모래가 섞여 있었다. 전체 길이는 840cm, 소성실(燒成室) 길이는 430cm, 소성실 최대 너비는 197cm, 소성실 높이는 68cm이다. 암기와, 수기와,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 화장동 가마터

회구부(灰丘部)의 층위로 볼 때 3회 조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마의 구조와 출토된 와편(瓦片)으로 볼 때 통일신라 전기에 활용되던 가마로 추정된다.

서쪽에 위치한 2호 가마는 반지하식 굴가마(登窯)로 소성실 바닥에 기와 조

각을 전체적으로 깔려져 있었다. 전체 길이는 810cm, 소성실 길이는 420cm, 소성실 최대 너비는 210cm, 소성실 높이는 60cm이다. 막새류는 보이지 않고 압키와, 수키와,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회구부의 층위로 볼 때 2회 정도 조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 시기는 가마의 구조와 출토된 와편으로 볼 때 1호 가마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전기로 추정된다.⁵¹⁾

51) 김병호, 『제2편 역사』 『어진 사지』, 1998, p216~218 쪽

제4절 사철소

1. 봉산동사철소

전라좌수영 고지도에 '사철(沙鐵)'이라는 표시가 있고 정부에서 발간한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 “제철지(製鐵址) 봉산동(鳳山洞) 1568~1609년 임진란(壬辰亂) 때 사철(沙鐵)이 생산되어 무기 제작에 사용, 영조 27년(1751)에 절도사(節度使) 정익량(鄭益良)이 사철고(沙鐵庫)를 설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⁵²⁾

52) 편집부, 『봉산동사철소』 『여수시문화재도록』, 2001, p18.

봉산동 사철소는 전라좌수영성으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봉산동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임란 시기에 무기 제조 및 그 후에도 여수 지역의 철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공급처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봉산동 사철소에 대하여 연구한 사람은 향토사학자 이중근(李重根)씨를 들 수 있다. 이씨는 어렸을 때 봉산동 일대에서 놀면 고무신이나 운동화가 길이나 들판에 널린 제철부산물인 쇠똥부스러기(Slug)에 걸려서 금방 망가진 점, 봉산동 일대의 논바닥이 붉은 빛을 띤 점 등에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다.

마을 노인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문헌적인 고증을 통해 밝힌 결과 봉산동 519~550번지 일대의 3,000여 평에는 수십 곳의 풀무간이 설치된 대규모의 사철소(沙鐵所)가 있었으며, 봉산동 242, 248, 249, 254번지 일대에는 1968년 매립되어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눗강(爐江)'이라는 연못이 있어 사철소에 물을 공급하는 구실을 했고, 사철 원료는 봉강동의 서당(書堂)산에

서 양질의 것이 있어 채취했다 한다.⁵³⁾

지금도 봉산동 3통 3반과 4반 일대의 옛날식 돌담이나 주택 안마당에서 슬래그(쇠똥)와 내화돌 등을 간혹 볼 수 있다. 봉산동 사철소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 시대의 제철·제련 기술 발달에 대한 연구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⁴⁾

2. 둔전사철유적

둔전 사철유적은 돌산읍 둔전리의 돌산 중앙초등학교⁵⁵⁾ 정문 앞 포장도로 건너편 길가 밭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사철 흔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돌산 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김영훈 교감이다. 김씨는 1989년 5월경 교문 밖 길가의 밭에서 태양광선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슬러그(Slag, 쇠똥이라고도 함)를 발견하고 관심을 가졌다 한다.

그 후 김 씨가 돌산중앙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던 1995년 경 슬러그의 정체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수지역의 향토사학자와 학계에 널리 알려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채취된 시료(試料)를 광양 제철소에 가져다 감정을 해보니 1992년 발견된 봉산동 사철소의 슬러그와 유사한 성분을 가졌다 한다.

곧 여수지역의 봉산동과 돌산의 둔전에서 채취된 슬러그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화티탄(TiO₂)의 함량이 9.32% 가량으로 사철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틀림없다 한다.⁵⁶⁾

그러나 둔전 사철 유적의 경우 문헌에 사철소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어, 고고학적인 발굴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철소가 운영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3) 노희구, 「향토사학자 이종근」, 『여수문화 21호』, 2007, p22~23.

54) 김병호, 「봉산동사철소」, 『디지털여수문화대전』, 2008.

55) 학생 수 부족으로 돌산중앙초등학교는 2007년 3월 1일 폐교되었음.

56) 노희구, 「둔전사철소」, 『돌산읍지』, 2000, 518쪽.

제5절 이충무공 어머니님 사시던 곳



▲ 이충무공의 어머니 초계 변씨 유적비

이울곡과 같은 덕수이씨가 문(德水李氏家門)에서 출생한 이순신 장군은 효성이 지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충무공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인 1593년 경 78세의 노모(老母) 변씨 부인(卞氏婦人, 1516~1597)을 충남 아산(牙山)에서 여수 고음천(古

音川)의 송현마을로 모셔왔다. 변씨 부인은 정쟁(政爭)으로 인해 충무공이 1597년 4월초 한산도에서 잡혀갈 무렵까지 약5년 간 여수에서 피난 생활을 한 셈이다.

충무공이 어머니를 이곳에 모신 것은 좌수영성(左水營城)으로부터 15리 남짓하여 노모의 안후(安候)를 살피기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충무공의 군관으로 있는 정대수(丁大水)장군⁵⁷⁾의 초당(草堂)이라서 안심하고 모실 수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명당(明堂)이라 할 만큼 안전한 곳이었다.

왜란 도중에 이충무공이 쓴 『난중일기』에는 이충무공의 노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孝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이충무공 어머니께서 국가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面貌)를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충무공 어머니님 사시던 곳은 웅천동 1420-1번지로 정대수 장군의 후손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데 현재는 14대손 정평호씨가 살고 있다. 옛 집은 없어지고, 옛 집터와 약간 다른 위치에 정대수 장군의 12대손 고(古)정현오(丁炫午)씨가 1930년대 초에 현재의 집을 지었다 한다.⁵⁸⁾

이 가옥의 원편 모퉁이에는 오래된 맷돌, 돌절구, 솔 등 3점의 유물이 현재에도 놓여있다. 이 유물들은 변씨 부인이 직접 사용하던 것이라고 구전되어 내려온다.⁵⁹⁾ 솔은 무쇠이다 보니 부식되어 솔 밑바닥이 떨어져 나갔고, 옆면에도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보존이 시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57) 정대수(丁大水) 장군: 본관 청원(淸原) 호 용재(龍齋), 무과 급제, 임진왜란 때 부장(副將)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이순신(李舜臣) 휘하의 발랑(別將)이 됨. 순천(順天)·애교(愛橋) 마을과 1598년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전공을 세운 웅천동(熊川洞) 오종사(五忠祠)에 배향됨.

58)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1992, 308쪽.

59)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1992, 308쪽.

과거에는 이충무공 자당기거지(慈堂寄居地)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이충무공 어머니님 사시던 곳'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충무공 모부인초계변씨유적비(忠武公母夫人草溪卞氏遺跡碑)' '이충무공사모비(李忠武公思母碑)' 등 2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제6절 거문도 해저케이블 육양점

'해저 케이블 육양점'이란 대륙과 대륙 사이의 통신을 위해 바다를 통해 연결된 케이블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강대국이지만 영토가 대서양 주변에 위치한 영국은 1850년대에 세계 최초로 자국과 유럽대륙의 통신을 위해 해저케이블로 잇게 된다. 그 후 영국은 1870년경 런던과 인도 뭍바이 간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거문도 해저케이블 육양점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국제전화 통신 등의 용도로 해저 '광케이블' 가설이 절정을 이루고 있지만, 초기에 설치된 해저케이블은 구리선으로 만들어져 단순한 전화(電話)나 전신(電信) 연결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한다.⁶⁰⁾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케이블은 1884년 2월 28일 경 일본에 의해 부산과 일본 간에 해저 전선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두 번째로 개설된 것은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에 의해서이며, 1885년 5월 거문도와 중국의 상하이를 연결한 것으로 1887년 2월 27일 영국군이 철수함으로써 철폐되었다.

그 후 1904년 1월 일본에 의해 일본의 사세보(佐世保)-거문도-중국 대련(大連)사이에 해저 전선이 부설되었고, 같은 해 9월 사세보-거문도-철원

60) KT Submarine.

반도 사이에 4,019km의 해저 전선이 연결되었다. 또한 12월 거문도와 제주도를 연결함으로써 거문도는 통신망의 요충지가 되었다. 구리선을 수십 가닥 엮어 만든 케이블은 광복 전까지 일본군이 통신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광복 후 폐지되어 현재 거문리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제7절 일제의 군사시설

일제강점 말기에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1941~1945)을 일으켰다. 일제는 미국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식민지 상황이던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강제 징병, 강제 징용, 물자 수탈은 물론이고 한국 땅 곳곳에 군사시설을 갖추었다.

신월동, 자산공원, 삼산면 거문도, 돌산읍 등 여러 곳에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비행장과 포대,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발견된다.

1. 신월동 일본해군 비행장 터



▲ 신월동 일본해군 비행장 터

1940년 신월리는 총 239가구에 인구는 1,339명으로 동정과 서정 그리고 봉산리 다음으로 큰 마을이었으나 일제가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 군사 시설로 변하였다.⁶¹⁾

이곳이 군사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42년 8월 경이다. 앞바다가 ㄷ자형인 천혜의 요새인 것을 일본 해군이 확인하고 비행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신월리 해군비행장 공사는 일본 토목 회사들이 맡아서 했는데, 인부들은

61) 박종길, 『신월동 지명 유래』, 『다지말여수문화대전』, 2008.

여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군에서 끌려온 근로보국대들로, 2개월씩 교대로 일을 했다. 공정이 90% 정도 진행된 가운데 1945년 광복이 되자 공사가 중단 되었다.⁶²⁾

이 자리에 1948년 5월 4일 14연대가 창립되었으나 14연대 군인들이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을 일으키자 군부대가 폐지되었다. 그 후 군인막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국에서 모여 든 300여명의 결핵환자가 살아가는 '자활촌(自活村)'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 중에 병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밭을 갈아 채소를 가꾸고 닭을 기르기도 하면서 근근이 자활하며 살아갔다 한다.⁶³⁾

자활촌이 없어지고 나서 현재는 (주)한화 여수공장⁶⁴⁾이 들어서 있다. (주)한화 여수공장 내부에는 아직도 격납고, 무기창고, 굴뚝, 비행기 활주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해변에 새로 개설된 통일로(統一路)⁶⁵⁾ 아래의 바닷가에도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들을 목격할 수 있다.

62) 김병호, 「신월동 해군비행장」, 『디지털여수문화대전』, 2008.

63) 이환희, 「하안 고무신에 어린 눈물」, 『한 줄의 편지』, 2000, 72쪽

64) (주)한화 여수공장은 1975년 9월 가공하여 1977년 1월 부분 준공, 1978년 종합 가동을 시작함

65) 통일로(統一路)는 구(舊)여천시 신기동과 구 여수시 신월동을 잇는 해안선에 건설된 도로의 명칭임.

2. 자산공원 방공포대

자산공원은 종화동의 자산(紫山) 정상에 있으며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자산이라는 이름은 일출 때 산봉우리가 아름다운 자색으로 물든다 하여 붙여졌다. 공원진입로 입구에는 활터가 있다.



▲ 자산공원 방공포대

자산공원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일본군이 진을 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상에서 오동도를 내려다보는 지점과 여수 경찰서를 내려다보는 지점에 일본군이 설치한 포대 4기의 유적 남아 있다. 미군 전투기가 신월동 일본해군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사포 진지를 구축하였다 한다.

3. 계동의 군사시설

태평양전쟁 당시 돌산 지역에는 계동, 임포, 봉양, 도실 등 4곳에 일본군이 주둔하기 위해 각종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⁶⁶⁾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평사리 산 1-2번지를 거점으로 하여 계동 자갈밭 일대와 대미산 그리고 두룽개, 큰끝 등에 주둔하고 있었다. 두룽개 뒷산에 설치된 포대에서 태평양전쟁 때 미 B29 비행기를 향해 발포를 하였으나 명중을 시키지는 못했다는 증언이 있다.

지금도 대미산(大美山)의 달암산성 아래에는 일본군이 고사포 진지를 만들려 했다는 동굴이 남아있다.

66) 허배열, 『일제의 군사시설』, 『돌산읍지』, 2000, 520~522쪽.

4. 임포의 군사시설

돌산을 올림리 임포 산 103번지를 중심으로 일본 해군 1중대가, 올림리 임포 68번지를 중심으로 일본 육군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 육군은 지금의 무인등대가 있는 곳에 포대 2기를 구축하고, 포 1대를 설치하였으나 임포 앞바다가 넓어 포의 유효 사거리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포대를 계동으로 옮겼다 한다.⁶⁷⁾

67) 허배열, 『일제의 군사시설』, 『돌산읍지』, 2000, 520~521쪽.

5. 도실의 군사시설

돌산을 평사리 도실마을에는 대규모의 일본군 비밀군사기지가 있었다. 도실마을은 대미산, 금산, 봉화산, 천마산 등이 사방으로 둘러싼 천혜의 요새다.⁶⁸⁾

광복 직전인 1944년 경 일본군은 도실마을의 현재 '돌산낚시촌'(천마모텔 근처)이라는 가게가 위치한 곳에 1개 중대본부를 두고, 150미터 포대는 도실 저수지 아래에 두고 포를 은닉하기 위한 땅굴을 2개소에 굴착하였는데 현재에도 땅굴의 흔적이 남아 있다.

68) 김인덕, 『여수지역·경제연행』, 『일제강점기의 여수지역사』, 『여수시문헌』, 2006, p108.

6. 하봉양의 군사시설

일본군은 돌산읍 금봉리 하봉양 마을의 현재 향대 가는 길과 업치기로 가는 삼거리 길 위에 1개 중대 본부를 두었다. 포대는 아래 피내 끝의 황씨 선산 아래에 설치하고 포를 은닉할 땅굴을 굴착하였는데, 현재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

7. 거문도의 군사시설

삼산면 거문리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고도(古島) 등에는 현재에도 일본식 건물, 신사(神社) 터, 소학교 터, 전쟁수행을 위한 터널 등 일제(日帝) 황민화 정책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다.



▲ 거문도의 군사시설(방공호)

일제가 거문도에 대규모의 일본인을 이주시키고, 군사시설을 갖춘 것은 거문도가 일본과 중국,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거문도의 군사시설들은 1944년 12월부터 광복 직전인 1945년 6월에 걸쳐 갖추어졌다. 군사시설 구축을 위해 황해도 웅진, 경남 통영, 경북 칠곡 등지에서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했고,⁶⁹⁾ 거문도 거주민들을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임금으로 강제 동원했으며 부역을 어기면 식량배급표를 주지 않거나 폭행을 일삼았다.⁷⁰⁾ 동원된 100여명의 거문도 주민들은 일본인 관리의 감독 하에 터널을 파고 돌을 옮기는 등 단순 노역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군사시설은 터널 12개와 참호 2개, 방벽 1개, 지하갱도 등이다.

동도에서만 9개의 터널이 있다. 동도와 서도 사이 내해(內海)의 물결이 잠잠하고 외부의 눈에 띄지 않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도의 9개의 터널 중 7개는 해안가에 굴착되어 있으며, 배를 댈 수 있도

69) 김안덕, 「여수지역-김재연행, 『일제강점기의 여수지역사』, 여수시문화원, 2006, p109.

70) 정시행 기자, 「거문도 日軍 군사시설 발견」, 조선일보, 2006. 5.29.

록 콘크리트 접안시설까지 갖췄다. 터널은 폭 2.5~3.0m, 높이 3m, 길이 15~25m로 h·I·王·T자형 등 다양한 형태이다.

용도는 전시(戰時)에 군수물자·식량·어뢰정 등의 보관, 사람의 대피, 주변 정찰(精察)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30cm 이상으로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王자형 터널의 경우 최고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해안가 터널은 군용정 4~5척까지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이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에 2~3차례 수송용 비행기가 진해에서 물자를 날라 왔고 1944~45년 사이에 함정 6~7대가 항상 정박해 있었다.”한다.

서도리 불탄봉(해발 195m) 정상 근처에 있는 참호 2개는 군수물자 보관용 이라기보다는 주변 정찰의 용도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참호가 남동쪽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거문도로 접근하는 전투기나 선박의 움직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탄봉의 참호 조성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시멘트나 목재 같은 물자를 산 중턱에 까지만 올려주도록 시켰고, 참호는 비밀리에 불탄봉에 주둔해 있던 육군들이 직접 짓고 포탄을 숨겼다 한다.

참고문헌

- 김인덕, 『일제강점기의 여수지역사』, 여수시문화원, 2006.
 김종대, 『여해 이순신』, 2008.
 돌베개 편집부, 『한려수도와 제주도』.
 돌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돌산읍지』, 2000.
 여수시, 『디지털여수문화대전』, 2008.
 류창규, 『조선시기의 거북선과 선소』.
 문영구, 『전라좌수영연구』, 1992.
 여수시문화원, 『여수문화 21호』, 2007.
 여수시지편찬위원회, 『여천시지』, 1998.
 이종범 외, 여수시·조선대학교박물관, 『여수시의 문화유적』, 2000.
 이환희, 『한 줄의 편지』, 2000.
 조성도 외, 『이충무공유적지 선소 문헌고증보고서』.
 편집부, 『여수시문화재도록』, 2001.

제 11 장

건축

박 찬 (전남대학교 교수)



제1절 개요

여수는 전통적으로 남해안 '해양방위'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은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활동근거지였으며, 홍국사는 의승수군의 본거지로서 승병들이 수군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때부터 여수는 '임란호국의 도시 여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었다.

여수지역의 전통건축 중 진남관과 홍국사 대웅전은 건축사학적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탁월한 위치에 있다. 이 두 건물은 각각 수군과 승수군의 본거지에 소재하는 중심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진남관은 임란 후 충무공을 기리는 의미에서 건립된 것이므로 임란 및 충무공과 확고한 연고가 있다.

1930년대 초 여수가 읍으로 승격되고 철도가 개통되고 일본과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여수의 발전양상은, 1) 교통의 요지, 2) 수산업의 발달, 3) 농산물집산지 등 세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여수에는 수산업 관련의 냉동창고, 어시장, 조선소, 교통을 위한 철도역과 항만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반출을 돕기 위한 가공공장 및 각종 창고와 같은 근대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울촌의 장천교회, 애양교회 등 오래된 교회 건축도 역사적, 건축적인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제2절 전통건축

1. 진남관



진남관은 근자동 47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전라좌수영의 객사이다. 단층의 전통목조로 팔작기와 지붕, 겹처마, 공포는 출목익공 형식이며 정면 15칸(54.5m) 측면 5칸(14.0m), 높이는 기단에서 중앙부 용마루상단까지 13.5m이다. 현재 내부를 구획하였던 벽체 등이 남아 있지 않아서 원래의 내부 구성을 알 수 없다.

기둥은 일정한 형태 크기가 아니나 민흘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굵은 것은 둘레 2.4m나 된다. 추녀 네 귀는 활주로 떠받쳤는데 원래는 없었던 것이다. 가구는 2고주 7량을 기본구성으로 삼았다. 단청은 색이 바래기는 했지만, 대들보의 계풍에는 용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등 흔적에서 정성을 드러낸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다.

건물 자체는 부동침하와 기울어짐이 발생하여 가구변형 정도가 육안으로 식별되는 부위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정비는 문화재의 위상에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단층 목조건물 중에서 평면규모(면적)가 가장 크다. 공포의 장식과 단청이 화려하며 정사와 의사의 외형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진남관은 조선시대의 객사의 일반적 형식과 구분된다.

2. 흥국사 대웅전

흥국사는 중흥동 1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흥국사 대웅전은 흥국사에서 중심이 되는 불전으로 조선중기에 건립되었다. 단층의 전통목조로 겹처마에 팔작 기와지붕, 공포는 다포 형식이며 정면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내부는 불상 뒷벽을 지탱하는 기둥(불벽주)을 본래 위치보다 조금 뒤로 밀어내고 불상을 안치하면서, 불단의 폭을 줄여서 앞에 예불공간을 넓게 확보하였다.

고주 후벽에는 흙벽에 한지를 덧붙여 반가사유사의 백의관음 벽화를 모셨다. 대웅전 가구는 무고주 3중량 7량가이다. 측면 주간이 36척으로 꽤 긴 편이나 전후면 평주에 걸쳐 하나의 부재로 대들보를 걸었다.

기둥은 민흘림인 것, 약한 배흘림인 것 일정치 않다. 불벽주는 단면이 가늘어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천장은 조합천장 방식으로 왕지도리 내부의 우물천장과 외부의 빗우물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한 금단청을 배풀었고, 조각 장식도 매우 수려하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흥국사 중심일곽의 건물 배치는 다른 사찰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형식을 하고 있다. 곧 대웅전과 중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일반적으로는 중층의 누각이 들어서는데, 흥국사에서는 단층의 중문(법왕문)이 들어서 있고 중층의 누각은 그 바깥쪽(진입쪽)에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 찾아 볼 수 없고, 순천 송광사(법왕문, 한국전쟁 때 소실)와 안동 봉정사(진여문, 1969년 철거)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중층누각이 들어서는 형식은 18세기에 성립되어 19세기에 들어와서 보편화된 것이므로, 흥국사와 같이 누각의 자리에 중문이 들어서는 형식이 오래된 형식이라고 한다.

흥국사 대웅전은 내부공간의 확장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에서 유명하다. 건물 내부에서 예불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확장하는 기법은, 17세기 이후 보편화 된 실내예불화 및 좌식화 경향과 함께, 거의 모든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창문에는 상부에 교창을 달아서 채광을 충분히 하였다.





3. 흥국사 팔상전

흥국사의 불전으로 조선중기에 건립되었다. 2005년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

귀공포의 간화수법, 공포살미의 원호가 심하지 않고 수장폭이 큰 점, 행공침차의 초각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서, 흥국사 대웅전보다 양식적으로 앞서는 특징이 나타난다.

단층의 전통목조로 팔작지붕에 겹처마, 공포는 다포 형식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기구는 무고주 2중량으로 5량가이다. 내부의 불벽고주는 평주열에서 뒤로 후퇴한 위치에 세웠으나, 불벽주는 통상적인 높이에 이르지 못하므로 지붕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고주가 아니다.

내부천장은 왕지도리를 기준으로 내·외부를 구분하여 층급을 두었으며 (층급천장) 형식은 모두 우물천장 방식이다. 바닥은 귀틀을 짜고 청판을 끼운 우물마루인데, 소규모의 불전임에도 불구하고 불벽고주를 중심으로 전·후면에 낮은 층급을 두어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단청은 원래 화려한 금단청이었으나 많은 부분이 퇴락되었다.

규모는 작지만 기둥에 배흘림과 안솔림, 귀솟음 등을 적용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구성과 비례에 있어서 기품을 느끼게 하는 수작이다. 불단 위에 'ㄹ'자형 달집은 매우 호화로워서 눈길을 끈다.

4. 흥국사 원통전

원통전은 1633년 관음전으로 창건되었으며, 1974년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창건 당시의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공포가 주심포, 다포, 익공 등 여러 형식을 절충한 모습(출목익공 형식에 속함), 그리고 제공이 장식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등, 조선후기 공포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의 관음탱화가 1732년에 제작된 것이므로 이때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포의 초각수법 등의 세부가 세련되지 못하므로 시대가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원통전은 경내의 적묵당 등과 비슷한 시



기인 19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층 전통목조에 팔작지붕 겹처마이며 공포는 출목익공 형식이다. 원통전의 평면은 '丁' 자형(또는 '凸' 자형)이다. 따라서 지붕은 팔작지붕의 정중앙에 다시 팔작지붕을 잇대어 놓고 있다. 평면구성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사방에 퇴를 달아낸(回 자형 구성) 본체에, 앞쪽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 좌우에 퇴를 댄 도입부를 부가하였다. 본체의 回 자형 구성은 탑의 주위를 순회하는(탑돌이) 의식을 배려한 설정이라고 한다.

본체의 가구는 2고주(불벽주 평주와 높이차 없음) 2중량 방식으로 5량가이다. 대들보는 전후면 평주에 걸었다. 천장은 작은 규모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한 형식의 조합천정을 가설하였다.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내부에는 관음보살상과 영산회상도와 1917년에 조성된 신증탱화가 있다.

조선시대의 '丁' 자형 평면은 능원의 정자각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채용하지 않았다. 평면이 '丁' 자형인 사찰건축으로는, 순천 선암사 원통보전, 산청 대원사 원통보전, 기록에 의한 것으로 화순쌍봉사 원통전 등이 있다.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5. 흥국사 홍교

흥국사 홍교(虹橋⁷⁾)는 흥국사 앞 개울에 있는 전통석조다리로서, 1639년(인조 17)에 세워졌으며, 1972년 보물 제563호로 지정되었다.

길이 11.8m 폭 2.7m 높이 5.5m인 아치식(홍예식, 또는 궁륭식) 다리이다. 개울 양 기슭의 바위에 기대어 쌓았는데 부채꼴 모양의 돌을 서로 맞추어 틀어 올린 다리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 형태를 이루고 있다. 홍예의 한복판에는 양쪽으로 마룻 돌이 튀어 나와 그 끝에 용머리를 장식하여 마치 용이 다리 밑을 굽어보고 있는 듯하다. 또 양쪽 홍예 난간부분에 귀면상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장들은 다리의 격을 높여주고 있다.

물을 건너는 다리는 꼭 다양한 편이다. 그 중에서 맑고 깊은 계곡 물을 건너기 위해서 만든 궁륭형(시위를 당기는 활 모양으로 둥글고 하늘 위의 무지개처럼 걸쳐 있는 모습)의 다리는 가장 아름답고 매우 정교한 기법으로 만들어진다.

7) 홍교는 무지개 모양의 다리라는 의미이다.





6. 충민사

충민사는 덕충동 1829번지에 위치하는 사당으로 1947년 원위치에 재건되었다. 단층의 전통목조로 팔작지붕이며 겹처마에 공포는 2익공 형식으로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충민사의 전체 배치는 사당, 외삼문, 내삼문, 홍살문이 남북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외삼문은 맞배지붕이고 내삼문은 맞배지붕 가운데가 양쪽보다 높은 솟을대문이다.

주초는 원형이고 그 위로 민흘림의 원주를 세웠는데, 기둥 위로는 포작 없이 보아지와 쇠서, 창방이 결구되었고, 장여와 도리가 연결되었는데 그 사이로 화반을 끼워 넣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활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부연이 있다. 창호의 중앙어간은 사분각이며 양일간은 삼분각으로 모두 띠살문이다.

7. 방답진 군관청



▲ 방답진 군관청

돌산읍 군내리 322-2번지에 위치하는 방답진의 관아건축물이다. 군관청이 처음으로 건립된 것은 1872~1895년간으로 추정된다.(형방청조사보고서 1967년).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3칸 'ㄷ' 자형을 이루고 있다. 마주보아 좌측 익사는 방으로 되어 있고, 우측의 익사는 방에 반 칸의 누마루가 달려 있다. 나머지는 우물마루의 개방된 대청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무고주 3량가를 기본으로 하고, 원기둥에 기둥과 보의 결구수법은 장여를 채용한 민도리형식이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관아건축은 사례가 많지 않으며 평면 'ㄷ' 자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희소가치가 있다.

8. 은적암

돌산읍 군내리 4번지 천왕산 아래에 위치하는 사찰이다. 현재의 건물은 모두 최근에 건립된 것으로, 대웅전은 1985년 확장 중수, 관명루는 1995년 중수, 칠성각은 1984년 중수되었다.

대웅전은 현재 정면4칸 측면3칸, 평면은 'ㄷ'자 형이다. 원래는 좌측만이 앞쪽으로 돌출된 형태였으나 우측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전면은 원형기둥, 후면은 사각기둥을 세우고 공포는 2익공 형식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인데 우측은 바람막이 판이 있는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관명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누마루가 있는 맞배집으로 공포는 초익공(몰익공) 형식이다. 칠성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집, 맞배지붕이다.



9. 돌산향교

돌산읍 군내리 203번지에 위치하는 유교건축이다. 1897년에 창건되었다. 1897년 대성전이 최초로 건립된 후 1898년에는 명륜당과 그 이듬해에는 풍화루가 신축되었다.

대성전은 정면3칸 측면3칸에 전퇴를 두지 않았으며, 무고주 5량가, 민도리 형식에 맞배집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무고주 5량가 구조의 초익공(몰익공) 형식, 지붕은 겹처마 팔작집이다. 간살이는 중앙 3칸에 9칸 대청을 두고 대청 좌우에는 겹집 형태로 전 2칸, 후 1칸의 온돌방을 각각 두었다. 대청은 우물마루이고 천정은 연등천정이며 온돌방은 우물반자에 종이 바름을 했다.

풍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2층 누각으로 무고주 5량가 구조의 초익공 형식이다. 천장은 중도리까지 연등천장이고, 그 위로는 우물천장이며, 마루는 장마루를 놓았다.



10. 여수향교

군자동 165번지에 위치하는 유교건축이다. 1897년에 창건되었다. 1934년



에 동·서재와 명륜당을 중수하고 풍화루를 신축하였으며, 1945년에는 대성전 중건 확장, 1982년에는 명륜당을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유안(儒案)과 교집강안(校執綱案) 다수가 소장되어 있다.

대성전은 창건 시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었으나 1949년에 정면 5칸으로 증축되었다. 2고주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좌우측에 퇴를 두었고 양끝으로 정면 1칸, 측면 2칸에 온돌방을 두고 가운데는 대청으로 꾸몄다. 무고주 5량가에 팔작지붕이다.

제3절 근대건축

1. 제일은행 여수지점

중앙동 691번지에 소재하며, 1939년에서 광복(1945)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동-교동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간 약간 다소곳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 제일은행 여수지점

일제강점기말까지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의 건물이었다. 현재에도 정면 입구 위에 '朝鮮殖産銀行'이라고 음각된 글자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식산은행은 광복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54년에는 이 한국식산은행을 한국저축은행이 건물과 직원을 승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발전시켰다.

이어서 1958년에는 산업은행의 일부를 '제일은행'으로 민영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은행 여수지점의 건물이 되었다. 뒤편에 위치한 벽돌조 슬래브조의 부속동은 숙직실·직원식당 등의 용도로 쓰였으며 1976년에 증축되었다. 2005년 등록문화재 제170호(등록명칭 '제일은행 여수지점')로 등록되었다.

| | |
|-----------|---|
| 1930 |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 건물 신축(현 위치) |
| 1939~1945 |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 건물 2차 신축(현 위치) |
| 1951 | '한국저축은행 여수지점' 지붕 복구(상량문) |
| 연도불명 | 내부개조('제일은행 여수지점' 시기, 이후 동일) |
| 1976 | 별동건립 |
| 1989~1990 | 기와교체, 창틀, 문틀교체 |
| 1991 | 외벽 본도도색 |
| 1994 | 구조 안전진단 후 외벽, 바닥, 천장 등의 보수 |
| 2001 | 1층 가설 벽에 의한 내부공간의 구획변경, 내장개수, 금고문 위치변경, 1층 천장설치 |
| 2004 | 1층 가설 벽에 의한 내부공간의 구획 재변경 |

형태는 벽돌조벽·목조트러스 지붕, 부분2층,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 테라조 마감이며 지붕은 (평판)슬레이트 잇기를 하였다. 근대기의 서양건축양식을 흉내 냈다는 점에서 '근대의사양풍'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적인 은행건축의 외관과 비교할 때 아주 간소한 편에 속한다. 오-더(서양 고전건축에서 기둥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양식규범)와 같은 명확한 고전적인 요소는 물론 기타 장식적인 요소가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고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코니스처럼 처리한 처마 테두리 부분, 그리고 벽체 하부에 루스티카식 돌쌓기를 적용한 정도이다.

또한 외관디자인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점이 있다. 그것은 가장 진전된 상자형 모던 스타일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광복 전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은행건축으로서 선구적인 외관을 채용한 것은 소수의 사례이다.

건물은 아직 견실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여기에 주변의 가로구획 등-도시적 구조가 당시의 골격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2. 대한통운 여수지사 제8호 창고

수정동 46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건축으로, 일제강점기인 1931년 건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정기간행물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제11집 제1호(1932년)와 남철연선사『南鐵沿線史』(1933년)의 기사를 종합하면, 여수농업창고 4동을 1931년 12월 1일 준공하였는데 위치는 여수항역 서쪽이고, 규모는 각각 84평이며 건물주는 전라남도농회로서 건축비는 4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구조는 벽돌조벽, 2중 지붕, 철근콘크리조 바닥이라고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을 현재의 건물과 비교하면 위치, 규모, 구조적인 면에서 현재의 '대한통운여수지사 제8호 창고'가 1931년에 준공된 여수농업창고(麗水農業倉庫) 4개 동 중에서 남은 한 개의 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이 창고는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1934년 창립)의 소유가 되었고(1939년의 군세일반(郡勢一斑)의 부도 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미곡창고'로 기표되어 있다.), 1950년에는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 소유가 바뀐 뒤, 1961년에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벽은 벽돌로 두껍게 쌓았으며, 지붕은 슬레이트 이음이지만, 지붕틀은 목조 트러스로서 견실한 부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인다. 천정개판도 목조, 외벽은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으나, 당시의 시공인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문짝을 포함한 개구부도 당시의 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당시 여수의 농업창고의 건립은 '전라남도농회'에 의한 농업창고의 경영 3년째의 사업으로(1년째 목포, 2년째 영산포) 여수항역 구내에 육송 및 해운에 가장 적합한 토지 천오백 평을 선정하여 건립하였다고 하며, 당시의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의 미곡 창고를 폭넓게 조사, 연구하여 가장 훌륭하게 건립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곧 외부의 공기 및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유의하였으며 장기저장창고로서는 당시 조선반도에서 최고 수준의 창고였다고 한다. 그리고 부속설비로서 탈곡한 알곡을 현미로 정미하는 정미기까지 설치하였다고 한다.

준공식에 당시 지역의 기관장이 거의 모두(전라남도 도지사, 여수·광양군수, 여수읍장, 식산은행지점장, 금융조합이사장 등) 참석하여 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는 점은, 이 건축물이 당시 여수산업계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과 기대감을 짐작케 한다.

농업창고의 주요업무는 1) 미곡 등의 보관, 2) 현미로의 도정(알곡상태 보다 판매에 유리), 3) 공동판매, 4) 기타 소작료의 수납대리 라고 한다. '광주-여수선'의 개통과 '여관(麗關)연락선'⁷²⁾의 개설과 함께 비약적으로 늘어날

72) 여관(麗關)연락선이란 여수(麗水)와 시모노세키(下關) 간에 운행된 연락선을 말한다.

조선 쌀의 일본반출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 주요 목적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남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데 종래에는 목포를 경유하였으나, '광주-여수선' 철도의 개통과 '여관연락선'의 개설부터는, 광주의 동쪽 지역의 생산분은 운송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을 주요 이유로 해서 여수를 경유하기 시작한다.

곧 반출에 '여수농업창고'를 이용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준공이듬해인 1932년에는 벌써, '광주-여수선' 연변의 여수, 순천, 보성, 화순, 광주까지 확대되고, 이어서 남으로 광양, 고흥, 장흥, 강진, 북으로 구례, 곡성, 장성, 담양, 전북의 순창까지 확대된다. 전라선의 남원-순천구간이 1936년 완공되었으므로 후자의 확장은 여기에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

당 창고는 비록 조선의 쌀을 일본열도로 반출하려는 목적에서 건립된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 건축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적지 않다. 여수가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했을 당시 성장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건물이고 중심역할을 했던 건물이다.

이제는 당시 여수발전을 말해줄 건축물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여수의 창고건축물은 견실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많지 않은 사례 중의 하나이다.

3. 율촌역사

전라선 철도 순천역과 여수역 사이, 율촌면 조화리 58-2번지에 위치하는 철도역사로서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건립되었다.



▲ 율촌역사

1930년 '남조선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광주-여수' 간의 영업이 개시됨에 따라 율촌역이 설치되었다. 율촌역은 1936년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이 개통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역에 남아 있는 기록부에는 신축, 개축 등에 관한 기

록이 '1930년도 신축'이라는 기록 이후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의 건물은 당시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등록문화재 제 301 호로 지정되었다.

단층의 일본-서양 절충식 목조건물로 건설하고 작은 규모의 역사이다. 역 무실과 대합실이 연접해 있고 보관소가 돌출되어 이어져, 평면이 전체적으로 L자형을 이루고 있다. 지붕은 대합실, 역무실, 숙직실 순서로 지붕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근대 철도의 역사적·건축사적 자료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외견상 일식, 양식의 절충식 목조는 벽돌조나 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해서, 견실함이 덜하고 무게감이 적게 나가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유약한 구조를 하고 있지 않다. 율촌역은 '원창역' (현재의 경전선, 순천에서 보성방면 첫째 역) 과 규모와 평면, 구조 등이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

4. 구 청년회관



▲ 구 청년회관

관문동 303번지에 위치하는, 일제강점기 지역 청년운동의 본거지였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미상이나 1921년~1931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등록문화재 제 31호로 지정되었다.

형태는 서양과 전통 병용 형식이며 지상 2층 건물이다. 1층은 콘크리트조, 2층은 전통목조(팔작 지붕, 겹처마, 공포는 2익공형식)로 형태상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조의 1층 부분이 마치 전통건축의 기단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동양에서 전통식과 서양식의 '혼합'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먼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전통주의 건축은 서양식의 벽체위에 동양식의 지붕을 얹는 방식이 주조임에 비해서 '구 청년회관'의 경우는 하부 1층에는 근

대적인 콘크리트가, 상부 2층에는 전통기법에 의했다는 점에서 방식이 다르다. 표현하자면 혼합이 아니라 전통과 외래의 '병용'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병용수법은 당시 시대와 건축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선택이었던지도 모른다. 청년회관에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건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라좌수영의 건물로는 진남관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운데, 청년회관의 2층 부분을 좌수영 좌청의 건물의 부재 전부를 전용하여 건립했다고 하는 사실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5. 애양교회

1928년 울촌면 신평리 1번지에 설립된 교회이다. 1911년 광주에서 창립된 '광주나병원'이 1926년 울촌면 신평리로 이주한 2년 뒤인 1928년에 '애양원 예배당'이 2층 규모의 석조로 준공되었다. 1934년 화재가 발생하여 골조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전소되었다. 1년 후에 증건되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이 증건교회에서 유래한다.

증건된 교회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증축, 개변되었다. 우선 뒤쪽으로 증축되어 측면이 기존 5칸에서 8칸이 되었다(연도미상). 정면에서는 동쪽에 계단실 부분을 덧붙였고, 대칭되는 서쪽에도 실이 덧붙여졌다(현재 2층 성가대 준비실로 사용되는 곳, 연도미상). 1979년에는 수직방향으로도 공간이 확장되었다. 벽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높이 약 1.2m 정도 높여서 예배석 뿐만 아니라 강단의 높이도 여유 있게 확보하였다.

1980년에는 정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2층 예배당으로의 진입이 이 경사로를 따라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전 현관의 계단을 통하여 정면 중앙부로 진입하던 동선을 경사로의 참에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교인들은 대부분 나환자이면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점점 연로해지면서 교회의 계단은 큰 장애물이 되어갔다. 경사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 진입로가 되어갔다.

지붕부는 뒤쪽으로 증축되면서 지금의 팔작지붕의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후면의 돌출 현관부와 동쪽의 돌출 계단실의 상부에도 작은 모임지붕이 덮여



있었으나 수직방향으로 층고를 높이는 과정에서 지붕을 걷어내고 지금과 같이 바꾸었다. 서쪽의 돌출부는 평면을 남쪽으로의 증축할 때부터 현재와 같은 슬래브 형식이었다. 2002년 등록문화재 제32호로 등록되었다.

형태는 근대 양풍의 지상 2층, 석조에 지붕은 목조트러스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슬레이트 이음이다. 평면은 북쪽의 단변을 정면으로 하고, 남쪽을 향해 길게 뻗은 장변을 측면으로 하고 있다. 2층의 전면 진입부는 램프와 전실로 구성되고, 중앙부는 예배실로, 그리고 후면부는 제단을 포함한 준비실과 대기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의 전면 진입부는 중앙의 현관과 양측면의 관리실 및 창고로 구성되고, 중앙부는 집회실과 교육실 등으로 그리고 후면부는 동쪽으로는 당회실, 목회실, 사무실이 있고 서쪽으로는 조리실과 차림실이 배치되어 있다.

지붕은 정면인 북쪽은 박공형, 후면인 남쪽은 팔작형으로 되어 있다. 수직방향으로 층고를 높이는 과정에서 2층 예배실의 마룻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교체하였는데, 현재 처짐과 균열현상이 있고 보행 시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 벽체에서 증축된 부분은 석재와 이음 모르타르가 전체적으로 풍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여수와 부근의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규모가 큰 교회 건물이다. 증개축에 의해서 원래 갖고 있던 근대 교회당의 단순, 간결한 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6. 애양병원

일제강점기인, 1926년 경 울촌면 신흥리 18번지에 설립된 한센병 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진료병동이다.

애양원은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 소속 포사이트 의료선교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센



▲ 애양병원

병 환자를 치료하게 된 것을 계기로 1911년에 설립된 국내최초의 나병원인 [광주나병원]을 모체로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26년 광주에서 이전해 왔을 당시 지어진 것으로서, 처음에는 평면 ‘—’ 자형이었으나 1928년에는 북쪽 돌출 부분을 증축하면서 평면이 ‘ㄱ(凸)’ 자형으로 변형되었다. 1953년에는 현관을 바라보고 양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증축하였다.

1957년부터는 양로원으로 사용되었고, 한동안 방치되어오다가 병원 측의 보존노력에 의해서 1999년에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붕은 원래 목조 트러스틀에 슬레이트 이음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 ‘에양원 역사관’으로 개수되면서 철골 위에 스페니쉬 기와로 바뀌었다. 2002년 등록문화재 제33호로 등록되었다.

형태는 양쪽, 석조 2층에 목조트러스트 지붕이며, 평면은 동서방향의 ‘—’ 자형 평면에 북쪽으로 평면의 일부가 돌출되어 ‘ㄱ(凸)’ 자 형태를 하고 있다. 에양병원에서 사용된 석재의 종류와 표면가공 및 조적방식은 건립/증축 시기에 따라서 구분된다.

하나는 건축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앙부로서 에양원 교회와 마찬가지로 정다듬한 불규칙한 석재를 화문쌓기 방식으로 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28년 증축된 북쪽 돌출부로서 일정한 규격의 사고석을 막힌 줄눈 방식으로 쌓은 것이다.

1953년 동서방향으로 다시 증축하면서, 중앙부 이외에 확장증축부의 각 부분(진료실 별로)마다 별도의 출입문 설치하였다. 이 출입문은 1972년 평안사로 사용하면서 폐쇄하였다. 1998년 에양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중앙부의 서쪽에 치우쳐 있던 출입구를 동쪽으로 옮기고, 입면의 수직의장요소였던 굴뚝을 철거하였으며, 전면에는 유리로 된 전실을 설치하여 입면의장이 크게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 중에는 건축주체가 서구인인 건축이 다수 유존한다. 그 중에는 선교사에 의해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수 지방에서는 ‘에양원(병원)’이 대표적이다. 에양병원은, 한국 근대의료사에 있어서 의료기기를 비롯한 소장품(전시내용)뿐만 아니라 건물 통째가 중요한 자료이다.

7. 장천교회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지어진 건물로, 울촌면 조화리 13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05년 울촌면 여흥리에서 초가 12평의 규모로 '장천예배당'이 창립되었다. 전남동부권 3시4군(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곡성)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이다. 1924년에 본당이 2층의 석조로 새롭게 건립되었는데, 이 건물은 현재의 장천유아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천교회는 창립초기부터 인근지역의 교회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모교회(母教會)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는 사설 여흥학교(麗興學校)를 열어 관내주민을 위한 근대교육을 시작하였다.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우리군대를 해산시키고 경찰권을 빼앗아 가는 등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이 고장의 선각자들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기독교를 통한 민족계몽운동 밖에는 없다고 느끼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부속교육기관으로 여흥학교를 교회 내에 세우고, 신도들의 자녀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자녀들까지 신학문(일본어, 산술, 이과, 지리, 창가 등)을 가르쳤다.

이런 연유로 이 지방에서 가장 먼저 개화한 곳이 울촌이고 그 간 배출한 지역의 인물들이 대부분 여흥학교출신이다. 개교한지 23년째 되는 1935년, 국어 폐지와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자진 폐교하였다.

현재의 모습은 원형에서 벽체, 지붕을 제외하고 내부와 전면의 계단부가 개변된 것이다. 본당의 역할은, 1973년 인접부지에 또 하나의 석조 교회당을 지으면서 이관되었고, 현재는 2층은 유아원으로 1층은 식당 등 다목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 등록문화재 제 115 호로 등록되었다. 현재의 건물 옆으로 1973년에 석조예배당이 건립되었고, 2003년에는 다시 그 옆에 철근콘크리트조의 현대적인 예배당이 건립되었다. 하나의 부지 내에 세 개의 교회당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모습에서 교회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근대 한국 교회건축의 전개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건물형태는 양쪽 2층으로 화강석으로 벽체를 쌓고 목조 트러스로 지붕틀을 구성하였다. 원래의 지붕이음은 알 수 없고 비교적 최근까지 슬레이트이음이었다. 최근 동판으로 교체하였다. 2층 바닥은 슬래브이지만 원래부터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평면은 장변이 그리 길지 않은 장방형으로 단변방향이 정면으로 되어 있다. 2층은 예배실, 1층은 부속실로 계획되었다.

지상에서 2층 예배실로 오르는 계단이 정면 좌우측에 대칭으로 널찍하게 설치되었고, 1층에는 측면 가운데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1층과 2층을 잇는 내부통로(계단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면 탑부 중앙에 큼지막한 원형창문을 내었다. 전체규모가 크지 않지만 시원스러운 구성이다. 계단위 좌우측 출입구 지붕의 기둥부분의 장식은 전통 목조건축의 공포형태를 따르고 있다. 건축에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장천교회는 단순한 구조 그리고 소박한 외관과는 대조적으로 세부에 있어서는 정교한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정면 2층 양쪽 출입구 위에 설치된 현관지붕(캐노피)의 일부장식과 지붕부 처마의 서까래에 해당하는 부재가 전통 목조건축의 부재 성형기법을 따르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석조 2층인 점과 2층이 예배실에 직접 이를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한 점은 '여수애양교회'(울촌면 신흥리)의 건립초기의 모습과 닮은 점이다.

장천교회는 지역 근대 교회의 성립 및 건축의 형식을 온전히 전해주는 문화유산으로써 문화사적,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 장천교회

참고문헌

- 「麗水港棧橋築造決定」, 『朝鮮と建築』 12輯 2號 1933. 2.
- 京城日報, 「關麗連絡航路と南朝鮮鐵道の開通」 1925. 12. 25.
- 京城日報, 「麗水農業倉庫の落成式」, 『朝鮮と建築』, 11輯 1號 1932. 1.
- 京城日報, 「多島海の狀況(1/2)」(松井木浦署長 談話), 1913. 6. 23~24.
- 京城日報, 「朝鮮郵船の成績(上/下)」, 1917. 10. 28~29.
- 京城日報, 「天惠至福ある全南産業大勢」, 1925. 9. 23.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건축 21호 여천 홍국사』, 2001.
- 김계유 편, 『여수·여천 발달사』, 1988.
- 김대의 서치상, 『여천 홍국사 가람배치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호, 1992.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 稻葉君山, 「朝鮮文化の將來(1~6)」, 大版毎日新聞, 1924. 2. 24.~29.
- 木原, (參謀本部第三部長陸軍小將), 「軍事上から見た朝鮮の諸港灣考」, 京城日報, 1925. 4. 22
- 문영구, 『전라좌수영 연구』, 1992.
- 문영구, 『충민사 성역화의 필요성』, 여수수산대학교논문집 제5권.
- 문화재청, 『진남관실측조사보고서(본문)』, 2001.
- 박광석·유형균,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 손광섭, 『옛다리를 찾아서: 영취산 홍국사 홍교』.
- 순천대박물관, 『전라좌수영성지』, 2002.
- 순천대학교박물관,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1993.
-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변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 여수·여천 향토지편찬위원회 편, 『여수·여천 향토지』, 1982.
- 여수시·조선대학교박물관 편, 『여수시의 문화유적』, 2000.
- 麗水邑 編, 『麗水邑十年史』, 1942.
- 全羅南道麗水郡 編, 『郡勢一斑』, 1939.
- 田中麗水, 『中央より見たる新興朝鮮開發事情』, 朝鮮民報社, 1939.
- 片岡議 編, 『南鐵沿線史』, 1933.
- 片岡議 編, 『麗水發展史』, 1928.

허 섬, 『호좌수영지』, 1847.

홍국사, 『호국의 성지 홍국사』, 1989.



▲ 진남관 기둥

